



8

199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8호

(루계 514)



## ◆◆◆◆◆◆◆◆◆◆ 차 례 ◆◆◆◆◆◆◆◆◆◆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	4
발양시키는 작품을 적극 창작하자 .....	4
우리의 길 .....	6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	7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계시기에 .....	7
만경대에서 개선문까지 .....	8
빛나는 그 이름 .....	8
금쪽의 7월 .....	9
재부 .....	9
개선문에 새겨진 빛나는 년대 .....	10
백두산의 말 .....	11
위대한 력사에 대한 진실한 화폭 .....	12
주체적인 혁명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겠다 .....	19
크나큰 민족적공지를 소설작품에 ! .....	19
걱정이 파도치는 들판에서 .....	20
열정의 붓을! .....	21
상봉의 축배 .....	21
《어머니에 대한 추억》 .....	22
너는 20대 .....	27

소 원 .....	28
나의 벗들에게 .....	36
인생의 봄 .....	37
바다여, 나의 바다여 .....	38
마지막 낚시질 .....	39
탄전의 발파소리 .....	48
축전의 노래 .....	49
인생과 량심 .....	51
한 전우를 생각하며 .....	52
고향의 언덕우에서 .....	54
강선로동계급의 뜨거운 충정에 대한 개성적인 시형상 .....	55
조국과 탄부 외 1 편 .....	58
길조차 헛갈렸네 .....	58
미 소 .....	59
나의 병사시절 .....	65
아름다운 딸들아 .....	66
고향에 .....	66
기 초 .....	67
은행지도원 .....	68
《대동강물우에 띄우는 편지》를 읽고 .....	77
동화언어에서 과장법의 리용을 두고 .....	78
복수하리라, 그대의 이름으로 .....	80

##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 작품을 적극 창작하자

지금 모든 작가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가 역세게 뿌리내린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90 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은 커다란, 걱정과 감격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광넘치는 승리의 한길을 줄달음 쳐온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에게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겨주고있으며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의 창조에로 떨쳐나서도록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언제나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발전하여온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앞에는 이 거창한 진군에 발맞추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완벽하게 창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변함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노래를 창작하여야 하며 생활과 투쟁의 거울로 되는 작품, 혁명과 건설에서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살아있을수 없게 하는 그런 위력한 형상을 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사회의 기본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데 있다.

작가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특징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밝혀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이 실생활로써 확증되고있는 조선혁명의 찬란한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우리 문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현명하게 령도하여 나가시는 위대

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게 다함없는 충성심을 바쳐온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하며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보다 완벽한 경지에 올려놓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우리를 점령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화력을 집중하게 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목표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의 실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들끓는 생활속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발전하는 시대적인 성격, 영웅적인 성격들을 창조해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의 기본전략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의 문학작품들은 우리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하여놓은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에 대하여 생동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교통운수부문에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고 생산능력과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모습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민족경제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경공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이 마련한 방대한 경공

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경공업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경공업부문 근로자들과 일군들의 자랑찬 풍모를 형상하는데 의연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는 보다 휘황한 전망을 확고히 내다보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체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체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믿음직한 모습들을 감동깊게 형상한 정서적인 화폭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작가들은 농사를 더욱 집약화하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고있는 농촌경리부문 근로자들과 일군들을 형상하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또한 당의 원대한 구상따라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들에서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농촌마을까지 중앙난방화, 가스화하고있는 건설자들과 일군들의 투쟁모습을 예술적화폭에 담아 실감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곧 기술혁명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속에서 기술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워야 한다. 당면한 생산에만 매달리면서 기술발전을 홀시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고있는 일군들의 인상깊은 형상도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와 세계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대로 생산지도와 기업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는 일군들의 형상창조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들끓는 생활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공산주의적인 인간성격이 성장발전하는 로정을 깊이 있게 형상하면서 거기로부터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없이 볼수 없는 감화력이 큰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업이다.

나라가 분렬된 다음 오늘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력사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력사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안이야말로 현시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력사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것은 통일념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자주화의 력사적흐름이 제기하는 시대적과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가지고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의 성스러운 모습을 형상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위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에 매달리고있지만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가 인민들의 운명을 결정할수 없으며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울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책동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여야 하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뿐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형상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주체문학의 새로운 화원에 백화가 만발하게 하는것은 1990 년대의 장엄한 력사적인군길에 들어선 우리 작가들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이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우리의 길

안정기

세상길 갈래 많고  
걸음새 다 다르다 하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새로 가나니

맑은날 궂은날 가림없이  
때로 진펄이 나저도  
험하다 탓하지 않고  
온길보다 갈길이 멀어도  
주저없이 두려움없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좋아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  
주체의 한길  
수령님 펼치신 진리의 큰길

얼마나 보람찬가  
얼마나 긍지높은가  
창공에 내려쳐오른 행복의 집에서  
해빛 어린 창문을 열어제끼며  
걸어온 길 더듬는 후더운 마음이어

한세기도 아닌 단 14 년에  
숲처럼 일떠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철탑들을  
긍지높이 바라보던 그 감격이 이 길에 있었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철탑들을  
협동화의 종소리 정다운 전야에서  
이삭들을 쓸어안으며  
마주웃던 푸른 하늘도 이 길에서 열렸거니

꿈같은 모든것이  
바라던 모든것이  
사회주의 이 길에만 있어  
우리의 신념은 이렇듯 드높지 않고  
우리의 희망은 이렇듯 창창한것 아닌가

보라!  
광판하는 날바다를 깔고앉은  
우리 담력의 탑— 서해갑문을

비날론공장의 은빛 지붕우에서  
빛발쳐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라!  
로동계급화-인테리화의 길우에  
붉은 한색이 된 수천만의 대오를  
주체의 상상봉을 향하여  
휘날려가는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이 길에 존엄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  
우리는 바꾸지 않노라 한번 세운 리정표를  
우리는 에돌지 않노라 한번 떠난 행군로를

오, 사회주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이 길은 력사가 확인한 길  
이 길은 인류의 운명이 놓인 길

우리는 가리라 이 한길을  
밀려드는 제국주의 역류를  
쇠물의 폭포로 휩쓸어버리며  
시대의 온갖 불순물들을  
전력의 번개로 태워버리며  
석탄의 산악으로 물어버리며

아름다운 비단필로  
강산을 수놓으며  
주렁지는 오곡백과로  
생활의 향기를 풍기며

90 년대의 희망푸른 가슴에  
한겨레 열싸안을  
자주통일의 그날을 당기며  
신념의 발구름 높이리라

세월의 지름길을 그어준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  
불패의 혁명의 무기  
사회주의대강을 높이 추켜들고

##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칼라이나리보 노엘 하르베이

영웅적인 위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풍모  
만민이 따르는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신  
그 예지에 탄복합니다

인류해방의 길 밝혀주시고  
광휘로운 빛발 안겨주신  
그 천리헤안에 탄복합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마디마디  
자주의 귀중한 가르치심되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나니  
우리 그 말씀에 귀기울입니다

언제나 인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그마한것까지 다 풀어주시려

온갖 대책 세워주시는 수령님  
헤아릴길 없이 부드럽고 파사로운  
그이의 손 잡아본  
영광과 감겨 끝없습니다

끝없이 다정하고 인자하신 그이의 목소리  
들으면 감격에 눈시울 뜨거워지고  
온갖 시름 가뭇없이 사라지기에  
백번천번 듣고 또 듣고싶습니다

그처럼 숭고하신 풍모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처럼 위대하신 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모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년만년 장수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필자는 마다가스까르 창작가임)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계시기에

프랑쑤아

세계가 알고있어라  
백두산밀영의 귀틀집을  
여기에서 조선의 영명한 지도자 탄생하셨거니

원썬들은 총창을 비껴들고 밀영으로 달려들었다  
주린 승냥이와 같이  
총포탄 퍼부으며 발악하였다  
조선혁명을 말살하려고  
허나 안될 일  
불굴의 혁명투사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싸웠다

비행기와 대포소리 울부짖고  
회유와 기만책동 간악했어도  
투사들은 밀영을 지켜냈어라

2월 16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조선의 위대한 아들  
지구의 어둠을 밝힐 미래의 태양을  
높이 안아올리시였어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는 전화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끊임없는 투쟁속에 성장하시였기에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신다

인민에게 행복을 주신 그이  
조선을 더더욱 행복한  
인민의 락원으로 만드시기에  
인민들 그이를 끝없이 존경하고 찬양한다  
세계는 조선을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칭송  
한다

(필자는 마다가스까르 목사임)

# 만경대에서 개선편까지

리명근

멀지도 않다  
막아선 준령도 바다도 없다  
만경대에서 개선편까지

순수하게 펼쳐진 길  
천천히 걸어도 반나절이면  
달고도 남음이 있으련만  
이 짧고도 순탄한 길을  
우리 수령님  
얼마나 먼길로 에돌아야 하셨던가  
긴긴 20 여성상  
피어린 혈전의 언덕을 넘어—

만경봉의 소나무 설레임을 안고  
광복의 먼길에 오르신  
눈보라치는 1월의 그날부터  
화전의 언덕을 넘어  
길림의 들길을 지나  
한걸음 또 한걸음…

백두밀림의  
진대나무를 타고 넘으며  
총칼의 숲을 총칼로 맞받아 헤치며  
보천보의 화광비낀 시가를 지나  
우등불타던 청봉의 밀림을 지나

한걸음 또 한걸음…

멀지 않은 이 길을 오시려  
20 여년 하루같이 얼마나 험한 길  
걸고 또 걸으셨던가  
묻고온 전사의 더운 피를  
가슴에 복수의 불길로 태우며  
결전의 언덕을 넘어온 길  
천리던가 만리던가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조국을 이끌고  
인민을 이끌고  
우리 수령님 기어이 와닿으셨다  
영원히 말길수 없는  
개선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날이 있어  
해방조국의 번영이 있고  
민족자주의 존엄이 있거니  
짧아도 단숨에 울수 없었고  
평탄해도 피흘려서만 울수 있는 이 길  
값높이 찾은 조국이 귀중함을 깨우쳐주는 길  
아, 만경대에서 개선편까지의 길이어

## 가사

# 빛나는 그 이름

한찬보

이 강산 제일봉에 그 이름 새기고  
이 세상 고운 꽃에 그 이름 담았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언제나 부르며 우리는 따르네

그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한마음  
그 이름을 떨쳐도 우리는 한모습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언제나 부르며 우리는 따르네

그 이름 역세인 신념을 주고  
그 이름 만민의 노래로 울리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언제나 부르며 우리는 따르네



## 금골의 7 월

량덕모

눈내리는 1 월도 그 몇번  
꽃피는 5 월도 그 몇번  
그 몇번 봄은 가고 가을은 갔는가  
허지만 광부의 마음속에 가지 않는  
아, 금골의 7 월

풀벌레소리 산곡을 울리던  
못잇을 그해 7 월이어  
너는 막장 한끝에 가도  
길은 록음처럼 싱싱하여라  
너는 사택마을 어느 집에 들려도  
맑은 물소리처럼 유정하여라

보고싶으시여  
금골의 광부들이 보고싶으시여  
무더위속 천리 또 천리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밝은 영상과 함께 어려오는 7 월

교대마다 인차에 오를 때면  
그이께서 허물없이 앉으셨던 자리에  
내 황송히 타고가는듯  
그러면 흑한의 겨울에도  
7 월의 열기가 차안가득 서리여라

안전모를 머리우에 얹을 때면  
그이께서 쓰시였던 광부의 모자여서

이보다 영예가 빛나는 월계관이 없는듯  
그러면 락엽지는 가을에도  
7 월의 푸르름이 내 팔뚝에 힘으로 뻗치여라

하여 앞벽을 들때리는 나의 착암기소리  
그것은 돌가루물은 손잡아  
행복의 첫자리에 세워주던  
7 월의 그 사랑에 격해진 광부의 노래  
내 흐뭇이 헤여보는 발파소리  
그것은 널판자로 둘러막은 막장지휘부에  
그이께서 계셨던  
7 월의 그 믿음에 터치는 광부의 대답

아, 하루도 떨어져 살수 없는  
금골의 7 월 광부의 7 월  
너는 밤이나 낮이나 설레여라  
보화의 방아를 찧는 선광장 동음속에  
불빛 환한 혁신자 무대우에  
지배인의 사업보고와 내 당생활 수첩에도...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곳에  
언제나 깃들어있는 환희로운 7 월이어!  
북대천은 흘러흘러가도  
검덕산이 솟아 무궁하듯  
이 땅의 보화를 다 캐여도  
너만은 너만은 남아있으리라!  
친애하는 그이 력사의 자욱으로

## 재부

-삼지연대기념비 군상앞에서-

림천삼

누구나 밟고 다니는 흙을  
투사는 어찌면 저리히도  
두손 모아 정히 받쳐든것인가

무심히 피고지는 한송이꽃에도  
투사는 어찌면 저렇듯 얼굴부비며  
애틀한 향수에 젖어있는것인가

항웅큼 물을 떠안고서는  
투사는 뜨거이 눈물 짓나니  
피와 생명은 잃어도  
너만은 잃지 말아야 할것이기에  
그리도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린것이어  
오, 흔하디 흔한것의 소중함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어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어 우리 혁명이 억년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역사적뿌리인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김정일

송고한 충성

## 개선문에 새겨진 빛나는 년대

1980년 5월하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개선문모형사판을 보아주시던 날에 있는 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건립하게 될 개선문모형사판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부르시어 그들과 함께 모형사판을 돌아보시였다.

드넓은 방에 전시된 모형사판은 멀지 않아 일떠서게 될 개선문의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듯만싶었다.

사판을 돌아보시는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만족해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으며 창작전투를 벌려오던 지난날이 감회깊이 돌이켜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개선문건립사업을 발기하신 때로부터 근 1년, 이 나날에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개선문 창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창작가들이 만든 도안을 보아주시고 그들이 고심하던 개선문의 위치선정과 규모, 형식문제 그리고 사상주제적내용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개선문모형사판이 완성될수 있는것은 그이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모형사판을 바라보고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개선문기둥에 시선을 멈추시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

거기에는 《1926~1945》라는 년대가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평양에 개선하신 때까지의 기간을 밝힌 년대였다. 즉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개시로부터 평양개선까지의 혁명력사를 상징하는 년대였다.

《1926년 ...》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나직이 외워보시더니 일군들에게 개선문에 써붙일 년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씀드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견해를 부정하시며 개선문에 써붙일 년대는 《1925~1945》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미처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하고있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시고 개선문에 써붙일 년대를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1926년부터 조국에 개선하신 1945년까지로 하는것도 의의가 있지만 14살 되시던 때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신 1925년부터 조국에 개선하신 1945년까지로 하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하시며 개선문에 《1925~1945》라고 써붙이면 수령님께서 20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신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참으로 명철한 가르치심 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들은 그이께서 고쳐주신 수자 하나를 두고 가슴뜨거운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1925~1945년, 이 년대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찌기 청소년시절부터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에 찬 혁명의 로정을 걸어오셨던가.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시어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잃은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친 압록강을 건너시어 나라를 찾기전에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신 역사의 1925년부터 20성상 주체의 혁명적기치밀에 불패의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마침내 1945년 조국을 광복하고 평양에 개선하시지 않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불멸의 력

사를 개선문에 정확히 새기도록 수자 하나를 고쳐주셨던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의 수자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완벽하게

기념비에 부각하여 후세에 전하시려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충성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것이다.

## 백두산의 말

리찬영

정일봉너머로

썩썩 불어치는 눈바람소리는

폭풍을 부르며 울부짖고

수림속 어데선가

눈사태 내리는 소리

얼음덩이 굴르는 소리

귀기울이면

만천하를 향해

백두가 호령하는 소리같이

걸음걸음 가슴 울렁이더니

성벽처럼 둘러진 밀림속

고향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숲에서인가 샘물에서인가

아니 내 마음에서인가

문득 조용히

너무나도 정겨이 울려오는

새소리 물소리여

정겨운 속삭임과도 같이

저 뾰족가에서

꿈을 부르던 그날의 자장가소리 울리는듯

조용히 승엄히

저저드는 발걸음소리 발걸음소리

이 마당가에서

투사들 두손 모아

송이송이 흰 눈을 받아 안을 때 듣던

떠나온 고향집 살구나무가지에

꽃샘하는 소리도 울리는듯

창창한 미래의 하늘가에

아름답게 비낀 노을을 바라보며

저 귀틀집 추녀아래 서있던

그날의 보초병 가슴속에 뛰던 환희의 숨결소리

그날의 너대원들 백두성 이야기로 속삭일 때

기쁨이 피어나던 그 웃음소리도 들리는듯

아 천리 백두산록에

크나큰 의미로 울리는 소리여

꿈과 환희와 미래가 다 스며

희망과 기쁨 사랑이 다 넘쳐

다독여주던 어머니의 속삭임만 같아

살뜰하고 정어린 귀속말만 같아

귀기울일수록

정일봉과 고향집앞에선 가슴 가슴에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영광

무궁한 조선의 앞날을 속삭이는 소리 들려오누나

그렇구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주는

눈바람과 폭풍과 우뢰로만

백두산은 다 말하지 않누나

정다운 새소리 물소리로도

우뢰치는 폭풍보다 더 크게 심장 울리며

조국과 미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불러주는구나

## 위대한 역사에 대한 진실한 화폭

-총서 《불멸의 역사》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러명》에 대하여-

최연경

장편소설 《혁명의 러명》은 총서 《불멸의 역사》항일무장투쟁시기편중에서 1927 년초부터 1928 년말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벌리신 초기혁명활동을 반영하고있는 의의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7 년초 화전으로부터 길림으로 혁명활동무대를 옮기시였을 때 그곳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고 엄혹하였다.

일제의 탄압과 모략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었으나 고루한 민족주의우두머리들은 《통합》을 운운하면서 서로 《령도권》쟁탈을 위한 싸움을 벌리고있었으며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초혁명적인 사회주의의 구호를 내걸고 인민들을 무모한 좌경적투쟁으로 내몰고있었다. 이리하여 갈길은 몰라 헤매며 이끌어줄 령도자를 애타게 찾던 뜻있는 애국청년들은 길림을 떠나 산지사방으로 정처없이 흩어져가고있었다.

파연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시대의 난국을 타개하며 애국에 불타고 혁명에 목마른 수천수만의 심장들을 하나로 합치게 할 그런 리념, 그런 령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장편소설 《혁명의 러명》은 바로 이 절박한 시대의 물음을 전면에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명한명의 동지들을 찾고 그들을 조직에 묶어 세워 수많은 새형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시고 기성의 낡은 세대들이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러명을 안아오시였다는것을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역사적사실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의 창조,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러명》이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의 형상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인간들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는것입니다.》**

역사적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의 창조는 사실주의적문학예술의 일반적원칙이지만 특히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반영하는 수령형상 작품에서는 첫째가는 생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력사를 충만시키고있는 거대한 역사적사건들과 사변들, 거기에서 꽃피어나는 가지가지의 뜻깊은 생활들은 그모두가 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의의있는 전형적인것일뿐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인간의 자주적요구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사적사실이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현실이며 예술적형상은 아닌것이다. 예술적형상은 어디까지나 창작가의 창조물이며 예술적허구의 필수적산물이다.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작가에 의한 생활의 재창조과정과 허구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작용할뿐이다.

여기서는 역사에 실재하지 않은 역사적사건이나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되며 또 실재한 역사적사실을 자의대로 빼거나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인민의 력사, 혁명력사에 대한 외곡으로 되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허구는 제한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적인것이다. 수령형상작품이야말로 허구와 환상, 창작적사색, 한마디로 말하여 작가의 창조적능력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는 활무대이며 또 그것을 최상의 높이에서 요구하는 정제품이다.

그것은 수령의 혁명력사에 실재하는 하나하나의 사건과 사실의 본질과 의의가 얼마나 넓고 깊은 생활의 폭과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밝혀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창작가의 창작적사색, 창작적기량과 관련되기때문이며 그 역사적사실들이 현실보다 더 큰 정서적감흥과 예술적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것도 작가의 미학적리상, 형상적기교에 근원하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허구의 작용범위는 무한하고 창조적가능성도 제한이 없다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러명》은 실재한 역사적인물, 원형에 기초한 빛나는 전형의 창조, 역사적사건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일반화, 하나의 작은 생활을 통하여 열백의 거대한 생활을 보여주는 풍부하고 진실한 세부묘사 등 수령의 위대성형상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는 이 모든 형상적요인들로 하여 역사적사실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되였다.

### 1. 원형에 기초한 전형인 창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실재하였던 역사적인물, 원형에 기초하여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

의자들의 빛나는 전형들을 훌륭히 창조한것은 장편소설 《혁명의 러명》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공으로 된다.

작품에는 차광수, 김혁, 최창걸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전으로부터 길림으로 보내신 박두학, 최봉, 김리갑이들, 길림에서 만나신 권태일, 최기준, 장춘택 그리고 채경, 경주, 오순희들, 민족주의자들을 따라다니던 오학전, 송춘보 그리고 퇴폐적인 시의 세계에 빠져있던 신동호, 초기공산주의자들을 따라 사회주의를 한다고 들떠다니던 조창진, 정금석이들과 같이 각이한 운명의 길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신한 청년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전형적성격들이 그려지고 있다.

작품은 김성주동지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고 그 한없는 위대성을 심장에 받아안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는 이 매력적인 청년전위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수령이시고 령도자이시기전에 가장 위대한 인간, 인간중의 인간아시고 동지이시며 생명의 은인이시고 스승이시라는것을 인간학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제에게 짓밟히고 종파와 민족주의로 사분오렬되어 갈가리 찢어지고 흩어졌던 수난많은 민족사에 하나의 위대한 향도성을 구심점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새 역사를 펼치고 의리로 맺어지고 신념으로 다져진 참된 충성의 첫 뿌리를 내린 이 새 세대들은 김성주동지, 그이와 땀해야 땀수 없고 잇을래야 잇을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 나라의 첫 공산주의청년전위들이라는것을 작품은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그들은 진정 수령을 알기전에 위대한 인간을 알고 그 사상을 배우기전에 위대한 인간애에 매혹되고 거기서 생명을 받아안은 사람들이다.

김혁, 차광수, 그들은 수난 많은 조선혁명을 개척해나간 우리 혁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첫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의 빛나는 구감이다.

력사에 다시 없을 이 영광, 영생하는 생명을 누가 그들에게 안겨주었는가?

차광수, 그가 만약 류하에서 이전부터 알고있는 같은 평안도태생의 최창걸이로부터 김성주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길림으로 그이의 품을 찾아오지 못했더라면 그는 민족의 구성을 부르며 동경으로, 서울로, 상해로 헤매다가 끝내는 투신자살, 음독자살의 비겁한 기도까지 품고 비척거리던 그 저주의 땅에서 이름도 없이 한방울의 이슬이 되어 사라져버렸을것이다.

이러한 차광수가 또한 김혁이를 그이결으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열혈시인인 그도 역시 서울의 어느 뒤골방에서 《황성옛터》나 부르고 기타를 뜯으며 술을 마시면서 《조선아, 사랑하는 한반도야! 너를 구원할 영결은 과연 이 세상에 없다

더냐?》고 부르짖다가 말았을것이다.

차광수는 꿈결에도 그러보면 정다운 벗, 김혁의 이름을 불러보며 혼돈속에 표류하던 자기의 낮은 당년 열여섯살의 청년지도자 김성주동지에서 계시는 동경의 《나라》, 리상의 《나라》에 영원히 정박하였다고 환희에 넘쳐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치악산》, 《귀의성》같은 모지라진 신소설책을 읽으며 간담을 조이는 그 아슬아슬한 장면들에 취하여 몽통한 정신으로 열여섯살의 그 나이를 보낸 차광수는 열여섯살의 소년으로 민중의 각광을 받는 지도자 김성주동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때 최창걸의 이 말이 과연 진실일가하고 선뜻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강남공원에서 대웅변가, 리론가로 공인된 안창호의 강연의 민족계량주의적내막을 몇마디의 연설로 적라라하게 밝혀버리시는 김성주동지의 영상에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차광수는 이미 그이에게서 조선의 명맥, 조선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보았으며 그이를 스스로 동지로, 스승으로, 지도자로 그리고 영결중의 영결로 모시게 되었다.

억지로 끌어당길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또한 스스로 매혹되고 떨어질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매혹이란 말그대로 그 어떤 도덕적규범이나 논리의 귀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간에 이루어지고 깊어지는것이다.

김성주동지에 대한 매혹된 마음은 김혁이 길림 땅에 첫발을 들여놓던 그날 로상에서 불쌍한 인력거군을 옹호하여 신사들을 단죄하시는 그이의 정의로운 초면의 모습을 뵈는 그 순간에 벌써 생겨났다. 그리고 투철한 계급의 안광으로 안창호의 궤변을 일축해버리시면서도 조선사람이고 조선민족인 그를 일제로부터 석방하기 위하여 온 길림땅을 불러일으키신 그이의 거룩한 영상을 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김성주동지를 해방의 구성으로 모시려는 신념으로 굳어졌다.

그러하여 열혈시인 김혁은 심장으로 웨친다.

《김성주, 그대는 내가 찾던 별이다. 온 민족이 일구월심으로 찾고 그리던 해방의 구성이다. 나는 아직 그대처럼 민중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지도자를 보지 못하였다. 그대는 민중속에서 나와 민중에게 빛을 주고 덕을 주는 민중의 별이다. 나는 이 별을 받들고 지키는 하나의 전사다. 장차 주옥같은 시어들을 골라 이 별을 찬양하고 자랑할 사명을 지닌 조선의 시인이다.

이 별결에서 조국이며, 그대는 반드시 광명을 보게 되리라.

그대의 앞길에 행복은 무궁하리라.》

그의 념원은 현실로 되었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의 탄생은 이러한 신념에 대한 력사의 확언이기도 하였다.

소설은 그들의 이러한 성격발전과정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고정격식화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스스로 동지로, 《김성주동무》로 부르는 간격 없는 관계에서, 길림에서 신안톤으로 오고간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뜻깊은 생활속에서 그리고 조직을 못하고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해 나가고있다.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동지애의 세계와 더불어 그 뜨거운 인간애의 터전위에 뿌리내리게 된 차광수의 충성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가장 기쁜 생활화폭의 하나이다.

위탈이 심한 차광수가 찬밥을 먹는 때가 많은 데다가 걸음도 많이 걷게 될것을 생각하시여 김성주동지께서 신안톤으로 보내주신 자전거이다.

그것을 받게 된 차광수는 《덜렁광창》인 제성미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가져간 김혁에게 도대체 지각이 있는가고 노여워하면서 공부도 하고 혁명도 하면서 하루에도 60 리, 한주일에도 400 리를 더 걷는 성주동지라고 극진한 말을 한다.

차광수는 김혁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보라구, 김혁이. 우리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을 항상 김성주동무한테 두어야 하네. 감자 한알이 생겨도 먼저 김성주동무를 생각하는게 우리의 본분이네. 어떻게 찾아내고 맞이한 김성주인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한처마밑에서 무정한 이국의 비를 맞으며 기한에 떨던 차광수가 언제 그런 의리, 그런 도덕을 배웠는지 김혁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그러한 김혁이 김성주동지께서 되돌려보내시는 자전거를 타고 오래도록 손저어 보내시는 그이의 배려움을 받으며 다시 신안톤을 향하여 쾌속으로 달리게 되었을 때 김혁은 진정 우정과 믿음이 서로 불안고 한덩어리가 되어 엉켜져 돌아가는 이 숭고한 세계를 불타는 열혈의 심장에 그대로 받아안았다. (그렇다, 김성주! 그대는 별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이러한 심장의 분출이었다.

이처럼 같길을 몰라 표류방탕하던 열혈의 애국 청년들인 김혁이, 차광수는 김성주동지의 위대한 빛발을 받아 력사에 불멸할 조선의 청년공산주의 전위로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인간학적으로 진실하게 밝힌 여기에 이 전형적성격들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형화의 성과는 생신하고 진취적인 권태일과 성실하고 사려깊은 기관구로동자 최기준의 성격에도 그리고 민족주의의 진흙탕에 빠져 길림을 떠나 향방없는 길을 가려던 《러길학우회》 회장 오학천과 데카당적인 《자화상》의 세계에서

외롭게 번민하던 신동호,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한다고 월파따위를 따라다니던 정금석이들의 눈물겨운 경쟁의 모습속에도 생동하게 어려있다.

그중에도 법정학교 학생 채경이와 그의 누이동생 경춘, 오누이의 혁명적성장과정은 가장 감동깊게 그려지고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린 몸으로 우유배달, 신문배달을 하고 선창가에서 짐을 나르고 그물을 뜨며 정미소에 나가 쌀을 고르는 눈물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애써 혁명을 하자고 몸부림쳐온 그들이었다. 그러나 밤낮 학생들과 밀려다니며 론쟁으로 세월을 보낼수도 없고 김찬이따위의 파벌속에 휩쓸려다닐수도 없는 채경은 혁명을 못할바엔 솔직하게 나왔아서 밥벌이라도 하는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길림을 버리고 떠나갈 결심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성주동지께서는 제비동우리같은 그들의 초가집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눈물겨운 자립정신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고 손수 온돌까지 고쳐주시며 함께 손잡고 혁명을 해보자고 따뜻이 이끌어주시는것이다. 경주오누이는 그이의 그사랑, 그 이끄심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며 마침내 《E.C》의 핵심성원으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전위투사로 성장하는것이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의 광장에서 앞장서 싸우다가 김성주동지의 신변을 지켜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나서는 경주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이 모든 생동하고 뜻깊은 형상들로 하여 혁명의 려명기 새 세대의 첫공산주의전위투사들을 키워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진실한 화폭으로 되었다.

## 2. 력사적사건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벌리신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실재하였던 수많은 력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이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이것이 또한 작품의 예술적진실성을 담보한 하나의 중요한 형상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도 잊지 못하시고 감회깊게 회상하시는 인력거군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삼부통합》을 운운하면서 《령도권》쟁탈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고루한 민족주의 우두머리들과의 투쟁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집행위원들인 화요파의 월파 초청산파 김찬 등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선, 《E.C》와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조직화대하기 위한 투쟁선 그리고 길림육문중학교의 동맹휴학사건선, 소설의 절정을 이루고있는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상품배척을 위한 투쟁선 등 작품의 기본줄거리를 이루고있는

크고작은 모든 사건들이 그러하다.

이 모든 다양하고 의의깊은 역사적사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된 두가지 문제를 주축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령도과정으로 작품을 일관시키고있으며 그 위대성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이루고있다.

횡적으로 폭넓게 맺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보여준다면 종적으로 이어져나가는 역사적사건들은 그러한 인간관계들이 가치를 치고 뻗어나가는 원줄기를 이루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선을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소설은 실재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그 본질에로 대담하게 육박하여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지위와 거대한 의의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밝혀냄으로써 그것을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특징들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되게 하고있다.

안창호의 강연과 석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선이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혁명적원칙성, 한없는 아량과 민족애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면 권심의 강연과 론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역사적사실들은 숭고한 인간애속에 양보할수 없는 철칙으로 간직하신 그이의 혁명적원칙성을 부각해주고있으며 지어 크지 않은 인력거군사건에도 인민에 대한 그이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 반대의 편에서 사는 착취자들, 불의에 대한 타협없는 증오와 정의감이 섬광처럼 번뜩이고 있는것이다.

김성주동지께서 길림시가지로상에서 우연히 맞다들게 되신 인력거군사건, 그것은 사실상 그리 큰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로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와서도 수령님께서 못내 잊으실수 없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에 대하여 회상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력거사건과 같은 모순되고 불공평한 사회현상을 수많은 체험하는 과정에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을뿐아니라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주, 자본가놈들과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벌리신 혁명활동과정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완성하여나간 과정이었으며 독자적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하여나간 과정이었다. 여기서 인력거군사건은 푸른 바다위에 솟아있는 하나의 산호림과도 같이 그이께 잊을수 없는 깊은 자욱을 남겨드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력거군사건에 대한 수령님자신의 체험세계에 기초한것이며 인력거군사건에 비낀 수령님의 위대성은 실로 훨씬 더 거대한것이다. 그것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작은 하나의 사건에 거인의 영상이 그대로 비쳐있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소설은 바로 그러한 의의를 김혁의 경이적인 시점으로 확인하고있다.

광채가 이글거리는 두눈으로 흔들거리는 부자놈을 쏘아보며 인력거를 타고왔으면 샅전을 제대로 주라고 엄하게 말하고 끝내 샅전을 받아내서 인력거군에게 준 초면의 그 청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인력거군에게 세상은 바로 이렇게 공평치 못하니 절대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따듯이 일깨워준 그 비범한 청년이 바로 자기가 것처럼 마음속으로 흠모해마지 않던 김성주동지 이시라는것을 알았을 때 김혁은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그 위대성에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불의에 대한 불같은 증오, 부자놈의 기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비범한 기품, 그밑에 차넘치는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김혁의 첫눈에 비낀 김성주동지의 모습이였다.

이처럼 소설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사실들은 자기의 진상과 진면모를 뚜렷이 내보이면서 대하로 흘러드는 샘물과도 같이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선을 더하고 빛내고있다.

권심의 강연에 대한 원칙적립장, 안창호의 석방사건, 민족주의자들의 《령도권》쟁탈싸움의 본질을 여지없이 발가내보여준 혁명연극의 공연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맑스주의리론가라고 하는 권심의 강연 《조선청년들이 나아갈 길》과 1920년대전반기 조선로동운동을 개괄한 그의 론문 《조선로동운동개관》에 대한 김성주동지의 신랄한 비판은 민족문제에 대한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함께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원칙성의 투철함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권심은 강연에서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보라색연막으로 민족문제의 본질을 가리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계급적모순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민족문제를 좌경적으로, 허무적으로 대한다. 그리하여 그의 강연은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켰으며 지어 한 학생은 공산주의는 애당초 계급밖에 모른다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김성주동지께서는 권심의 강연으로 하여 생긴 소동을 가슴저리게 감수하시였으며 그럴수록 《E. C》가 추켜든 리념의 정당성을 확신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 타도와 조선의 독립, 조선민족의 해방을 떠난 순수계급투쟁이란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하여 《선독립, 후개혁》이라는 허울로 계

급호상간의 모순을 덮어버리고 계급투쟁자체를 전면부정하는 부르조아적립장도 용납할수 없으시였던것이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셨기에 난생처음 맛보는 쓰디쓴 수치감과 좌절감으로 장밤 잠 못 이루고 피로와하는 병약한 늙은이, 한생토록 맑스주의를 연구하면서 혁명을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권심을 그토록 아끼고 동정하시면서도 참된 명의가 종장을 사정없이 도려내듯이 모질다고 하리만큼 그의 이론의 병집을 날날이 일깨워 주시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언제든 권심이 이런 진통을 겪지 않고는 옳은 립장에 설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것이다.

바로 이 위대한 이끄심이 있었기에 권심은 한생을 파문혀 살아온 곰팡내나는 상아탑속에서 벗어나 혁명으로 들끓는 현실속으로 뛰어들수 있었고 감방에 갇히운 몸이 되었어도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낼수 있었다는것을 소설은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하나하나의 사건속에 깃든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와 한없는 위대성을 깊이있게 밝힌 여기에 이형상들의 의의가 있다.

소설에서 안창호와 관련한 사건선은 특별히 선명하고 의의있게 형상되고있다.

안창호는 조선민족주의운동의 시조로, 령수로 자처하는 인물이며 또한 민족주의자들모두가 동지이기전에 스승으로, 선배로 떠받드는 사람이었다.

그런것만큼 대응변가로 자처하는 안창호자신이 강연에 립하는 기세가 충전한것은 물론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자체가 만장의 시선을 끌었으며 그럴듯한 미사려구로 하여 요란한 박수갈채도 받았다.

그러나 조선민족을 정신수양이 낮고 가난한 민족이라고 모독하면서 자아수양과 인격향상에 기초한 실력배양을 운운하고 교육과 산업의 진흥에 의한 국력의 배양을 떠벌인 안창호의 궤변에서 민족개량주의의 진모를 한눈으로 꿰뚫어보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다섯가지의 서면질문으로 강연의 흑막을 여지없이 까밝히시고 일축해버리시였다.

안창호의 민족개조론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신 강남공원에서 그의 연설은 민족주의의 영향하에 헤매이고있던 사람들의 눈을 떠우고 온 길림땅에 새로운 사상사조의 눈보라를 일으켰다.

이것은 사실상 종파사대주의와 함께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리도 쏙먹고 피로 얼룩져온 고루한 민족주의, 민족개량주의와의 단호한 결별이었으며 생신하고 참신한 새 사조의 출현을 예고하는 력사의 선언이었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에 이어 그이께서 벌리신 안창호석방운동은 만인을 격동시키고 안창호자신을 눈물에 젖게 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비록

사상은 나빠도 그가 일제에게 잡혀간 조선사람이라는 오직 그 한가지 리유로 하여 온 길림땅을 그의 석방을 위한 투쟁으로 불려일으키신 김성주동지께서는 그 대해같은 포용력과 열화와 같은 민족애로하여 천층만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수 있게 하시였다.

이처럼 소설은 조선혁명이라는 거창한 대하에 비기면 하나의 물방울과도 같은 안창호사건을 통해서도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만물을 한품에 안은 우주와 같이 넓은 아량과 넘치는 민족애를 천품으로 지니신 수령님의 한없는 위대성과 탁월한 령도력을 훌륭히 부각해내고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에서 력사적 사실과 사건들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사실주의적일반화의 힘은 조직의 결정과 그 확대발전, 그리고 동맹휴학,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 등 작품의 기본줄거리를 이루고있는 거대한 사건들을 형상하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 학교들과 철도기관구, 선장들에 연구소조들을 내오고 조선인길림소년회와 같은 합법적조직을 내오시는 한편 일찌기 화전에서 결성하신 《이.리》조직을 길림으로 그리고 여러 농촌지역으로 확대해나가시였으며 그를 반제청년동맹으로 확대발전시키시였다.

몇달도 되지 않는동안에 이처럼 대중을 혁명으로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력에 감동된 권심은 이 광범한 조직들을 장차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작정인가고 그이께 물었다.

그 모든 조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전위조직,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내오려고 한다는 김성주동지의 말씀에 접하게 된 권심은 그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시라는것을 확인하면서 갖가지 사조가 란무하는 이 복잡한 시대의 운동무대에서 어떻게 이처럼 뛰어난 독창적인 길을 걸을수 있을가고 내심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수 없어한다.

마침내 그 감격의 날은 오고야말았으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그 창립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조선혁명은 하나의 큰 령마루에 올라서게 된것이다.

소설은 이 거대한 혁명의 봉우리는 조선혁명의 력사적교훈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시며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나가시려는 독창적이고도 주체적인 수령님의 사색과 령도의 고귀한 결실임을 생동하게 실증하고있다.

조직된 혁명력량을 실천투쟁속에서 무쇠와 같이 달구어내기 위하여 그이께서 벌리신 육문중학교에서의 동맹휴학, 그것을 단순한 학생들의 동정투쟁이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투쟁으로 예봉



을 돌리기 위하여 조직령도하신 일제와 김희선철도부설반대투쟁, 이 투쟁을 다시 또 한걸음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하여 화살의 과녁을 하나 더 설정하여 일본상품배척투쟁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이끄신 그이의 탁월한 령도—조선혁명의 령명을 개척한 이 거대한 력사적사건의 의의를 작품은 참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 3.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세부묘사

전형적인 세부의 선택과 진실한 세부묘사는 생활반영에서 생명과 같은것이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잡아야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수 있고 세부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묘사해야 인간의 내면세계와 생활의 의의를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으며 세부가 풍부하면 할수록 생활을 생동하고 폭넓게, 다면적으로 형상할수 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령명》이 뜻깊은 생활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되게 된 중요한 요인도 바로 세부묘사의 진실성에 있다.

작품에는 김성주동지께서 김혁을 거쳐 차광수에게 보내주신 자전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활세부를 비롯하여 열네살의 나 어린 탄수부 리성남의 손에 대한 세부, 송화강 선창의 갑판장 장춘택의 목책에 대한 세부, 권태일의 아버지 권성근의 뺨장다리에 대한 세부, 장두촌 청숙이의 짚신에 대한 세부 등 눈물겨운 생활세부들이 많이 그려지고있다.

이 생활세부들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뜻깊은 인간관계속에서 그려지면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애와 고매한 덕성을 형상하는데 바쳐지고있으며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세계를 심오하게 개방해보이고있다.

원래 생활은 인간관계를 의의깊게 맺어주고 인간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형상하는데서만 진실하게 재현될수 있다. 인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는 오직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생동하게 표현된다.

장편소설 《혁명의 령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서 만나시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인민을 두고 가슴저리게 체험하시게 되는 인간의 세계와 그들에게 퍼부어주시게 되는 넘치는 인간애의 세계를 참으로 감동깊게 해부해보이고 있다.

불이 이글거리는 기관실에서 평사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말랑말랑한 열네살의 소년 리성남의 손, 그 손을 쥐시는 김성주동지의 가슴은 짓밟힌 조국의 피어린 상처를 만지시는듯 가슴이 저리시였다. 그 손을 놓으시고 성남이와 헤어지시여서도 그 눈물이 나는 말랑말랑한 손의 감촉은 그이의 답답한 가슴에 맴돌아 풀리지 않았고 가슴에 울분을 채워주기만 하였다. 모대기

지 않고는 견디실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절박한 비극을 그냥 내버려두고는 살수 없다는 분함을 느끼시였고 모순에 찬 사회를 하루빨리 때려부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통감하시였다.

이처럼 말랑말랑한 성남의 작은 손에 대한 세부는 일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모습 그대로의 축도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인민에 대한 가슴저린 사랑과 그들을 기어이 구원해내교야 말 불같은 혁명의 열정으로 충만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세계를 한껏 터쳐보이고있다.

바로 여기에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보여주고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를 비껴안은것과 같은 세부의 의의가 있는것이다.

세부묘사가 가지는 이러한 거대한 의의는 저 멀리 창덕학교 그 시절에 아픈 심정으로 만나보시던 토성랑의 불쌍한 소녀에게 속울음을 울으시며 재산의 전부인 은전 두잎을 쥐여주시였던 그 눈물겨운 작은 손에, 그 은전마저 없으시여 미여지는 마음으로 낮과 밤을 이어 장두촌 청숙이에게 삼아주신 세켈레의 짚신에, 그리고 팔수 있는 상품이란 오직 로동력밖에 없는 로동자로서 그것마저 잃어버린 기관구로동자 권성근의 뺨장다리에 대한 그이의 터지는 가슴에 참으로 눈물겹게 어 려있다.

그 뺨장다리가 그리도 가슴에 걸리시여 제 지식, 제 식구도 만시름을 잊고 편히 잠든 깊은 밤에 권성근을 대신하여 밤새 수수짐을 메어나르시게 되는 그이의 마음이고 그것으로도 풀길없는 애절한 마음을 끝내 자해병원수술실에서 풀어버리시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이였다.

소설은 이처럼 하나의 세부를 요긴한 생활적계기마다에서 반복하고 그것을 점차 심화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퍼내고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이 한없는 위인의 그 세계를 의의깊게 펼쳐보이고 있다.

또한 이 하나하나의 세부들은 생활자체의 깊은 뜻과 함께 그것을 감수하는 위대한 인간의 다정다감함과 감정의 절박성으로 하여 더욱 눈물겨운 것으로 되고있다.

김성주동지께서 송화강 선창의 보승(갑판장) 장춘택의 웃웃주머니에서 우연히 보시게 된 그의 작은 목책에 대한 세부가 그러하다.

그 목책에는 월급 탄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썼다는것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밥값이 얼마, 담배값이 얼마, 양말값이 얼마, 김성득의 부채가 얼마,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고향 어머니에게라고 쓴 끝에는 돈액수가 적혀있지 않고 연필끝으로 두어번 찍다가 만 점이 있을뿐이였다.

그이께서는 쿵 치미시는 생각이 있어 얼른 소비한 돈 액수를 계산해보시였다. 소비한 돈액수가 월급액수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부칠돈이 없어서 돈액수를 써넣지 못한것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돈을 다 쓴 다음이 아니라 월급을 타기전에 써넣고 계산을 해본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것이다.

보매 데면데면하고 거칠은줄만 알았던 춘택이 이렇게 찬찬하고 사람의 가슴을 치는 정을 간직하고있다는 뜨거운 생각을 하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가슴벅차게 안겨오는 이 뜨거운 인정을 그대로 가슴속에 묻어두시며 고향의 어머니가 몹시 고생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고향어머니에게라고 쓴말에 돈을 적지 못하고 점만 적어놓았던 그 글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으시여 어머니에게 다달이 돈이나 좀 보내느냐고 춘택에게 물으시려다가 그만두시였다. 그 말씀을 입밖에 내기가 피로우셨던것이다.

이 하나의 작은 세부는 그 다심함이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고 사람에 대한 인정이 그리도 헤프신 정의인, 열의인으로서의 그이의 위인적풍모를 가슴뜨겁게 펼쳐보여준다.

그러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지리도 못사는 장두촌 차득만이네 세간살이형편을 돌아보시다가 밥바리뚜껑을 열어보시며 점심이라고 남겨두었을 두어순갈이나 되나마나한 밥을 보시며 코허리가 시큰해지시고 눈앞이 흐려지심을 어쩔수 없어하시는 그 생활에서도 절감할수 있다.

(인제 장정 두사람이 무엇을 먹고 그 큰 육신들을 지탱해낼것인가? 이 장정들의 싯골에서 어머니는 또 무엇을 얻어자시며 연명할것인가? 치마끈이 량식이라더니 치마끈을 죄어매며 살것인가.) 이런생각을 하시니 불현듯 무송 어머니 생각이 가슴을 찌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부엌에서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체취를 그대로 느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참으로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며 인민들을 친혈육으로 한품에 받아안으시는것이다.

그이의 이 한없는 인간의 세계는 어머님께 드린 효성넘치는 편지의 글줄마다에도 어려있으며 차광수에게 보낸 자전거에도 눈물겹게 어려있다.

소설에 그려지고있는 세부마다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인간의 이 세계는 또한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제3자의 시점속에 굴절됨으로써 더욱 뜻깊게 부각되고있다.

장두촌의 이름없는 작은 오두막, 그 뜨락에 명석을 펴놓고 깊은 밤 짙신을 삼고계시는 김성주동지, 부모없는 청숙이가 가없어서 그대로는 길림으로 가실수 없고 그 작은 손에 쥐여주실 한잎의 은전마저 남지 않았으니 짙신으로라도 아픈 마음을 달래보시려는 그이이시다.

신안툰에서 차광수가 되돌려보낸 자전거를 가지고 한달음에 달려온 김혁이 그이의 이 숭고한

영상을 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이께서 밤새 삼아 벽에 걸어놓으신 세켄레의 짙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찾아내고 맞이한 김성주인가!》고 부르짖던 차광수의 말이 이밤 이 오두막 앞에서 그리도 뚜렷이 리해되었고 서울로, 상해로, 동경으로 떠돌아다니며 만나보았던 갖가지 운동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김혁은 수수한 학생복을 입고 해진 운동화를 기워신으시며 언제나 인민대중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가시는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김성주동지를 두고 생각하였다. (김성주, 그에게 있어서 인민은 한낱 혁명의 동력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동력이기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성과 효성을 다하여 돌봐주고 품어주고 부축해주고 떠밀면서 의를 나눌 살붙이들이었고 목숨까지도 바쳐 지켜주어야 할 사랑하는 부모형제자매들이였다. 인민에 대한 애정은 김성주동지의 천품이다.) 위인에 대한 이러한 내심의 경탄은 그이의 품속에서 청년전위들로 자라난 차광수, 채경, 경주, 오순희 그리고 박두학이, 최기준이들은 물론 곡절많은 운명의 주인공인 권심과 애국적량심을 가진오랜 민족주의자 리갑무로인의 가슴에도 충만되었으며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생활적제기마다에서 활화산과도 같이 세차게 분출되였다.

눈앞의 현실로 된 죽음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옥중의 고조속에서 눈앞에 어려오는 김성주동지의 영상을 그러보며 결사의 각오를 그이께 맹세드리고 사무쳐오는 그리움으로 권심이 웨치는 심장의 독백은 참으로 눈물겹다.

《아, 조선아! 조선아! 너는 인제야 위대한 너의 아들을 낳았고나! 피바다를 헤치고 혁명의 태양이 솟았구나! 삼천리가 빛나게! 온 세계가 휘황하게!》

엄청난 현실에 감동된 리갑무로인은 퇴색하고 종이 쓸고 곰팡내나는 서고를 다시 꺼내여 피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장한장의 종이들을 다 뒤로 넘겨버리고 힘쫌는 붓끝으로 이렇게 새 장을 썼다.

장하다, 그 힘을 길러낸 조선의 아들이여! 이제 반만년 력사의 족백우에 새로운 서판이 뻗쳐왔다.

세상이 어지러우매 인결이 난다 하였거니와 우리 겨레는 이렇게 망국의 암흑속에서 민족재생의 태양을 맞이하였다. ...

소설의 갈피갈피들은 이 모든 주옥같은 세부들로 하여 뜻깊은 생활에 대한 진실한 화폭으로 되였다.

참으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그 제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곡절많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려명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영원히 아로새겨놓은 불멸의 화폭이다.

## 주체적인 혁명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겠다

우리 말에는 기쁨을 나타내는것도 느낌의 농도에 따라 《감격》, 《감동》, 《격동》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을 받아안은 나의 마음은 그 모든 낱말들을 모두 합친우에 《무한히》라는 부사를 덧붙여도 오히려 부족하듯만싶다.

실로 빛이 없는 생을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생을 생각할수 없고 공기없는 삶을 생각할수 없듯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없이 우리의 삶을 어찌 생각할수 있을것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는 우리가 안겨사는 바로 그 품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발전하여왔으며 그것 없이는 살수 없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를 그 어떤 사람이 불어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백절불굴의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 귀중한 재보는 우리의것이면서도 우리의것만 현시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사상리론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백과전서적인 대강으로되며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앞길을 휘황찬란하게 밝혀주는 고무적기치로 된

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이 나라의 아들로서,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의 품에서 자라난 문필전사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을 받아안은 나의 가슴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 한몫 바칠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집필중의 장편소설에서 바로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겠다.

당의 뜻을 받들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가는 길에서 삶의 보람도, 행복도 느끼는 인간, 기쁨 때도 수령님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수령님을 생각하는 충효를 겸비한 인간, 해놓은 일도 많지만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면글면하는 그런 주인공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좋은 길동무로 될것이다.

나는 그런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 현실속에서 나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창작적기량을 더욱 높여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적인 혁명문학의 대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겠다.

소설가 김형지

## 크나큰 민족적공지를 소설작품에 !

은 나라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소식에 접하여 한없는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 공화국공민으로서 작가로서의 나의 심장도 커다란 환희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에 더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기 위한 장엄한 행군길에 펼쳐나선 긍지높은 우리 인민의 행복상과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문학작품에 반영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시대적사명이다.

나는 지금 창작하고있는 광복거리건설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에서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잘 형상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정신적재보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겠다.

소설가 김삼복

## 걱정이 파도치는 들판에서

5월 24일!

나는 이날을 현실체험지인 옥도리에서 맞이하였다. 림기환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 농장원들과 함께 모뜨기를 한창 다그칠 때였다. 갑자기 포전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방송원의 격동적이고도 힘찬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는 24일 우리 당과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내가 뿔어오르는 걱정을 억제 못하며 만세의 환영을 울리자 옆에서 한 농장원은 모춤을 진 두손을 번쩍 쳐들고 평양하늘을 우리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를 높이 불렀다. 이어 넓은 벌여기저기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그함성은 푸른 하늘로 메아리되어 끝없이 울려갔다.

(아, 얼마나 벅찬 경사인가! …)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무한한 영광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셔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우리 인민은 장구한 혁명투쟁과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절히 체험하였다. 그이께서 오늘 또다시 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두터워지고 뜨거워지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이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의지이다.

감격과 흥분 속에서 모뜨기작업이 계속되는데 이번엔 확성기에서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고 계시었다.

확성기가 울려나오는 버드나무밑으로 어느새 술한 농장원들이 모여들었다. 관리위원장도, 농장원들도 탁아소보육원들도…

들을수록 연설은 나를 흥분시켰으며 긍지와 희망, 신심으로 가슴부풀게 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경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시정연설이 끝나자 나는 논둑길을 걸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 관리위원장이 내옆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원래 무뚝뚝한 성미인데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안고있을 때면 그의 입은 더더욱 무거워진다.

관리위원장이 저렇듯 신중해진것은 농촌일군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새롭게 자각한때문이라.

《관리위원장동무…》 하고 나는 말을 떼었다.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수령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니 우리 농장일군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관리위원장은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그리었다.

《작가동문 벌써 농장일군이 다 되였습니다.》

《예? …》

《작가동무의 모든 생각이 농촌과 농장일군들에게만 집중되어있으니까요.》 관리위원장은 즐겁게 웃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농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것인가 하고 생각던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곡수확고를 높이겠는가 하는것이겠지요?》

《웁습니다.》 관리위원장은 논두렁을 훌쩍 건너편 다음 말을 이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장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농사를 더욱 집약화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지요…》

그의 얼굴엔 확고한 결의와 신심이 넘쳐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쌓아 놓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래일의 옥도리를 보았다. 이런 옥도리들이 농촌마다에 있어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시위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밝고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 넘친 우리 농촌의 새 주인공들을 소설에 그리기 위해 나는 농촌으로, 농장원들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결심을 새롭게 다지었다.

소설가 김동렬

## 열정의 붓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제 9기 제 1 차회의에서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서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받아안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기본특징과 그우월성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주체의 혁명대강입니다.

저는 이 로작을 깊이 학습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위력과 불패의 원천에 대하여 더욱 깊이 명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그렇듯 자기의 우월

성을 발양하고있는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작가들의 영명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문이라는것을 심장깊이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의 품에 자란 작가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열정의 붓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위력과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시가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습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90년대 진군길에 힘있게 펼쳐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적극 고무하겠습니다.

시인 전병구

## 가사

## 상봉의 축배

안창만

몇해만이더냐 벗이여 우리의 이 상봉  
불타던 전선길이는 눈앞에 떠오르네  
마시자 우리의 상봉을 위해 추억을 위해  
피로써 지켜낸 어머니조국을 위해

포연탄우도 사선도 두려움 몰랐지  
어두운 밤 정찰길도 함께 가군하였지  
마시자 우리의 상봉을 위해 추억을 위해  
피로써 지켜낸 어머니조국을 위해

고향의 처녀 보내온 두터운 편지도  
우리는 허물없이 함께 보군하였지  
마시자 우리의 상봉을 위해 추억을 위해  
피로써 지켜낸 어머니조국을 위해

전승의 노래 부르며 헤어진 언덕에서  
우리의 인생은 멀리도 흘러왔네  
마시자 오늘도 식지 않은 심장을 위해  
그대도 이몸도 끝없이 젊기를 위해

## 《어머니에 대한 추억》

백은팔

얼마전에 나는 항일혁명투사 한분을 만난적이 있었다.

눈썹이 시꺼멓고 얼굴이 검실검실한 투사동지는 첫눈에 몹시 무뚝뚝하고 엄격해보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인정이 매우 깊고 다감한 성미와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아바이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나의 취재목적을 다 듣고난 그는 눈을 가느스름히 조프리며 천천히 말꼭지를 떼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한 말보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

## 1

현철은 틀림없이 그 시간에 잠을 잤다.

스경찰서 미결수감방안에서 스물네번째로 맞는 아침이었다.

그는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북부국경일대에 나와 파괴된 지하혁명조직을 복구하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놈들에게 체포되었었다.

혁명가의 굶핍없는 절개와 굴복하지 않는 완강한 의지력으로 원썬들의 무서운 고문과 악형을 곳곳이 이겨내고있는 현철은 오늘도 변함없는 자기의 일과를 되풀이하였다. 팔다리를 놀리며 간단히 체조를 하고난 그는 거울조각을 붙여놓은 바람벽을 마주하고 서서 살이 드문드문 부러져나간 얼레빗으로 밤새 형클어진 까만 머리카락을 스펙스적 빗어넘기였다. 얼굴의 4 분지 1 밖에 나타나지 않는 조꼬마한 거울썩박이건만 현철은 거울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한오리의 머리칼도 남기지 않고 반반히 빗질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과를 통하여 정신과 마음을 더욱더 억세게 다듬어나갔다.

머리를 다 빗고나서도 그는 물러나지 않고 구겨진 옷을 바로잡고 상처자리도 매만지며 오래도록 거울앞에 서있었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야릇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한 자기의 얼굴이 거울속에 환히 드러났던것이다.

꽃꽂하고 후리후리한 몸매, 어릿 어릿한 눈동자, 다만 수척해진 얼굴만이 어머니의 기억속에 남긴 아들의 옛모습을 덜해주었을뿐이다.

지난밤 현철은 뜻밖에도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익숙되었던 생활환경으로부터 다른 환경으로 옮겨질 때면 가장 그림고 정다운 사람을 그리보기마련이었다.

그는 어제저녁 간수로부터 일제법원의 지령에

따라 어디론가 이송될것이라는 전달을 받았었다.

현철은 사령부에서 임무를 받고 떠나기 전날밤에도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보았다.

읍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소원한 산기슭에 빈약한 농가 몇채가 점점이 들어앉아있었다.

동네가녁에 자그마한 새초집 한채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썩어문드러진 이영우에 가라지풀이 돌아나 선들바람에도 애처롭게 흔들거렸고 해빛이 내려쬐이는 무더위때면 굼벵이가 트랙에 툭툭 툭 떨어 지군하였다.

조금만 다쳐도 당장 주저앉고말 이 속마힐듯한 오막살이가 현철이 모자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암담한 세상의 어두운 생활속과도 같은 이 답답한 집안에서도 어머니 장씨는 아들에게 베풀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기울여주었다.

어머니는 힘에 부친 로동을 말없이 이겨내었고 슬프고 서러운 일이 있을 때도 아들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한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직 아들이

커가는 모습에서 어머니가 느낄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그때문에 무서운 생활고도 참고 견디어나가군하였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길을 떠나게 되는 오늘 현철은 어머니의 체소한 몸에서 너무도 많은것을 앗아만냈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줄수 있는 기쁨은 털끝만치도 주지 못하고 간다는 가슴아픈 쓰라림이 심장을 비틀어짜는것이였다.

현철은 유정한 고향동산의 너럭바위 틈바구니에서 샘솟아오르는 맑은 물을 떠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모습도 꿈속에서 그려보았다. 하얗게 회떡을 한 물동이 가녁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짚고 여윈 손가락으로 부지런히 씻어버리며 어머니는 동구질을 자박자박 걸어갔다. 그러면 잠자리를 잡느라 정신없이 돌아치던 현철이 얼른 달려가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웅이처럼 묻어가군하였다.

열한살되던 해 피 석섬에 팔려 민머느리로 왔다는 어머니는 현철이우로 낳은 세 남매를 모두 코레라병에 떼우고 유복자로 태어난 현철이만을 애오라지 기둥으로 믿고 살아왔다.

일본놈이 벌려놓은 동광개발에 끌려가 막로동을 하며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던 아버지는 파중한 로동부담과 영양실조로 자리에 누운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현철이가 열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의 청춘은 벌써 먼 과거로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현철은 곁에는 어머니의 영상만을 추억속에 간직하고있었다.

읍거리의 어느 한 국수집에 식모로 들어간 어머니는 세방하나를 얻어 누데기속에 어린 현철을 묻어놓고 나가서는 온종일 모밀가루를 붓다가 밤늦게야 돌아오곤하였다. 하루종일 젖 한모금 빨지 못하고 타드는 목을 눈물로 적시며 목이 쉬도록 울다못해 지쳐버린 현철은 그만 빠리처럼 몸을 까부리고 맥없이 잠들어버리곤하였다. 하지만 그는 용케도 죽지 않고 살아나 어머니라는 말을 배웠고 그늘진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나마 기쁨의 한때를 가져다주었다.

일나갔던 어머니가 날래 돌아오지 않으면 현철은 동구밖에 나가서서 무심중에 오돌오돌 떨며 《어머니 온다, 어머니 온다》하고 정신나간 아이처럼 줄곧 어머니만을 부르곤하였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얼음덩이처럼 차거운 아들을 부둥켜안고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들어가 아궁에 불을 지피고 뽕뽕 연뿜을 녹여주곤하였다.

힘겨운 고역에 시달리며 근근히 살아가던 어머니는 종래 부황병에 걸려 몸져 자리에 눕게 되자 철없는 현철은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때 현철의 나이는 열한살에 잡히었다. 그는 너무도 일찍 나무장사군이 되었다. 현철은 아직 여물지 못한 손등에 피멍이 지도록 부지런히 나무를 해들이었다. 그가 나무를 지고 읍거리에 나가 판돈으로 구해온 좁쌀은 모두 어머니의 병구완에 바치었다. 병석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지고 돌아오면 부뚜막에 죽그릇을 올려놓고 따끈하게 데워놓곤하였다. 그것은 현철이가 아침에 지게를 지고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대접한 죽그릇이었다. 현철은 그 죽그릇을 어머니앞에 도로 밀어놓고 술을 취여드리었다.

아들의 이러한 정성맞이였는지 어머니는 비칠 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나간 어머니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현철은 어머니를 찾아 국수집으로 갔다. 그는 허기진 몸으로 뜬김이 뽕얇게 서려오르는 정지간에서 힘겹게 망질을 하는 어머니의 가궁한 모습을 눈물속에 바라보았다. 동정과 런던의 감정이 아들의 작은 가슴에 불길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는 철문처럼 입을 꼭 다물고 슬그머니 어머니앞에 다가앉아 묵묵히 망돌을 돌리었다.

《왜 나왔나. 넌 이런데 다니면 못써.》

장씨는 모밀가루가 하얗게 붙은 여윈 손가락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아들을 측은하게 내려다보았다. 현철은 아무 대답도 하

지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일념만을 안고 우정 망손뿔을 틀어쥐고 온몸을 들썩거리며 쉿쉿 매돌만 돌리었다. 그러나 얼마를 못가서 현철의 손은 우에 가있고 어머니의 손은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눈치빠른 현철은 모르는체하고 고개를 푹 수그린채 망손뿔으로 손을 내리잡곤하였다. 하지만 모자의 사랑은 언제나 아래로만 쏠리기마련이었다. 말없고 조용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의 손등을 따뜻이 감싸칠 때마다 현철은 다함없는 어머니의 속깊은 마음을 뜨겁게 느끼곤하였다. 어머니의 가슴속에 충충고여 넘쳐흐르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웅숭깊은것이어서 현철은 그 넓이와 깊이를 도저히 다 썰수가 없었다. 하여 어머니라는 이 정다운 이름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수 없는 그렇듯 귀중한 이름이었었고 고귀한 사랑의 상징으로 수놓아진 하나의 결정체와도 같은것이라는 것을 현철은 점차 깨닫기 시작하였다.

세월은 흘러 현철의 나이 어느덧 열여덟에 잡히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어찌하여 그 간사한 국수집주인한테 온갖 구박과 수모를 다 받으며 마소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숙명처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었으며 글도 배우기 시작하였다.

현철이가 어떤 비밀조직에 망라되어 나다니게 되자 어머니는 혼자 화전을 일쿠고 감자를 심고 김을 매면서도 아들이 나돌아다니다고 탓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몰래 뒤시중을 해주었다.

아들이 밤늦어 집에 돌아오면 자는척하고 누워있던 어머니는 슬그머니 일어나 아래목에 덮어놓았던 호박죽사발을 당겨놓으며 식기전에 어서 먹으라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면 현철은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눈길에서 연약한 녀인이 아니라 강직한 어머니를 보았다.

아들의 체격이 림름하게 성장하고 그렇듯 뜻있는 일을 하다가 남들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날것 같은 생각이 든 어머니는 어느날 집안에 한사람이 더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실토하였다. 그리하여 현철은 스무살에 잡히면서 장가를 들었고 이듬해 봄엔 드디어 고향을 떠났다.

지금도 동구밖을 나서던 그날이 어제일처럼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때 순박한 안해는 웃고 림을 들고 돌아서있었고 어머니는 눈꽃이 필 필 날리는 산등성이까지 따라나와 손을 흔들어주었다.

《현철아, 어디에 가든 이 에미를 잊지 말거라.》

이것이 기억없는 먼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해준 어머니의 첫 부탁이었다.

현철은 그때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 땐 고향

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정신적 의지가 되었으며 그래서 현철은 늘 마음속에 어머니를 간직하고 싸웠다.

어머니품을 떠난지 벌써 5 년세월이 올랐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정답고 친근한 모습은 동지들의 사람밖에 있는것은 아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소중한것으로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고있으면서 따뜻한 온기와 다정한 목소리로 늘 언문을 녹여주고 약해지려는 마음을 부추겨주고 고무해주곤하였다.

## 2

정오가 좀 지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간이였다.

《짜르릉!》

철문 열리는 소리, 그다음엔 권태가 느껴지는 간수의 거친 목소리.

《1132 번 면회》

현철은 가슴이 후두둑거렸다.

(면회라니?)

분명 간수는 1232 번이나 1142 번을 잘못 부른 것이라고 현철은 생각하였다.

친척이라고는 초산군 구평에 사는 5 촌숙부밖에 없는 현철이었다. 태출물은 그날부터 칠십고령이 될 때까지 풀대처럼 한곳에 정착해서 살아오는 몽매한 그 촌놈은이가 기차도 없는 먼길을 걸어 조카를 찾아 면회같은것을 올리는 만무하였다. 더구나 마음어진 어머니나 순박한 안해는 자기의 행처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설사 안다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감방같은데로 백번 죽었다 살아난대도 울수가 없는것이다. 하다면 면회라는 이 귀설은 말은 나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회롱이란말인가? 아니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라도 한것인가?

착잡한 생각의 갈피를 번지며 무겁게 허리를 편 현철은 간수가 열어제친 철문을 지나 긴 복도에 나섰다. 그는 고개를 버쩍 들고 앞만 주시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그가 자국을 옮길 때마다 발목에 감긴 쇠사슬이 싸늘한 세멘바닥을 쓸며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광명의 역광이 실오리처럼 비쳐드는 출입문이 가까와질수록 현철의 심장은 더욱더 폭넓게 고동쳤다. 갑자기 현훈증이 일어나면서 눈앞이 뿌얘졌다. 그것은 육체적지탱점을 잃은 불균형때문이 아니라 암흑속에서 너무도 열렬히 빛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탓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각에서 오는 변화였다. 사실 그랬다. 식을줄 모르는 빛의 영원한 온기는 어렸을 때 꿈을 꾸며 그해보던 봄날의 아지랑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현철의 온몸을 어루만져주었다.

출입문제단앞에 나선 현철은 해빛을 받아 시그러워지는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넓은 공간에서

방황하다가 점차 가까이로 시선을 당겨왔다.

이끼오른 벽돌담장을 더듬으며 서서히 움직이면 그의 눈은 한곳에서 딱 멎어버리고말았다.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한 그의 시야속에 자그마한 녀인의 모습이 점으로 나타났던것이다. 현철은 눈을 더 크게 뜨고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뿔프옆에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흰옷입은 녀인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는 심장이 순간에 멎어버리는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하고 우연한 일치도 있는가?!)

간밤에 꿈속에서 보았고 오늘 내내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가 지금 이 무시무시한 감옥올타리안에 들어와 뼈젓이 서있는 것이 아닌가? 현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려는 걱정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5 년만에 다시 본 어머니의 모습을 심장파 눈길로만 더듬어 살피였다. 자애에 넘친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길이 사랑의 열망으로 불타는 아들의 눈과 조용히 교차되였다.

이윽하여 어머니는 변하지 않은 그 특징적인 잦은 걸음으로 아들앞으로 다가왔다.

《애야!》

어머니는 어릴적에 부르던 그때처럼 아들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며 넓은 어깨를 덥석 그러안았다. 현철이 역시 높뛰는 심장과 견잡을수 없이 설레이는 가슴을 말없이 달래며 멍들고 피터진 자기의 얼굴과 목을 정신없이 쓰다듬는 어머니의 작은 손을 꼭 감싸쥐였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장은 기쁨으로 고동치고 감격의 눈물은 동공을 적시였전만 현철은 태연한 자세로 어머니를 맞이하였다.

《그렇게 됐다. 동네사람들이 네가 여기에 와있을거라구 알려주더구나.》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준 그 동네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찌하여 어머니는 철창속에 갇혀있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이 그처럼 혼연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는것인가. 자기와 떨어져있는 기간 감정과 인정이 고갈된 그런 메마른 어머니로 변해버렸단말인가? 그렇다면 현철은 정말 서글프기 그지없었다. 자식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던 그리고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모든것을 체념해버렸다고 해도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앞에서 어머니로 남아있어야 하기때문이다.

현철은 기쁘기 그지없으면서도 복잡한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래요?》

《돌집 태상이가 품팔이하러 떠돌아다니다가 네 소식을 귀동냥한 모양이더라.》



순간 현철은 흠칫 놀랐다. 태삼이란 자기와 같이 적위대에서 싸우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한고향 친구였다. 그런데 그 태삼이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기의 행방을 알려주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현철은 총대를 세워주고 옆에 앉아있는 간수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물었다.

《지금도 고향의 샘물은 계속 솟구쳐오르겠지요?》

그들은 지하투쟁을 할 때 늘 이런 암호를 쓰곤 하였다. 그것은 비밀조직이 계속 움직이고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솟구치다뿐이겠니. 네가 있을 때보다 물량이 더 많아지구 세차겠다.》

조직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대오가 훨씬 늘어났다는 대답이었다.

《나도 이따금씩 그 샘물을 떠이고 품팔이군들을 찾아다니군한다.》

(그러니 어머니도 투쟁의 길에 나서시었구나!)

현철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렇게도 마음어지고 고역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항변 한마디 못하던 체소한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위험천만한 길에 발을 들여놓다니...? 아니 조직이 그를 키워주었을 것이며 또 어머니 자신이 택한 길이기도 할것이다. 하여 현철은 방금전에 품었던 어머니에 대한 경계와 의문의 감정을 일시에 씻어버리고 순간이나마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을 모질게 질책했다.

그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눈길을 다시금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역시 어머니의 눈빛속엔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는 자식에 대한 애무와 끝없는 사랑이 충충 고여 넘쳐흐르고있었다. 사실 어머니의 그 가식없는 눈길속에 깃들어있는 다감하고 사심없는 마음은 현철이에게 깨끗한 양심과 청렴을 키워주었고 말없는 구중과 사랑으로 복잡다단한 인생의 타류속에서 타협을 모르는 정의감과 애국의 념을 지닌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중의 유산이며 그것은 오늘날이 아니라 래일에도 변함이 없을것이라는것을 현철은 확신하고싶었다.

《고향의 샘물이 그림습니다.》

《그렇줄 알았다. 그래서 힘이 좀 들지만 이렇게 한단지 떠이고 왔다.》

어머니는 보자기를 풀어 헤치고 쪽바가지가 넘쳐나도록 떠서 아들앞에 내밀었다. 현철은 쇠고랑찬 두손으로 바가지를 받쳐들고 꿀꺽꿀꺽 마시었다.

《고향의 물맛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요.》

《물맛뿐이겠니.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전보다 더 극성스러워졌다.》

현철은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미소어린 모습

에서 혁명의 필승과 광복의 그날을 믿는 떳떳한 신념을 읽었고 굴하지 않는 조선녀성의 강직한 마음을 보았다.

《참 샘물얘기만 하다보니 잊었됐구나. 네가 떠난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이젠 만 네살에 잡혔다.》

《그래요?》

현철은 애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며 누구를 닮았느냐고 두서없이 물었다.

《이름은 그저 부르기 쉽게 현승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아이는 에미보다 널 더 닮았더구나.》

《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현철의 얼굴에 행복의 물결이 가득차홀렸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조직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던 숨막힌 감정과는 전혀 다른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가 맨발로 먼지이는 길바닥을 타박타박 걸어서 가라지풀이 돌아난 초가집 사립문안으로 들어서던 어릴적의 자기와 아들의 모습을 상상속에 그려보며 부성애라는 새로운 감정에 잠겨 락엽이 흩날리는 먼 산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애어미도 지금 철새없이 샘물을 퍼나르고있으며 때론 멀리 샳빨래도 갔다온다고 했다. 그러니 어머니는 자식만이 아니라 머느리까지 투쟁의 길에 들여세우고 말없이 이끌어주고있는 것이다.

끝없는 생각에 묻혀 그런듯이 서있는 아들의 손에서 바가지를 슬그머니 뽑아내어 단지우에 올려놓은 어머니는 허리에 띠고온 엷은 보자기를 풀고 무명바지저고리와 밤색 조끼를 꺼내놓았다.

현철은 어머니의 섬세한 손길이 습배인 그 무명옷을 정겹게 더듬으며 《어머니두 참 뭘 이런걸 다 가져왔어요.》 하고 다정히 속삭이었다.

《네가 장가들 때도 이런 옷을 입었고 집을 떠날때도 그 단벌옷을 입고 가지 않았니. 그런 옷을 다시 입히고싶은 이 에미의 마음으로 지은것이니 어서 받아라.》

어머니는 간수에게 새옷을 갈아입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안된다.》

간수는 무뚝뚝하게 잘라버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썼으며 종내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데 성공하였다. 머리를 기웃거리던 간수는 칼을 절걱거리며 복도안으로 달려들어갔다가 인차 되돌아나왔다.

《갈아입혀.》

상급에 문의하여 허락받은 모양이었다.

모자의 마지막 리별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려는 놈들의 음흉하고 간교한 계교가 그 《선심》속에 숨어있다는것을 어머니는 인차 알아차렸다. 하

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태연한 동작으로 피에 얼룩지고 갈가리 찢긴 낡은 양복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었다. 간수가 현철의 팔목에 채운 쇠고랑을 풀어준 시간은 단 몇분밖에 되지 않았다.

옷을 다 갈아입은 현철은 어머니의 깨끗한 손을 어루만지며 오늘 자기는 어디론가 멀리 떠날 것 같다고 간수 몰래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그저 머리만 끄덕일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런것은 이미 다 알고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너무 억이 막혀 미처 할말을 고르지 못하고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현철은 자기의 실언을 후회하며 어머니의 훌쩍해진 볼과 입귀에 건너간 잔주름 그리고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을 불안한 마음으로 더듬어살피었다. 험한 길을 헤치고 불원천리 찾아온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하지 말아야 했을 가장 아픈 말을 했다는 죄의식이 가슴을 허비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표정과 눈빛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줄 알았다.》

놈들이야 무슨 만용을 못부리겠는가. 하기에 지금 어머니는 아들앞에서 흐린 그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아들답게 꾀꾀이 싸우다 쓰러진다 해도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녀원하는것이 없는것 같았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깃든 이 모든 감정과 소원은 그 특징적인 작은 눈과 둥글납작한 전체 모습에서 진하게 풍기고있음을 현철은 룩감으로 느끼었다.

《면회 그만.》

허세와 거만을 뽐내는 간수의 건방진 목소리가 울리자 힘있게 그러잡았던 모자의 두손은 서서히 풀리고 뜨거운 눈길만이 서로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끝없이 오고갔다.

석양무렵, 녀들은 예정대로 현철을 비롯한 다른 세사람의 미결수들을 마당으로 끌고나갔다. 그런데 이미 떠났으리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담장밖에 그냥 서있는것이였다.

현철은 호송차 있는데로 뚜적뚜적 걸어가면서 눈과 얼굴표정으로, 그다음엔 수갑채운 두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춤거리거나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아들앞에 다가섰다. 호송원들도 어머니의 도고한 행동앞에 주눅이 들었는지 감히 막아나서지 못하였다.

아들과 마주선 어머니는 현철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올려놓고 아까 다하지 못한 말을 고르며 나직이 속삭이였다.

《너와 떨어진다고 슬퍼할 이 에미가 아니다. 내 걱정은 아예 하지 말고 마음놓고 떠나거라. 어디에 가든 네 가슴속에 장군님만을 모시고 쫓

곳이 싸우거라.》

다시 살아돌아와 품에 안길지 알수도 없는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한 어머니의 두번째이자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밖에 어머니가 바란것이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것을 현철은 퍼그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야 알수 있었다.

《명심하겠어요. 어머니!》

《아마 너를 실은 차가 영산국수당고개를 넘을 게다. 그때 앞뒤를 잘 살피라. 거기에 호랑이들이 많다더라.》

어머니의 이 부탁이 탈주를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과 갈아입힌 무명바지저고리와 밤색 조끼 역시 현철을 인차 눈에 띄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것도 썩 후에야 동지들로부터 들을수 있었다.

미결수들을 태운 풍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땀땀하게 누운 고개마루까지 쫓아올라가 자동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유격대로 떠나던 바로 그날의 그 모습처럼 자그마하고 체소한 흰옷입은 어머니 그러나 현철은 본래의 그 연약하고 마음어진 어머니가 아니라 힘이 세지고 성스러운 사명을 자각한 거인의 모습으로 부각된 새로운 어머니를 보며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한껏 느끼었다.

조가울바람이 어머니의 하얀 치마폭을 흔날렸다. 노을빛을 안고 펄럭이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은 붉은 기발처럼 펄펄 휘날리였다. 이것이 현철이 바라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그후 어머니는 지하조직의 핵심성원으로 투쟁을 계속하다가 일제 《토벌대》에 체포되어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현철은 어머니가 귀땀해준 바로 그 국수당고개에서 동지들에 의하여 구원되어 다시 대오에 돌아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으로 활약하였다.

현철은 신경찰서에 찾아왔던 어머니가 구출대책을 토의하는 동지들앞에 나타나 아들을 만나는 데 어머니이상 자연스러운게 없으면서 서슴지 않고 그 위험한 길을 떠났었다는것도 이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승냥이 무리속에 제 새끼를 내맡길 에미가 어디있겠나. 오래 의논할것 없이 날 보내주게.》

어머니의 꺾을수 없는 강경한 태도에는 자식이 귀한데도 있었지만 그가 혁명과 조직 앞에 지니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현철은 해방후 오늘까지 인민군대의 중요한 직책에서 칠순이 넘도록 사업하고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도 인생의 고달픈 막바지를 걸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아들을 키워 나라찾는 성스러운 위업에 땀땀이 세워주고 김일성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드놀지 않는 억센

초석이 되라고 잔등을 떠밀어준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지워본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감사를 드렸다. ...

《그러나 나는 재일수 없이 깊고깊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비 못한채 떠내보냈소. 내가 처음 싸움의 길로 떠날 땐 낫놓고 기속자도 모르던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속에 어머니를 안고가라고 그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할수 있었으며 경찰서에 찾아오면서도 새 무명옷과 고향의 썸물을 떠이고 올 생각을 하였는지, 어떻게 되어 마지막 리별의 그 순간에도 눈물대신 어디에 가든 가슴속에 장군님만을 모시고 싸우라는 귀중한 말을 할수 있었는지 다 알수 없소. 하기에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라는 그 친근하고 고귀한 이름은 단순히 모성애라는 인정적인 감정에서만 물리는것이 아니라 나의 앞길을 비쳐준 별빛이며 사랑의 가장 높은 절정에서 나를 손잡아 이끌어준 삶의 영원한 스승의 이름으로 빛나는것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무때나 스스럼없이 찾고부르는 어머니라는 그 교상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써왔

으며 어머니가 남긴 부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군하오.

그러니 기자동무, 진짜 글을 쓰려거든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 대하여 먼저 쓰시오.

그리고 동무 역시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아니 나라를 사랑하고 자식을 아낄줄 아는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을 알기 위해 애쓰시오. 그러면 아마 인생을 더 잘 알게 되고 삶의 진가를 터득하게 되며 부드러운 리성과 따뜻한 감정을 지닌 그런 인간의 높이에 도달할것이요.》

나는 투사동지의 그 교훈적인 권고를 들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때때로 관심박에 두군하던, 자식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남모르는 수고와 시중의 값을 알려고 무진 애를 썼으며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에 대하여 아는껏 써놓는것을 일과처럼 해오고있다.

그러나 어머니를 다 안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체험과정인가를 나는 늘 절감하며 살고있다.

## 너는 20 대

### 전찬기

준엄하던 전화의 그날  
결전의 전호가에 내 쓰러졌을 때  
내 몸에 흘러든 전우들의 붉은피  
아직도 심장에 끓고있어

전우를 위해 적탄을 막은 전사  
내 무릎에서 조용히 눈감을 때  
그 입가에 피던 웃음 잊을수 없어  
아름다운 그 삶을 노래하고저

오늘토록... 일만줄의 시행에  
천만단어 고르고 다듬어  
동지를 사랑하는 노래  
온밤을 밝혀가며 내 지은적도 많건만

영웅 김광철!  
보통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던  
내 심장의 그 뜨거운 맥박이  
아, 이 가슴에 격동을 일으키는구나  
마치도 그날의 영웅전사들중 하나인듯...

귀밑머리 희여가는  
나는 50대

펄펄 뛰던 청춘을 동지애에 바친 영웅  
너는 20대

사랑할줄 알았기에  
동지들 위해 심장을 바칠줄 알았고  
바친 그 심장 금별과 함께 빛나며  
고향 어머니에게 왔나니

이보다 절절한 사랑의 말, 사랑의 노래가  
세상 어디에 있으랴 .  
네 심장의 그 뜨거운 맥박은  
온 조국땅에 높이높이 메아리친다

자랑스러워라 김광철청년영웅  
돌격의 길에 동지들을 겨누 화점을 막아  
한몸 선들 내대던 우리 젊은날의 녀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에 높뛰고있구나

동지의 사랑으로 불언덕도 시련도 헤쳐넘는  
우리 인민의 심장에 뜨거운 맥박이 뛴다  
그날의 20대  
오늘의 20대  
먼 래일의 20대에도

## 소 원

김대성

아마 자식들을 키워 조국보위초소으로 내보내는 부모들치고도 영예군인들처럼 긍지높은 마음으로 가슴 설레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남혜는 그리도 바라마지 않던 그 소원이 정작 이루어지게 되자 그것이 꿈만 같아서 선뜻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 녀자는 전쟁시기 간호원으로서 인천방어전투에 참가했었다. 부상병들을 후송하던중 폭격에 입은 하반신중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아난것이 기적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처녀를 두고 사람들은 구만리같은 그의 앞날을 우려했다. 이런 처녀가 시집을 갈줄은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다. 본인역시 이뤄질수 없는 희망으로 헛되이 가슴을 태우지 않았으며 일생을 혼자서 살아가리라 결심했었다.

하지만 그 녀자는 그런 몸으로도 해병출신의 한 영예군인총각과 가정을 이루었으며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비록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낳았고 오늘은 이처럼 툼툼하게 키워낸 자식을 뿔뿔이 초소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다.

남혜는 지금껏 오로지 오늘만을 바라고 살아온 듯싶었다. 그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없었던들 그 녀자는 삶의 의욕을 이미 잃었을것이었다.

남편역시 그러했다. 이 영예군인부부의 공통된 소원은 가정의 기초로 되어 화목한 웃음꽃을 피웠다. 마을사람들은 랑만과 희열에 넘치는 그들의 생활을 두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으며 한편 이상스레 여겼다. 몸이 성성한 부부사이에도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말썽이 이따금 없지 않아 생기는 법이다. 현대 남혜네는 몸이 불편한 영예군인들끼리 살림을 하면서도 여태 말다툼 한번 없으니 과연 놀랄만 했다.

오늘아침 아들은 군대에 나가게 됐다면서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날뛰는 제포래들과 함께 읍으로 나갔다.

아들을 막상 떠나보내자니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다 자란 자식들도 철부지로만 보이는것이다. 저 애가 인민군대감이 될수있겠는지 은근히 가슴을 조이게 되는것이였다. 그래서 신체검사결과를 제격 전화로 알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는 점심때도 잊고서 지금껏 전화기옆에 붙어 있었다.

오후 세시경에 전화가 왔다.

아들은 어찌두 흥분했던지 평소에 참하던 그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어머니! 합격됐어요! 합격!》

《그게 정말이나? 응?》

《그럼요. 체격이 좋아서 비행사감이라나요. 난 해군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어요. 꼭 어뢰정을 타야 하겠다구요.》

남혜는 가슴이 후련해졌다.

《그래 인젠 어떻게 한다드냐?》

《이제 최종담화를 하고 래일 아침차로 도에 올라간대요. 군복을 거기서 입는다나봐요.》

남혜는 아들이 집에도 들리지 않고 그대로 훌쩍떠나갈것만 같아서 조바심을 쳤다.

《그러니 오늘저녁엔 집에 들릴수 있겠지? 꼭 와야 한다. 응 그래, 기다리겠다. 참 해군에 나가는데 틀림없을테지?》

《어머니두 참 자꾸 캐묻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아들의 일거일동이 군사비밀에 속하거든요.》

《원 녀석두...》

남혜의 얼굴엔 기쁨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이 경사를 축하하여 한상 푸짐히 차리자. 어제 날 전우들과 철이네 학교 선생님들이랑 초대하고 또 그 애의 학급동무들도 다 청하도록 하자.

남혜는 여느때없이 기운이 솟구쳐 성성한 사람들 못지 않게 부엌안을 분주히 돌아치기 시작했다. 남편도 몹시 흥분한 기색이였다. 그는 안해의 특식준비를 가능한것 도와주고싶었던지 뒤따라 부엌에 내려왔다.

《아이참, 당신은 구경이나 하세요.》

《히, 그래도 물고기요리같은거야 내가 더 잘 할텐데. 어제날 배군이니까.》

남혜는 곱게 눈을 흘겼다.

《큰소린... 어서 방에 올라가 철이에게 기념으로 줄만한걸 준비하세요. 만년필이라든가 수첩이라든가 하여튼 의의있는걸말예요.》

그제서야 남편은 부엌에서 물러났다.

신바람이 나서 떡쌀을 일던 남혜는 다정한 어조로 남편을 불렀다.

《철이 아버지!》

《왜 그러오?》

《그게 사실이겠지요?》

《뭇말이요?》

《철이가 군대에 나간다는것 말예요.》

남편은 어이없었던지 허 웃어버렸다.

《그렇게두 믿어지지 않소?》

남혜는 취중인듯 두눈을 멍하니 뜬채 입속말로 속삭이였다.

《난 꼭 꿈을 꾸는것만 같어요.》

진정 꿈이었다. 아니 꿈보다 더한 것이었다.  
침상에 누워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던 처녀, 그  
런 몸으로 그때 감히 오늘을 그려볼 수 있었던 말  
인가, 가정을 아릴 안해가 된 자신을, 아기를  
낳아 어머니로 불리우는 자신을, 그 아들을 키워  
초소로 내보내는 오늘을... 아, 그것은 꿈에서  
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성은 멎었다.

전승의 소식은 그대로 생명수였던가. 떠나온  
격전의 싸움터를 두고 영예군인보양소의 침상  
에서 안타까이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  
리를 차고 일어났다. 채더미를 헤치고 일떠설 조  
국을 위해 그들은 적은 땀이라도 바치고 싶었다.  
남들처럼 폭탄구멍이를 메우고 터전을 닦진 못해  
도 그네들의 귀여운 아들딸들에게 보내줄 학습장  
이라도 만들어 보자.

보양소의 분위기는 돌변했다.

《또잇— 또도잇, 또잇!—》

아직도 해군사프를 입고다니는 유쾌한 청년의  
함선호각소리에 맞추어 그들은 기상했고 아침식  
사를 하고는 한자리에 모여앉아 학습장을 땀으며  
오락회로 저녁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잠자리에  
들곤 했었다.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았다는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며 락천적으로 전투적으로 생활을 개  
척해나가는 영예군인들속에서 남해는 유일무이한  
처녀였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 전우들의  
전투적인 일파에 참가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남해는 더없이 피로움을 느꼈다. 그는 밀려드는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려고 추억의 노래를 부르곤  
했다.

캄캄한 어둠 짓궂고  
사나운 파도 가르며  
천둥소리 높이  
어뢰정대 나간다

전마선에 기뢰를 싣고 적함을 맞받아나가는 기  
뢰부설조원들을 손저어 바래주며 마음속으로 부  
르던 노래나. 노래에서처럼 그들이 어뢰정을 몰  
아나갔더라면 바래주는 마음이 그다지도 비장해  
지지는 않았으리라.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떠나간  
그들속에는 수평선을 통채로 뒤쫓는 폭음을 승  
리의 보고로 높이 울리고 돌아오지 못한 해병들  
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전승의 기쁨이 이다지도 가슴 뜨  
거운 것이 아닌가...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해군사프차 들어섰다.

《아니, 남해동무도 해병출신이요?》

《예.》

해군사프는 반가움에 두눈을 번쩍이며 다가섰  
다.

《어느 기지에서 복무했소?》

《해군사령부 수로국 군의소예요.》

해군사프는 탄성을 올렸다.

《아! 그럼 인천방어전투에 참가했겠구만. 거기  
서 부상을 입었다고? 가만, 날 모르겠소? 그렇게  
도 날 못알아보겠소?》

남해는 침대곁에 바싹 다가와 고개를 수그린  
해군사프의 얼굴을 빠금히 올려다보았다.

성게가시모양으로 뿔뿔이 일어선 총이 센 머리  
칼, 늘쌍 동무들을 기쁘게 해줄 뭔가 기발하고  
재미나는 것을 궁리하고 있는 듯싶은 능청스런 눈동  
자, 호인다운 주먹코, 언제와도 병글거리는 두  
툼한 입술, 그 입에 함선호각을 물면 피꼴새소리  
도 곧잘내는 재치있는 연주가, 그는 기뢰부설전  
투에선 한쪽팔을 잃었지만 비관이란 모르는 패남  
아였다.

해병들이란 대체로 이런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  
들이다. 그래서인지 무척 낮이 익은 듯싶었으나  
언제 어디서 만났던지 딱히는 생각나지 않았다.

남해는 미안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인천방어전투때 몇 살이었소?》

《열여덟 살.》

《음, 그랬됐군, 난 동무를 잘 아오.》

《어떻게요? 전 생각이 안나는데요.》

《글쎄 잘 안다니까. 그쯤 알아두오.》

롱담인듯 해군사프는 싱글벙글 웃어보였다.

그후 그들사이에는 류달리 가까워졌다. 못새들  
속에 섞인 두마리의 갈매기들처럼...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반복될 줄 알았던 보양소  
생활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느 꽃피는 봄날, 봄아씨처럼 보양소  
를 찾아온 아릿다운 강계처녀가 1211 고지전투참  
가자인 앞모 보는 영예군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운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알고본즉  
그들은 재진격을 앞둔 그해 늦은 가을 장자강반  
에서 서로 사랑을 약속한 사이였다. 총각은 부상  
을 입은 후 처녀를 피했는데 처녀는 기어코 찾아  
온 것이었다.

전우들은 강계처녀의 마음을 귀중히 여겨 그  
에게 영예군인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결함을 축복해주었다.

이것이 서두로 되어 결혼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마치 영예군인보양소는 전문결혼식장이  
라도 된 듯싶었다.

이처럼 아무리 불구가 심한 총각이라도 마다하  
지 않고 의례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꽃같은 처녀  
들이 찾아드는데 같은 처지에 놓인 영예군인 처녀  
에게 찾아오는 총각은 없었다.

바랄 수 없는 그것을 가슴조이며 은근히 바라고  
있는 자신을 뒤늦게야 발견하게 된 남해는 서글  
픈 미소를 지었다.

결국 미국놈들의 폭탄은 처녀의 몸에 중상만을

입힌것이 아니었다. 처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질수있는 래일에 대한 애긔한 희망까지도 앓아간 것이었다.

갓 결혼식을 한 영예군인들은 차례로 보양소 주변에 새로 지은 문화주택으로 보급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보양각은 줄지에 텅빈 새둥지처럼 허전해졌다.

바로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해군샤쓰가 남해에게 불같은 사랑을 고백했다.

이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남해는 자기를 각별히 보살피주는 해군샤쓰의 동정어린 눈길이 그대로 사랑인줄은 생각할 엄두도 못낸 것이었다. 정작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보니 자기역시 벌써부터 상대방을 열렬히 사랑하고있었음을 남해는 기쁜 마음으로 절감했다.

하지만 남해는 그 사랑을 줄수도 받을수도 없는 처지였다. 저이기도 성한 몸이 아니다. 과연 우리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해나갈수 있을가?

그것은 상상해보기조차 겁나는 일이었다.

《전 동무에게 안해구실을 제대로 해드릴수 없는 몸이에요. 동무는 그 한쪽팔을 대신해줄수 있는 그런 녀성과 함께 살아야 해요. 전 동무를 고생시킬수 없어요.》

남해는 자기의 마음에 거역하여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다. 그러나 해군샤쓰는 한결 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역시 남을 고생시키고싶지 않소. 가능한것 안해에게 보탬을 주고 방조를 주는 사람이 되고싶소. 그러니 남의 고생을 전제로 살아갈것 없이 우리 서로 의지합시다. 동무는 내 한쪽팔을 대신해주고 나는 동무의 다리를 대신해주면 되지. 그러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소.》

《아, 제발 부탁이에요. 절 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전 이미 혼자 살기로...》

해군샤쓰는 남해의 말허리를 분질렀다.

《그런 말 마오. 난 동무가 그런 모진 마음을 먹기 썩 오래전부터 동무와 일생을 같이하기로 맹세한 몸이에요.》

해군샤쓰는 품속에서 종이쪽지를 꺼내여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남해의 손에 쥐여주었다.

남해는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무엇때문에 이 사람은 썩 오래전부터 그런 맹세를 했던말인가? 그리고 이 쪽지는 대관절 무엇인가? 그 무슨 말 못할 사연이기에 마주서서 이런 글쪽지를 넘겨 준단말인가?

손바닥보다 더 자그마한 종이쪽지에는 천만뜻밖에도 녀성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명희, 순애, 옥순이... 어쩐지 모두 귀에 익은 이름들이다. 그가운데는 남해의 이름도 있었다.

아니 이진 군의소 외과과장의 필적이 아닌가!

야전군의소천막이 눈앞에 얼른거린다. 명희,

순애, 옥순이... 모두들 남해나이또래의 단발머리 처녀들이었다. 그들은 담가를 들고 포연속을 뿜고 불새처럼 전투장과 군의소를 나들었다. 땀으로 흠뻑 미역을 감고서도 부상병들의 소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를 바쳤다. 메스처럼 뱅철한 외과과장도 단발머리간호원들의 바닥없는 헌신성에 눈굽을 적시군했다. 하기에 그는 수술을 끝낸 다음이면 부상병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기에 앞서 간호원들의 이름을 약종이에 적어서 부상병의 군복주머니에 넣어주며 당부하곤했었다.

《자, 이 약종이에 동무가 잊지 말아야 할 은인들의 이름이 적혀있소. 승리의 날엔 꼭 만나서 인사를 하라구.》

남해는 자기가 불속에서 업어내오고 자기의 붉은 피로 소생시켜준 그 수많은 부상병들을 다 기억할수 없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고마운 사람을 심장속에 깊이 새겨두었다가 이처럼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것이 연분인가?

그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보면 전쟁에서 처녀는 무엇인가 잃기만 한것이 아니었다. 잃은것보다 더 크고 귀중한것-참다운 사랑을 얻은 것이었다.

소중한 그 글쪽지를 봉긋이 부픈 가슴에 대니 심장은 일찌기 느껴본적이 없는 환희와 무한한 행복감으로 튀어나올듯 뿔뿔이 시작했다. 숨조차 격막히는것 같았다. 심장으로부터 샘처럼 솟구친 뜨거운것이 눈굽을 지쳤다. 창문으로 일시에 쏟아드는 햇빛은 구슬같이 맺힌 그 눈물에 얼비치여 칠색무지개빛으로 황홀히 빛났다.

그 후광속에서 성훈의 모습은 녹아버리듯 사라지고 물날은 해군샤쓰가 아니라 다림발이 곱게 선 새 세라복을 단정히 입고 함선호각을 목에 건 젊은 해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누굴가? 그 해병은 성훈을 닮은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남해 제 모습과도 신통히도 비슷했다.

그러니 아들이란 말인가?

그래. 아들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니 꼭 태어나지 않으면 안될 미래의 해병이다.

이처럼 30년전 못잊을 그날에 벌써 남해는 오늘을 그려본 것이었다.

밤은 깊었으나 웬일인지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애들은 다 집으로 돌아왔다던데 이야는 어딜 갔을가?

음식상을 차릴 준비를 갖추고 부엌에 오도카니 서있던 남해는 그제서야 도중식사생각이 났다.

아들이 것처럼 좋아하는 송편을 해주려고 당콩을 가마에 안치고난 그는 방으로 올라왔다.

남해는 옷장을 열었다.

군대란 입대한 첫날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혀주고 규정량의 식사를 공급하니만치 아들에게

구래여 집을 꾸려줄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인가 한배낭 지워보내고싶어서 이것저것 주물러보게 되는것이였다.

한 인간의 성장의 력사가 바로 그 옷장안에 차곡차곡 포개여 저있었다.

철이를 갖 낳았을 때 입혔던 손수건보다 작은 런닝그썸바지들로부터 시작하여 첫돌을 맞으며 남편의 화약내 습배인 해군복상의를 뜯어서 만들어 입힌 썰라복과 꼬리모자, 그날 전우들이 사다 준 색동저고리와 비단조끼 다음엔 해마다 나라에서 내준 각이한 크기의 교복들...

지금 철이가 입고다니는 교복도 래일이면 이 옷장속에 고이 간직되게 될것이였다.

열여덟해전 그날,

드디어 자기가 임신했다는것을 확신했을 때 남혜는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글썽해졌다.

어찌 그러지 않을수 있으랴.

간절한 기대와 꺼져내리는 실망, 다시금 애써 가져보는 가냘픈 희망... 이런 감정들의 련속으로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어제날 피를 너무도 많이 흘린탓에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남혜는 가정을 이루었어도 어머니가 될 자격만은 상실한 모양이였다.

인생의 봄시절은 야속하게도 지나가버렸다.

하지만 누가 꽃은 봄에만 핀다고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에 때로는 여름에, 지어는 마가울에 피는 꽃도 있는것이다. 그런 꽃이라 해야 할런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점차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남혜의 몸에는 날이 다르게 이상한 기운이 솟구치더니 드디어 고대하던 그 사변이 생긴것이였다.

남혜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당당히 알려주었다.

아니, 자랑했다. 긍지높은 목소리로 자랑했다.

남편은 안해이상으로 기뻐했다. 기쁨이 지나쳐서 나중엔 못미더워하는 눈치였다. 어쨌든 병원 산부인과에 가보면 명백해질게 아닌가.

다음날 그들 부부는 승용차를 타고 읍으로 나갔다.

봄날이였다. 그저 봄날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환희로운 류다른 봄날이였다.

물이 오른 가로수들은 미풍에 춤을 추듯 설레였고 새들도 기쁜듯이 날아며 봄맞이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껏 부풀어오른 대지가 한결 맑아진 하늘이 약동하는 봄의 숨결로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도처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는 소리마저 유정하게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아, 체내에 싹트기 시작한 어린 생명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는 이 봄날은 얼마나 정다운 것인가.

그러나 산부인과에 들어갔던 남혜는 아예 풀이 죽어서 비칠거리며 나왔다.

황황 타오르던 기쁨이 꺼져버린 얼굴은 싸늘한 얼음쪽같았다.

《웬일이요? 영?》

남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려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다. 가냘픈 미소는 입 귀에 닿기도전에 사그라지고말았다.

《난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수 있대요. 이제부터 몸을 주의하라더군요. 어서 돌아가자요.》

남편은 심상치 않았던지 산부인과로 달려들어갔다. 조산원의 설명을 듣고난 남편은 말뚝처럼 굳어져버렸다.

임신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뻐할 일이 못된다. 그런 몸으로 해산의 진통에 몸부림치다가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이였다.

(아, 그놈들, 그 악귀같은 미국놈들때문에 우리는 귀여운 자식도 가질수 없단말인가?...)

남편은 주먹을 떨었다. 아니 원썩 미제에 대한 증오로 이를 갈았다.

돌아오는 길은 피로왔다. 차창밖엔 역시 그 환희로운 봄날이 펼쳐져있었으나 차안엔 싸늘한 랭기가 배회했다. 남혜는 남편의 눈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한쪽옆에 웅송그리고 앉아있었다. 남편은 입을 꼭 다문채 집에 들어서도록 말이 없었다. 몇번이고 망설이던 남편은 안해를 불러들었다.

《여보 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린 남혜는 소스라쳐 놀라며 웅켰다.

《아니! 그런겐 못해요. 죽어두 못하겠어요.》

남편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남혜는 불현듯이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보기 싫어졌다.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당신은 세대주지요? 남편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 엄두를 못내요? 날더러 당신은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아들은 기어이 낳아야 한다고 엄하게 다짐을 받을 생각을 왜 못하나말어요. 저리 비켜요. 보기두 싫어요.》

남편은 아무말없이 공손히 밖으로 나갔다.

남혜는 복받쳐오르는 설움을 이겨낼수가 없어 흐느껴 울었다. 이것은 임신초기의 녀인들이 의례히 해보는 응석어린 변덕이 아니였다. 주저하는 자신을 남편이 꼭 붙들어주기를 바라는 눈물겨운 호소였다.

못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운 그날은 마침내 오고야말았다.

그러나 예견한바 그대로 난산이여서 이루 형언키 어려운 고통과 절망 속에 한밤이 다 지나간 이른새벽, 동창이 흰히 밝아올무렵에 비몽사몽간의 혼미한 의식을 두드러깨우며 드디어 세찬 고

고성이 터져올랐다.

《응아!》

그 울음소리가 어찌도 우렁찼던지 장수가 난가 부다고 여기저기서 산모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생남이군요!》

《애가 실하기두 해라. 그러니 난산일밖에.》

《쯔쯔, 에미도 독하웨다. 그 몸으로 이런 떡돌같은 아기를 낳다니...》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는 그 말소리들을 꿈결인양 들으면서 남혜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을 기다려 여태 해산실 문밖에 서있던 남편이 들어왔다. 번쩍이는 눈길로 점도록 아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정말 수고했소, 당신이 그 몸으로 이런 장수같은 아들을 낳았다는걸 알기만 해도 미국놈들이 기절초풍을 하겠소.》

아기를 축으로 하여 가족관계가 재편성되었다.

남편은 아버지가 되었고 안혜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것도 기쁜 일이지마는 날로 커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그 애의 장래를 상상해보는것은 더 행복한 일이었다.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무엇인가 바라는것이 있다. 소원! 그것이 있어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고 그것이 있어 오만자루의 꿈을 들여 자식을 키우는것이다.

그 소원이란 무엇인가?

늘그막에 키워준 덕을 보려는것인가? 자식은 저금통장이 아니다. 여분을 저축해두었다가 나중에 툭툭 털어내자고 자식을 키울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런탓에 부모들은 자기들의 뼈와 살을 깎아 키운 자식이 나라앞에 사회앞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것이다.

남혜네 부부는 금지옥엽같은 외아들을 풍랑세찬 날바다를 꿰질러 내달리는 어뢰정의 갑판우에 서슴없이 세워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들은 다같이 해군출신이었지만 유감천만하게도 어뢰정은 구경도 하지 못한채 가렬한 전쟁을 치뤄야 했었다. 서해의 해병들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달려드는 놈들의 함대를 기뢰를 싣고 맞받아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기에 동해의 제 2 어뢰정대 해병들이 단 비척의 어뢰정으로 적들의 중순양함기동분함대를 격침격파시켰다는 기적이 알려진 전쟁초기부터 어뢰정은 썰라복을 입은 병사라면 누구나 한번 타고 싸워보기를 바라마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되였다. 그러니 남혜네 부부가 어뢰정승무원이 된 아들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모습을 상상할수있단말인가.

남편은 아기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때없이 귀맛

좋은 함선호각소리를 들려주곤했다.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함선호각소리는 흰돛이 떠가는 아늑한 정서를 실어오는것이 아니라 격랑세차고 불비가 쏟아져내리는 사나운 항해길로 그들 모두를 이끌어가는것이였다.

그럴 때면 그들 부부는 추억에 잠겨 해병의 노래를 불렀고 아기는 호기심으로 두눈을 반짝거리며 귀를 기울이곤했다.

...

당에 드린 불타는 맹세

가슴깊이 새기고

키좌로 키우로 원쑤 향해 앞으로

돌진한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며

복수의, 어뢰로 원쑤해적 쳐부시리라

이렇듯 로병들의 함선호각소리와 해병의 노래는 자라는 자식의 체내에 스며들어들어 피가 되었고 살이 되었고 꿈을 키웠다.

철이가 돌잔치를 할 때 빗갈나는 음식상에서 함선호각을 덩석 쥐여 입에 물고 사진을 찍은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그때부터 철이는 한시도 함선호각을 목에서 벗은적이 없었다. 서너살 나이에 이르자 철이는 아버지처럼 함선호각으로 해병들이 일과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구령을 내릴수있게 되었고 지어 노래까지 불수 있게 되였다.

거기에서 음악적재능의 싹을 발현한 음악교원은 철이를 학교취주악대에 망라시키고 트롬베트를 주었다. 함선호각으로도 노래를 연주하는 자식이 트롬베트로 노래를 연주 못할리 없었다. 아들의 재능은 인정되였다.

재능, 그것은 본의아니게도 아들의 앞길에 걸가지를 쳤다.

제작년 어느날 저녁,

여느때없이 심각한 생각에 잠겨있던 아들은 남혜에게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음악선생님이 나를 음악무용대학에 추천해주시겠대요.》

남혜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찾아 방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도 남편은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없을 때를 기다려 이런 말을 꺼낸것 같았다.

《고마운 일이구나.》하고 남혜는 왜서인지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려 애쓰며 물었다.

《그래 네 결심은 어떠한?》

《전 그만두겠어요.》

《왜?》

《어머니두... 다 아시면서두 물으시네.》

가슴이 뭉클했다. 부모들의 대를 잇고져 화려한 꿈도 미련없이 버리는 아들이 이때처럼 사랑스러워보인적은 일찌기 없었다.



《고맙다. 인젠 네가 어른이 다 됐구나.》

불수록 대견스러운 그 아들이 래일이면 떠나는 것이다. 아들이 없는 집안은 텅 빈듯 허전해지겠지. 그렇다 하여 이 마음까지도 허전해질까?

남해는 아들에게 기념으로 줄만한 물건을 종시 팔라내지 못한채 남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책상을 마주하고 뭔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뭘하세요?》

《가만, 방해마요. 내 지금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는참이요. 수자들이 삭팔리겠소.》

《무슨 계산을 그리도 오래 해요?》

남해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에 다가섰다.

뜻밖에도 책상위에 놓인 종이장엔 각종 항생제들과 보약제를 비롯한 약병들과 그 가격들이 가득 적혀있었다.

남해는 어리둥절해졌다.

이런 뜻깊은 밤에 똥판지같이 약값이나 계산하고있는 남편이 통 리해되지 않았다.

《무엇때문에 이런 계산이 필요해요?》

대답을 하려던 남편은 고개를 가웃하더니 빙글씨 웃었다.

《여보, 그 애가 오는것 같소.》

터벅터벅...

복도쪽에서 가까와지는 아들의 발걸음소리는 웬일인지 무겁게 들렸다.

반겨 달려나가려던 그들 부부는 이상한 예감에 그대로 굳어져있었다. 발걸음소리는 멎었으나 인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들은 집안에 들어서기 전에 앞서 동정을 살피는게 분명했다.

그들 부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발걸음소리가 날세라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서던 아들은 긴장하게 자기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눈길과 마주쳤다. 아들은 왜서인지 눈길을 피하는 것이었다. 어쩐지 얼굴도 좀 붉어진것 같았다.

남해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무슨 말인가 할듯할듯 하던 아들은 단념한듯 입술을 감쌀며 돌아섰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저 애가 혹시 불합격이 된게 아닐까?

침묵이 흘렀다.

남해는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대와 어긋나는 소식이라도 듣게 될가봐 두려웠다. 아들은 벌써 잠든체했다. 남편도 까딱 기척이 없었다.

남해는 무거운 침묵에 짓눌리워 도무지 움짱달 싹할수가 없었다.

《땡강!》

부엌에서 가마뚜껑이 미끄러져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듯 남해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더니 썩하니 부엌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늘썩 부엌일에 습관된 아들이다. 불편한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가마에 쌀을 안쳐야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것으로 알고있는 아들이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자주 꾸지람도 하는터이지만 막무가내다. 그래서인지 동네에선 철이가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들이 부엌에서 돌아치는걸 허용할수가 없었다. 남해는 허둥지둥 뒤따라내려갔다. 그리고는 아들이 내려놓은 가마를 다시 올려놓고서 물을 더 부었다.

《당콩은 이렇게 꼭 퍼지게 삶아야 송편맛이 좋아진단다. 래일 기차를 타고가면서 동무들과 나눠먹어라.》

아들은 심상하게 대꾸했다.

《어머니, 그만 올라가 쉬세요. 공연한 일이에요.》

남해는 가슴이 오그라드는것만 같았다.

《너 그게 무슨 말이나?》

《난 군대에 갈수 없대요.》

아들은 애써 범상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범상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 표정, 그 말투에는 일이 그렇게밖에는 달리 될수 없었으니 그쯤 알아두고 더 캐묻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숨배여있었다. 하지만 남해는 캐묻지 않을수가 없었다. 아들을 똑바로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길은 엄엄해졌다.

《말해라. 대체 어찌된 영문이나, 말하래두.》

긴숨을 들이쉬고난 아들은 짹짹하게 대답했다.

《외아들은 군대에 내보낼수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돌아왔단 말이나, 원 너석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부부의 심정을 너무나도 모른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것이다.

잠간 부드러워졌던 남해의 눈길엔 단호한 결심이 비껴 다시금 엄엄해졌다.

《철이야, 이제 당장 나와 함께 읍으로 가자. 이 에미가 아무리 불편한 몸이래도 끝대같은 자식을 치마폭에 싸고돌수 없다고 내가 그들에게 말해줄테니, 어서!》

남해가 아들의 손목을 쥐고 문밖에 나서려 서둘러대자 아들은 격하게 부르짖었다.

《어머니!》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한걸음 뒤로 물러난 아들의 두눈에선 주먹같은 눈물이 후그득 떨어져 내렸다.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이 아들은 부모님들을

모셔야 합니다. 영예군인인 부모님들을 잘 돌봐 드리는것이 초소에 나가는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것을 저는 오늘에야 알았어요. 》

《뭐?!》

남혜는 아들의 두어깨를 와락 그러잡고서 뿔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들은 노여움으로 무섭게 번쩍이는 어머니의 눈길을 마주보기 두려운듯 고개를 떨구었다.

《전 차마 불편한 부모님들만 남겨두고 떠날수가 없어요. 》

《그 결심이 확고하냐?》

아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남혜는 꼭 그러잡았던 아들의 어깨에서 두손을 스르르 떨구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남혜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머리맡에서 남편이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남혜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도 들었을테지요?》

남편은 신중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래. 우리가 아들이 해주는 밥이나 받아먹고 아들이 거두어주는 방안에서 편히 뒹굴자고 자식을 키워왔는가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데 저 애는 왜 그다지도 우리의 진정을 몰라주나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애가 없었더라면 구태여 오늘까지 살아올 필요조차 없었을거예요. 그렇다하여 자식의 시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온건 아니지요.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려를 받고있나요. 하는 일없이 나라의 짐이 되는것만 같아서 우린 피로웠지요. 그래도 아들이 있기에 우리도 언젠가는 조국앞에 땀땀이 가슴을 펴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지요. 바로 그런 때는 오고야말았어요. 그런데 저 애는 왜 그걸 알고고도 하지 않나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뗐다.

《그러게 말이요. 난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싶어서 이틀째나 줄곧 계산을 해왔소. 우리가 받아안은 그 모든것을 어떻게 다 돈으로 계산할수 있겠소만 그래도 해보려고 애썼소. 여보,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부상을 입고 여기 영예군인보양소로 온 직후부터 오늘까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약값만해도 2만 5천원이 넘소. 》

남혜는 어마지무 놀랐다.

남편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그런 배려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자식마저 우리를 위해 붙들어두어야 하겠소?

우린 아들을 우리대신 초소에 내세워 못다한 우리 몫까지 다하게 하려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버렸다. 남혜는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철이 덜 든가봐요. 너무 애지중지 자래우다보니 부모들의 심정도 몰라주구...》

《아니 그런게 아니요. 우리가 그 앨 잘못 키웠소. 영예군인의 자식답게 조국을 먼저 생각할줄 알도록 녀을 심어주지 못했단말이요. 》

부엌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뒤미처 문소리가 탕 하고 나더니 복도쪽으로 울음소리는 멀어져갔다.

가정의 화목도 행복도 희망까지도 모두 허공중에 날아가버린것 같았다. 집안은 졸지에 난파선처럼 살풍경해지고말았다. 오로지 이날만을 기다려 살아온듯싶은 이들 부부는 돌변한 사태에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묵묵히 피로운 상념에 잠겼다. 정적을 더해주며 벽시계소리만이 또렷이 울릴뿐이다.

《여보, 이거 밥이 타는것 같구만. 》

남혜는 꼼짝도 안했다.

《젠장, 밥이 탄다는데두. 》

남편의 어조가 어딘가모르게 거칠어졌다. 이것만으로도 방안의 공기는 심상치 않았다. 그는 지금껏 아무리 기분이 언짢아도 이런 목소리로 안해에게 말을 던진적이 없었다. 그래도 남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밥이 탄다. 아니 당콩이 탄다. 군대에 나가는 아들에게 송편을 찌주려고 가마에 안친 당콩이 탄다. 그런데 어쨌단말인가. 가마가 타는게 대순가. 가슴속은 벌써 새까맣게 타서 재가 없지 않았는가?

란내는 부엌에 가득차고 문틈으로 방안에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참을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껍 소리기를 질렀다.

《당신 정 이럴셈이요! 》

남혜는 체념한듯한 눈빛으로 남편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별치않은 일을 놓고도 서로 신경질을 부리게 될것이다. 어디 안해구실을 할만한 안해와 지금껏 살아왔던가.

그래도 우린 화목했었지, 서로를 리해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그 마음의 기초에는 자식을 잘 키워서 떠나는 바다초소에 내세우자는 공통될 심정이 있었지, 헌데 그 고임돌이 빠져나간것이다.

어제날의 해병들이 낳은 아들이, 태어나자부터 함선호각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라온 아들이, 짬물에 곁고 포연이 습배인 해군사쓰를 줄여입혀 자래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수가 있단말인가.

그럴수 없어, 절대로, 절대로...

남혜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고까움이 안개처럼 걷히고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참, 함선호각이 왜 보이지 않나?》

남편은 저으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혜는 함선호각이 장식품처럼 걸려있던 맞은편 벽에 눈길을 주었다. 함선호각대신에 학생모가 걸려있었다.

남혜는 남편역시 방금전 자기의 과격한 행동을 후회하고있으며 아들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져보려고 애쓰고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렇지 않구서야 함선호각이 제자리에 걸려있지 않는것을 어떻게 알아볼수 있었으랴.

벽시계는 그 무엇을 재촉하는지 여전히 초조하게 똑딱거렸다.

창밖이 푸름푸름 밝아오기 시작했다. 행길에선 두런두런 말소리들, 발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애는 대체 어디로 갔단말인가.

남혜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남편은 말없이 그가 일어나는것을 부축여주었다. 남혜는 기둥같은 남편의 몸에 의지하여 집을 나섰다.

새벽녘의 대기는 쌀쌀했다.

빠스정류소엔 여느때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붐비고있었다. 알고보니 모두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는 집식구들이었다. 남혜부부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그들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종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둥거리던 남혜의 눈길은 군대에 나가는 막내딸을 배웅하러 나온 한 영예군인부부에게 못박혔다.

1211 고지에서 싸우다가 실명된 강동무다. 보양소적으로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룬 그들 부부는 이미 두 아들을 다 군대에 내보냈다. 맏아들은 벌써 전연초소를 지키는 구분대장이다. 재작년에 입대한 둘째아들은 자기가 싸우면 1211 고지에 있다.

지난 인민군창건기념일에는 인민대표단성원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어제날 피흘려 지킨 전호가에서 그 아들과 어깨걸고 사진까지 찍고온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막동딸을 초소로 떠나보내고있는것이다.

《아버지! 이제 저까지 없으면 무척 적적하겠지요? 허나 걱정마세요. 제가 한달에 한번씩 꼭꼭 편지할게요?》

떠나는 딸은 외롭게 남을 부모들이 근심스러운듯, 그러나 그런 내심은 보이지 않으려는듯 아버

지의 두손을 그리잡고 응석있는 목소리로 사군사군 말했다.

《원 애두, 막내야, 걱정 말어라.

우리결에는 언제나 영예군인들이 불편없이 살도록 보살피는 어머니당이 있구 집단이 있구, 다정한 이웃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 집생각은 아예 말고 군무생활애나 충실해라. 그게 영예군인인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거다.》

강동무는 딸애의 두볼을 눈으로 보듯이 따듯이 쓸어만지며 힘주어 타일렀다.

정녕 부러운 모습이였다. 남혜는 이 시각 자기 부부도 아들 철이를 붙들고 저런 부탁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은게 마음속이 한없이 허전해났다. 그러자 그들속에 당당히 함께 설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돌이켜지며 온몸이 확확 달아올랐다. 남편도 몹시 당황한 기색이였다.

저 사람들의 눈에 띄우기전에 어디론가 형제도 없이 사라지고싶은것이 남혜네 부부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그러나 발은 이미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듯 도무지 움직일수가 없었다.

남혜네 부부를 발견한 어제날의 강계처녀가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철이도 오늘 떠난다지요?》

《저 ...》

이때였다. 새벽공기를 힘있게 가르며 어디선가 랑랑한 나팔소리가 울려퍼졌다. 몹시도 귀에 익은 트롬베트독주다. 그래 선률도 그 선률이다. 그 노래가 틀림없어!

남혜는 소스라쳐 놀라며 정신없이 사위를 살폈다.

저기 부드러운 새벽안개속에 포근히 감싸인 고등중학교의 아담한 3층교사에서 나팔소리가 길길이 파도쳐오고있었다. 얼어붙었던 남혜의 가슴은 들이치는 트롬베트소리의 파도에 부딪쳐 급작스레 뒤설레이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그쪽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의 두눈에서도 불꽃이 튀겼다. 벌써부터 그쪽에 귀를 강구고있던 1211 고지방위자가 드디어 무엇인가 생각난듯 탄성을 올렸다.

《아, 저건 해병의 노래요! 정전직후 성훈동무의 함선호각소리에 맞추어 남혜동무가 즐겨부르던 바로 그 노래란 말이요!》

안개가 살며시 날아오르자 활짝 열린진 어느 한창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반신을 내민채 열정적으로 트롬베트를 불고있는 아들의 모습이 새벽빛에 반사되어 군상처럼 안겨왔다.

극도로 긴장된 남혜는 입을 꼭 다물고있었으나 심장은 벌써 그 나팔소리에 맞추어 견잡을수 없이 뛰놀며 추억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헌데 아쉽게도 나팔소리는 칼로 내려진듯 도중에서 툭 끊어졌다. 동시에 창가에 서있던 아들의 모습도 흔적없이 사라져버렸다.

뒤미처 교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들이 발사한 어뢰처럼 뛰쳐나왔다. 종주먹을 부르짖고 빠스정류소로 달려오는 아들의 가슴팍에선 동사슬에 매달린 함선호각이 번쩍번쩍 빛을 뿌렸다.

너무도 벅찬 기쁨에 머리가 핑 돌았다. 남혜는 남편의 어깨를 꼭 틀어잡으며 그의 널찍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우린... 우린 끝내 소원을 성취했군요.》

남편은 부르르 몸을 떨더니 별안간 목이 터지게 부르짖었다.

《전우들! 내 아들도 오늘 초소로 떠나오!》

불같이 뜨거운 남편의 눈물이 남혜의 목언거리에 떨어져내렸다. 그제서야 남혜는 이제 곧 떠나

갈 아들의 손에 쥐여줄 도중식사조차 들고나오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후회되지는 않았다. 오늘에야 비로소 자기네 부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고귀한것을 심장속깊이에 심어주었음을 그 녀자는 긍지높은 로병의 마음으로 확신한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

뿔뿔이 가슴을 펴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아들을 향하여 그들 부부는 한덩어리가 된채 어푸러질듯 허둥지둥 마중나갔다.

아마 자식들을 키워 어제날 싸움터로 내보내는 영예군인들치고도 이 순간 남혜네 부부만큼 긍지 높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슴설레일 사람들은 없을것이라고 모두들 새삼스레 생각하면서 아직도 찾아들지 않은 나팔소리의 여운에 엄숙히 귀를 기울이는것이였다.

## 나의 벗들에게

한정현

벗들이여 우리 함께

저 높은 혁명렬사릉에 올라보자

빼앗긴 나라 찾는 그 길을

투사들은 멋있게 차려입고 오지 않았다

그것은 초연에 그슬린 땀뻘 군복

그러나 마음속엔 충성이 불탔거니

그 불길 우리의 심장속에도 타올라야 하리

저기 인민군렬사탑에도 올라보자

전사의 가슴에 안겨있는건

영원히 놓을줄 모르는 기관단총

주머니에선 지금도 마라초항기 풍겨오는듯

그들은 영웅의 메달을 혈값으로 달지 않았다

천금과도 못바꿀 목숨을 바쳤거니

영웅들의 고귀한 넋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하리

저기 길가는 평범한 사람들인

숨은 공로자들에게도 물어보자

그들은 언제한번 현란한 말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였던가

때마다 요란히 연락은 두드리지 않아도

어려운곳엔 언제나 먼저 서있었거니

그 깨끗한 량심 우리 마음의 거울 삼아야 하리

오, 우리는 이 땅의 긍지높은 청춘

순간의 값늑은 만족보다

혁명하는 보람속에 영생의 삶을 찾는

그것이 청춘 우리의 아름다움

그것이 청춘시절 우리의 가치...

# 인생의 봄

리계심

그날도 나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서둘러 아침출근길에 나섰다.

쌀쌀하면서도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길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버릇처럼 강변에 뿌리내린 수양버들에 눈을 주었다. (아니, 어느새 벌써…?)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흘린듯이 그앞으로 다가갔다. 엇그제만 해도 죽은 고목같이 앙상하여 볼품없던 나무가 눈이 부시도록 연두색차림을 하고있지 않는가!

남먼저 봄을 아뢰는 버드나무가 봄의 미소를 그리며 하늘하늘 춤을 추고있는것이다. 봄을 맞을 때마다 느끼는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에 다시금 탄복하며 나는 혼자 중얼거리었다.

(연두색의 계절이 왔구나, 연두색은 새 생명의 빛이지… 봄! 봄!)

이 신기한 자연의 봄이 나에게도 그 무슨 인생의 봄을 안겨주기라도 한듯 뒤설레이는 가슴을 뿌듯이 안고 서있는데 새들도 내 마음을 알아선지 이 아지 저 아지 날아예며 우짖고있었다.

이 연두빛 버드나무를 찬탄하는것은 나만이 아닌듯했다.

얼음이 녹아 봄물이 오른 대동강의 푸른 물은 기슭을 치며 기쁨을 속삭이고 가없이 비껴간 연한 하늘은 가벼운 봄나래를 펴주고있었다.

새봄에 대한 감각으로 싱그러워진 몸과 마음이 아니 나머지 봄이 된듯한 기분으로 강변길을 따라 걷는데 유치원으로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또한 봄노래런듯 유정하게 들려왔다.

이 다감한 날 아침 내 머리속에서는 봄에 대한 사색이 움실움실 움터오르는것이였다.

자연의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을 기다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것은 아니지… 말 못하는 나무도 삶을 꽃피우는데 하물며 인생에게 있어서라…

그런데 사람들은 《봄도 한철, 인생의 봄도 한철》이라고들 하지… 봄이야 4계절이 엇바뀌며 오는것이니 그렇다손쳐도 인생의 봄을 왜 한철이라고 할가…? 제한된 청춘기를 두고 이르는 말이겠지…

그런데 나는 어째서인지 그 말을 그저 묵묵히 수긍할수만 없는 이상야릇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온 이 공인된 생활철학을 긍정하고싶지 않는 심리는 과연 어디서 오는것일까?…

늠음을 모르는 마음때문일까? 늠음에 대한 항

변일까? 아니다.

세월이 갈수록 젊어지고 아름다와가는 우리 평양, 우리 조국에서 인생의 봄을 어찌 한철이라고만 하겠는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 한다.》**

깊은 사색에 잠겨 걸어가던 나는 이 출근길에서 내가 봄을 몇번이나 맞았든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였다.

초연내 뺨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돌아온 그때 내 나이 20대 꽃나이였지. 탁아소에 아기를 맡기고 손저어 돌아보며 바람같이 달려가던 출근길! 지금은 손주가 주렁주렁한 할머니가 되도록 서른일곱번째 맞는 봄이다.

그러니 이 출근길은 나의 한생이 비긴 인생길이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이였다. 80여년을 하루같이 걸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적 없었는데 이날따라 그런 생각이든것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연령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것일것이다.

흘러간 나의 한생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속에 비껴갔다

애초에 이 출근길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얹어준 남달리 힘에 겨운 시련의 길이였다.

전후에 허허벌판이던 룡흥벌에 겨우 바람막을 정도로 지은 립시주택에서 배낭을 두개 모아 처음으로 새 살림을 시작한 나에게는 모든것이 부족했고 걸음마다 불리한 조건에 맞닥들었다. 물은 먼곳에 가서 드레박으로 길어와야 했으며 식량공급소도 상점도 시내 중심에 들어가야만 있었다. 출근길은 아득히 멀고 교통은 불편했다. 서툰 부엌일과 가정일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만 했는데 이 가정적부담을 쉬이 극복하지 않고서는 창작이란 엄두도 낼수 없을상상였다.

가정의 주부로서의 의무와 창작가로서의 혁명임무중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두 임무를 병진하는 일은 내 일생일대의 난문제였으며 지난날 가정에만 파묻혀있던 우리 조선녀성들이, 비로소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대의 녀성들이 기여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이기도 했다.

아이와 남편을 잘 돌보며 사회활동도 잘한다는것은 가렬한 최전선에서 싸우기보다 몇배나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 어려운 일을 뚫고나갈수 있

는 힘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아이와 남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으며 죽어도 버릴수 없는 문학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었다.

밥을 지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창작에 전념하는 습관을 붙이기에 애썼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살피 헤아리신듯 나라가 아직 허리를 펴지 못한 그어려운 때 갓 짓기 시작한 다층주택중에서 대동강변의 가장 경치가 좋은 훌륭한 주택의 두 개호동을 우리 작가들에게 먼저 돌려주시였으며 작가들의 생활조건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이리하여 나는 룡흥동의 단층주택으로부터 대동강을 트락처럼 안고있는 밝고 훌륭한 새 집에 첫아기를 안고 새집들이함으로써 강변길을 걸어 창작실로 출근하게 되었던것이다.

나의 어깨엔 날개라도 돋힌듯싶었다.

이 길은 나의 꿈이 피어나는 길이었다.

두 기슭을 이으며 옥류교다리가 우리 인민의 의지마냥 뻗어가고 어수선하던 강변엔 화강석 석축을 쌓고 유보도는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생활의 노래런듯 흘러갔다.

잡초만이 우거졌던 문수벌엔 금강산의 기암절벽도 무색할 련대적인 거리가 꿈같이 대동강의 맑은물에 비쳤다.

창공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나에게 쉬임없이 창조적령감을 불리일으켜주고 조선의 기상인양 쏘아올리는 대분수엔 쌍무지개가 비껴 대동강은 정서의 바다, 사색의 바다를 펼쳐주었다.

창조적위훈과 랑만으로 차넘친 우리의 위대한 현실은 나를 불꽃 날리는 건설장으로, 승업한 백두밀영으로, 새 기술혁신의 봉화 높이 든 기대결으로, 천리방선으로 만리어장으로 불렀다.

그 길에서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성장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과 친숙해졌으며 작가적수양을 쌓게 된 나는 소박한 나의 시집과 중편소설 《너준의 일기》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의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새 중편에 담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든 전쟁시기 쏘구역을 뛰어다니며 시를 쓰던 녀전사시절의 마음으로 붓을 들고있다.

당이 준 심장이 나에게 있고 당이 준 열정이 나를 불태워주고있기에 나는 어제든 오늘든 래일든 우리 당의 리상을 란만히 꽃피워가는 창조의 봄동산의 한떨기 꽃으로 피고피리라.

## 바다여, 나의 바다여

김석래

새벽이면

처절씩 물머리 들며

나를 부르는 바다

손짓인듯 흰갈기 저으며

마주 달려오는 내앞에 서면

마음은 넓어지고 가슴은 부풀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바다여

쉬임없이 끊임없이

설레이는 바다

나는 네 기슭에 서서

너같은 열정을 갈망한다 바다여

때로

노호하는 격랑과 해일

령을 받고 내닫는 천군만마와 같이

장엄하고 거세찬 모습에서

나는 부르노라

나의 삶에 진함없을 열정을

너그러운 손길마냥

기슭을 쓰다듬는 네앞에

흰모래 백사장은 얼마나 깨끗한가

그 어떤 강물도

네 품에서 얼마나 깨끗해지는가

너의 꾸준한 그 성품

바다여 나에게 주려마

아네 기슭에 서서

나는 또하루 새날을 맞는다

버릇처럼 이제는

생각도 마음도 다잡는 이런 아침

나는 좋구나

조국이 맡겨준 일터에 서기전

나는 이런 아침을 즐겨 맞는다

바다여 나의 바다여

## 마지막 낚시질

김용한

지금 나는 채취공업부의 한 국을 책임진 중년이지만 그때는 도시변두리의 자그마한 집에서 낚시질에 미쳐 다니던 열두살짜리 소년이었다. 내가 살던 집에서 한 15 분간가량 나가면 푸른 물결이 굽히는 달천강이 나타나 언제나 낚시대를 멘 나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였다.

그 강은 아득한 벌너머 저 멀리에 구름인지 언덕인지 분간키 어려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돌아 나오면서 해빛에 반짝거렸는데 도시주변에 이르러 폭을 넓히며 서서히 굽어지다가 남쪽으로 흘러갔다. 사철 강물에 고기가 많아 콤처럼 웅크린 바위들과 동글납작한 조약돌이 하얗게 깔리 강변에서 고기잡이꾼들이 비는 때가 거의 없었다.

그들속에 섞여 대낚시질을 하던 나는 어느날 한 늙은 낚시군과 우연히 사귀게 되었다. 나는 그날 어머니가 앓는다는 길건너집 동무를 데리고 나왔다.

정오가 되어서야 낚은 고기를 동무에게 들려보낸후 다시 낚시줄을 드리우고 서있는데 누가 나의 어깨를 툅-쳤다.

《괜찮아!》

뒤돌아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동북허리에다 노끈을 질끈 동인 늙은 낚시군이 강바람에 새까맣게 그슬린 얼굴로 굽어보며 끝이 까부라져 올라간 검붉은 턱수염을 쥐어뜯고있었다.

그를 쳐다본 나의 눈에서 금시 기쁨의 불꽃이 반짝거렸다. 달천강 낚시군이면 최갑쇠라는 이령감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달천강이 물갈기로 허영게 덮여 다른 낚시군들은 행베리 한마리 건지지 못할 때도시령감만은 진토색그물배가 불룩해지도록 고기를 낚았던것이다.

《그 애 어머니 병이 몹시 심한가?》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입맛이 떨어져 음식을 통 드시지 않아요.》

《그래 데리고 나와 고기를 잡아주었던 말이지-》

령감은 잠시 이마살을 모으며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너는 낚시질을 좋아하지?》

물론 나는 고개를 까닥거렸다.

령감은 한쪽 어깨에 멘 감자주빋 참대낚시대를 매만지며 이마가 툅 뒹겨나온 내 얼굴을 사랑스레 굽어보았다.

《그럼 내가 너의 낚시질친구가 돼줄가?》

나는 그 말이 애당초 믿어지지 않아 머리를 살

래살래 저었다.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친구가 되나요?》

《왜?》

《저야 아직 아이잖나요.》

《그러면 뭐라나? 마음만 서로 맞으면 되는거지-》

나는 령감의 선의에 어찌할바를 몰라 눈만 깜박거렸다. 한것은 달천강의 《야심군들》이 령감에게서 낚시질묘리를 알아내려고 담배따위를 내놓으며 별의별 수를 다 써보다가 기진하여 이제 는 《최갑쟁이》란 별명을 붙여놓았기때문이었다.

《끝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령감의 얼굴에서 예리한 눈초리가 강바닥의 고기들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들여다 보는듯하였다.

《통담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구-》

나는 운동화짝과 낚시대를 갈라취고 맨발로 령감에게 붙어가면서도 어병병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어찌 이 넓은 달천강에서 선망의 눈길을 독차지한 늙은 낚시군과 아직 솜털도 가지지 못한 애송이가 친구로 될수 있단말인가? 손자벌인 내가 령감의 제자로 된다면 혹시 몰라도.

하지만 최령감은 나를 제자로서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낚시질친구로 만들려는것 같았다.

그는 강물이 굽어져 고기가 많이 모이는 자기 자리인 너럭바위 (낚시군들은 구 바위를 《최갑쇠꽃》이라 불렀다.)에 이르러 좀 아래켄에다 내 낚시터부터 정하였다. 그다음 나와 자기 사이에 대우난 감자주빋 낚시대를 받쳐놓고 미끼 끼우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었다.

배끓은 아침고기미끼는 낚시끝이 보이지 않도록 끼우면 되지만 오후부터는 생신한 미끼를 그것도 절반가량 끼워야 물속에 들어가서도 움직이지기때문에 배부른 고기의 구미를 동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령감의 설명을 듣기만해도 당장 고기가 잡힐상싶어 벌쭉 웃었다.

손수 낚시에다 미끼를 끼우며 시범동작을 해보이는 그의 왼편손 엄지손가락이 이상하게 안으로 까드라져있었는데 나는 호기심에 《할아버지》하고 그의 본을 따서 미끼를 끼워보며 물었다.

《그 손은 왜 그렇게 뻤나요?》

령감은 내가 끼운 미끼를 이리저리 뚫어보며 심상한 태도로 대꾸하였다.

《전쟁때 락동강역에서 불이 달린 마차를 구해

내다가 이렇게 됐지, 싸움판에서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야.》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할아버진 군대에 나갔됐나요?》

《그럼 원썬놈들이 쳐들어오는데 늙었다구 가만히 앉아있어야겠냐?》 하고령감은 낚시를 손바닥에 놓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긴 나이가 원썬라구 강때를 써서 겨우 마사원으루 따라다녔지. 싸움도 변변히 못하고서 몸 에다 총상만 네곳이나 내구... 그래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대를 당했구. 이젠 경로동작장에서두 내몰리웠다네. 자, 그럼 낚시질이나 해볼가?》

최갑쇠령감은 더 이상 그 일을 회상하고싶지 않는듯 낚시대를 쥐었다.

령감은 그후부터 강녘이 한가해지는 정오가 되면 의례히 나를 너럭바위에 불러다놓고 낚시질모리를 하나하나 터득시켜주었다. 나뿐만아니라 낚시대를 멘 아이나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배우려 하면 그들이 알고싶어하는것도 세세히 설명해주었다. 단지 달천강에서 몇사람들만은 그의 주위에 열심도 못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란 바로 밀짚모자를 빼딱하니 쓰고 낚시대를 한쪽어깨에 멘채 강변에 나타나 거들먹대는 《야심군》들이었다.

갑쇠령감은 《강의》를 하다가도 저녁녘이 되면 곧 낚시대를 물었는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내가 아직 소년이라는것도 잊은듯 한손을 내밀며

《임자 담배 없나?》 하고 물어 나를 그만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낚시질여가에 령감은 나와 같이 너럭바위우에서 주먹밥을 나눠먹기도 하고 나는 그의 곁에 엎드려 숙제도 하였다. 령감은 내가 어찌다 책을 읽고 낚시대만 들고나오면 당장 돌려세우곤하였다.

우리가 제일 즐거운 때는 방학기간이었다. 하루 진종일 함께 앉아 낚시질을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방학숙제만 다 해치우면 령감에게서 달천강의 오랜 력사와 물고기들의 신비한 세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끝없이 들을수 있었던것이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차 오흑한 코를 쳐들고 정신없이 듣곤하였는데 그 모양이 령감한테는 몹시 귀여웠던지 빙긋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꼭 눌러놓곤하였다.

하지만 일년에 방학은 아수하게도 세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강물과 더불어 흘러가는 나날과 함께 고기를 낚는 기쁨보다 서로의 그리움이 더해만 갔다.

그러는 과정에 어느덧 나는 전문 낚시군들의 말투까지 제법 쓰게 되었으며 그들의 세계에 차츰 빠져들게 되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낚시군들의 고기낚는 방법도

달랐다.

누런 락엽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강변이 백설로 눈부실 때면 방한모에 솜뭉뚱으로 무장한 낚시군들속에서 나와 령감은 제가끔 둥그렇게 깎인 얼음구멍앞에 마주 앉아 서로 인내성을 시위하듯 낚시줄을 쥐고있어야 하였다. 살을 어이는듯한 추위와 강변에서 불어치는 눈바람에 온통 하얀 눈사람이 되어가지고도 우리는 얼음판우에서 한시간이건 한것이건 움직임없이 온 신경을 손에 집중하고있다가 고기가 낚시를 스치는 촉감이 오는 순간에 번개같이 줄을 잡아채곤하였다. 그럴 때면 거의 영악없이 서너키로짜리 잉어나 누치가 예리한 다녕에 걸려 퍼들쩍거리며 올라오는데 그 순간의 쾌감이란 하루종일 추위에 언 수고를 말끔히 잊게 하였다.

겨울이 가고 해빙기가 시작되면 달천강은 활기가 넘치기 시작한다. 3월부터 산천어, 돌고기, 누치, 쏘가리 잉어들이 련이어 가리를 시작하는데 이때면 강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까지 알뜰이 하러 물가에 붙는 고기를 잡는다고 치마자락을 걷어붙인채 방치를 돌려메고 헤엄비었다.

하지만 최갑쇠령감은 이 계절에 낚시질을 하지 않았다. 알을 품은 고기를 잡으면 강에 고기씨가 마른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자신이 잡지 않았을뿐더러 나도 못잡게 했고 그런가 하면 매일같이 강변을 오르내리며 낚시군들을 단속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갑쇠령감의 변함없는 《질서》였다. 그의 이 《질서》는 누치가가 끝나야 변경되는데 《조병이꽃이 폈더구만...》 하면 그것은 곧 《래일부턴 낚시질을 해도 좋다.》는 뜻이였다.

하지만 낚시군들이 제일 기다리는것은 덤벙이로 잉어를 낚는 계절이다. 강판에서 뽕뽕히 쇠인 은빛줄이 왔다갔다 활짝에 걸려든 놈의 크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미칠듯이 흥분되는 그 희열은 그물로 몇가마니의 잔고기를 퍼올리는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것이였다. 오직 이것은 고기를 씹어먹는것보다 잡는 쾌감에 갖은 고성도 마다하지 않는 낚시군들의 세계에서만 리해할수 있는 일이었다.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때보다 소득도 별로 많지 못한 가을철에 강가의 움막에서 흰연기를 물물 파워올리며 밤낮없이 강녘을 뜨지 않는것이였다.

이렇게 내가 어린 낚시군으로 자라는 사이에 최갑쇠령감은 해마다 기력이 진해가는것이 알렸다.

저녁녘에 보면 낚아낸 물고기가 나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몹시 편치 않아 강가로 나오지 못하는 날이 련이어 계속되는 때도 있었다.

그 반면에 날을 따라 어획물이 많아진 나는 달천강의 《야심군》들과도 제법 어울리어 낚시질을 하곤하였다.

그들은 친절히 나를 대해주었는데 요긴하게 쓸



데가 있다고 하며 애걸하는 아주머니들이나 늙은 이들에게 선심을 쓰듯 고기를 주면서 늘 이런투로 말을 하곤하였다.

《이처럼 별이 따라올 때는 채양넙은 둥글모자가 제격인데...》

《이젠 이놈의 비웃도 제 수명을 다했거든.》

그러면 영낙없이 그들이 요구한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값진것들이 그들에게 차례지곤하였다. 그 덕에 나에게는도 멋진 통구화며 울긋불긋한 줄이 간 목수건파우들이 공짜로 생겼다. 그들은 그 대신 나에게서 갑쇠령감이 배워준 낚시질묘리를 묻곤하였다. 그들의 부추김을 받아 간혹 나도 바꿈질을 하였는데 그러다나니 그럭저럭 낚시도 구들도 갑쇠령감과 짝지지 않게 갖춰졌다. 자연히 그앞에서 나는 으시대고싶은 충동까지 일었다.

《허어—이제 보니 내 친구가 보통이 아닌걸!》

최갑쇠령감은 달라진 나를 보며 놀랍다는듯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반대로 령감은 언제나 낡은 솜동복에 흰 로동화를 신고다녔다. 나는 그가 리해되지 않았다. 령감이 물고기를 잡는것만큼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것을 얼마든지 장만할수 있지 않는가.

어느날 나는 그와 함께 강변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잡은 물고기를 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다니? 애들한테 먹이지.》

《집에 손자들이 많나요?》

《망구말구, 한 서른명쯤 돼.》

《에?!》

최령감은 꺼먼 얼굴에 미소를 띄고 걸으며 기분 좋게 수업을 날렸다. 그러나 나는 자갈을 밟는 그의 로동화가 눈에 밝혀오자 마음속이 좋지 않았다. 령감의 말을 그대로 다 믿을수는 없지만 낡아빠진 로동화를 계속 신지 않으면 안되는 그의 처지가 어린 마음에도 가궁하게 생각되였다.

《할아버지— 제발 그 신발만이라도 새걸 하나 사세요.》

《이걸말인가?》 하고 령감은 검은색이 바랜대로 바래 이제는 허영고 주글주글해진 로동화를 가리키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고기잡이엔 이 신발이 제격일세.》

《그래두 하필 보기 흉한걸 신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시장에 물고기를 한번만 내다 팔면 신발값은 생기고도 남을텐데요 뭐.》

내 말에 갑쇠령감은 걸음을 멈추며 갑자기 심각한 기색을 띄웠다.

《임잔 시장에 다니나?》

《아니요.》

《그런데 그런걸 어떻게 알아?》

《어른들이 말하는걸 들었어요.》

《그래?—》

나는 사실대로 대답하였으나 령감은 왜서인지 내 기색을 유심히 살펴보고았다.

가무잡잡한 얼굴에 한가닥의 불만이 어려있었는데 그것은 쳐들린 시꺼먼 두눈섭꼬리에 박혀있었다.

《사람이 물건에 신경을 쓰면 못써!》

령감은 손을 뻗어 내리긋고 발길을 다시 옮겼다. 그날 나는 그에게서 다른 말을 더는 듣지 못했다. 령감은 하루종일 무슨 생각에 골몰해 랑미간을 찌프리고 너럭바위에서 낚시질만 하였다.

그때 나는 벌써 열다섯살에 잡혔다

×

그후 보름동안은 학기말시험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어찌서 령감이 그날 말 한마디 없었는지 알수 없었으나 여하튼 그를 노엽혔다는 사실로 해서 미안한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 마지막 시험과목을 쳐버리자 령감에게 사죄할 마음으로 부리나케 낚시대를 둘러메고 강변으로 달려나갔다.

거뿔한 너럭바위에 웅크리고 앉아 움직임이 없는 령감의 모습이 나타났다. 정오의 해빛아래서 흐르는듯 마는듯하는 달천강이 수만개의 운모조각들처럼 반짝거렸다. 그 물위에 낚시줄을 드리운 갑쇠령감은 무엇에 심취되었는지 턱을 받친채 하염없이 앉아있었다. 검붉은 수염은 미풍에 간들거리고 어깨우로 흰연기가 가끔 풀썩풀썩 피어올랐다.

《할아버지—》

내가 발소리를 죽이고 가만가만 다가가 이렇게 부르자 령감은 쏘프린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 어린 반가운 빛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말하였다.

《시험을 잘 쳤나?》

령감은 내 대답에 대견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옆자리를 쓸어놓으며 말했다.

《여기 앉게.》

다정스레 대해주는 그 모습은 보름전 일로 하여 내 가슴을 더더욱 애틡이 꿇게 하였다. 그의 곁에 붙어앉아 나는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잘 물리나요?》

《응—오늘은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할거네.》

령감은 입귀에서 잠간 뽑은 고불통을 들고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우리 로친보다 고것들이 어죽을 남남거리며 더 잘 먹거든.》

맑은 물이 일렁이는 바위아래서 고기가 그들먹한 토색그물이 흐느적이고 강관의 금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반짝거렸다.

령감은 다리를 벌리고 편안히 앉은 자세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저도 모르게 령감의 로동화에

시선이 끌려 침묵을 지켰다.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령감의 발에 신겨진 그 신은 밀창이 닳다못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천이 퇴색할대로 퇴색되어 본래 색을 분별할수 없게 되었다.

《할아버진 그저 애들 생각밖에 없는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더 있겠나.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구? 이제 다 나라의 기둥감들이 될텐데...》

갑쇠령감의 깊은 생각을 말해주듯 고불통에서 가느다란 흰연기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이 강을 보라구, 얼마나 좋은가? 이게 바로 우리 강이거든. 》

나도 미간을 모으고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에서 눈부신 햇빛이 부서지며 아래위로 재빨리 오르내리는 물새들을 유혹하고있었다.

강 건너편 수양버들밑에는 낚시꾼들이 드문드문 앉고 그아래서 흰머리수건을 쓴 녀인들이 팔을 걸어붙이고 방치질을 해댔다. 그결에 몇달전에 무어진 협동조합의 트랙포른운전사처녀가 붉은 수건을 쓴 머리를 숙이고 저보다 큰 차바퀴를 닦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물맑고 풍년든 아름다운 내 나라  
행복의 노래 지평선 저 끝까지  
...

푸른 하늘처럼 맑고 희망찬 처녀의 목소리는 수양버들숲을 지나 넓은 물결을 넘어 너럭바위까지 흘러오며 달천강에 정답고 활기찬 정서를 덧쳐주었다.

갑쇠령감은 고불통을 든채 움직이지 않았다. 까만 얼굴의 턱아래서 수염이 날렸다. 마치 그 모습은 청맑은 처녀의 노래소리와 낚시꾼들의 한성소리, 녀인들의 빨래방치소리가 한데 어울려 흥겹게 울리는 달천강의 대 교향곡을 감상하고있는것 같았다.

나에게도 달천강의 음향과 빛갈, 움직임이 전에 없이 장쾌하게 느껴졌다. 달천강이 바로 우리 강이라고 한 령감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전에 몰랐던 다정함과 애뜻한 사랑을 감각하게 되었다.

사실 달천강은 어머니가 나를 발가숭이로 세워놓고 씻어줄 때부터 눈에 익힌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강에서 나서자란 자부와 긍지를 가슴벌게 맛보지는 못했었다.

너럭바위우에서 령감과 내가 말없이 강의 풍경에 심취되어있는데 건너편 수양버들숲에서 밀짚모자를 빼딱하니 쓴 사람 몇이 기지개를 켜며 천천히 걸어왔다. 강기슭에 다달은 그들은 자동차쥬브에 바람을 넣어 만든 고무배에 둘이 올라타고 나머지는 선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달천강의 《야심군》들이 낚시질에 성차지 않아

줄낙을 놓은것이였다.

그들이 고무배를 타고 줄낙을 걸어올리며 강관으로 나오는것을 보자 갑쇠령감은 신경이 돌아서 로동화바닥에 고불통을 털었다. 갑자기 달라진 그의 기색에 나는 눈섭을 모았다. 그들이 강변에 나타나기만 하면 령감이 이렇게 피엑스러워지는 것이였다.

《할아버지-》 하고 나는 의아스러움을 누르지 못해 그를 불렀다.

령감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낚시줄을 손질하다가 얼굴을 돌렸다.

《왜 그러나?》

《어째 저사람들만 보시면 기분이 나빠하세요?》  
《저것들은 이 강가에 있어서는 안될 족속들이야》

령감의 도고한 기상에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그건 왜요?》

갑쇠령감은 화김에 영킨 자새줄을 쳐들며 뒤말을 이었다.

《임잔 이 강이 아름답지?...하지만 저것들은 이 강을 보면서 무얼 생각하는줄 알아? 여기 고기를 다 잡아내면 돈을 얼마만치나 벌가 하는 타산을 한단말이야. 패씹한것들-저것들은 이 강을 위해서 나무 한그루 심지 않고도 공짜로 횡재할 생각만 하는것들이야. 》

갑쇠령감은 그들이 나타난것이 마치 자기에게 모욕되는 일이라기도 한듯 까부러진 수염을 부르르 떨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이 난 모습을 보지 못했던 나는 괜한 말을 했다고 후회하며 입을 봉해버렸다.

그리고는 강관으로 눈길을 돌렸다.

동그런 고무배는 서서히 움직여오는데 걸어올리는 줄낙에서는 자주 은빛고기들이 퍼들쩍거리며 요동을 쳤다. 기분이 좋아 고기를 따는 배우의 두 사나이와 먼 건너편의 누런 밀짚모자밑에서 초조히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는 사람이 나의 눈에에는 다른 고기잡이군들과 별로 차이나는데가 있는것같지 않았다.

《저 사람들을 할아버지는 어떻게 잘 아시나요?》

《어떻게 아는가구?》

령감의 눈섭이 나를 향해 쳐들려였다.

《저것들은 장사군이야. 진짜배기 낚시군은 고기를 가지구 장사를 안해. 》

갑쇠령감은 더는 말도 말라는듯이 엄지손가락이 까부라든 손에다 낚시줄을 쥐더니 낚시대를 휙- 휘둘러 멀리로 던졌다.

제자리로 내려가 낚시줄을 드리운 나는 고기배에서 고기를 따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생각하였다.

정말 저들이 달천강의 아름다움조차 볼줄 모르

며 돈계산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보다 더 너절한 인간들은 없을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아직 있다는것조차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장사coni기때문에 그런다고 한 령감의 말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장사를 한다고 다 그렇게 될가? 할아버지두 손자들이 많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아서 뭘하겠는가. 더러 팔던가 필요한 물건과 바꾸겠지... 한테 그제 왜 나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력바위쪽에서 제 혼자 중얼거리는 령감의 푸념이 들려왔다.

《한심한 일이군. 한심한 일이야. 고기씨를 다 말할 잡도리군 헛참! 언제면 저 꼴사나운것들을 보지 않게 될는지.》

그런후 한동안 잠잠하던 령감이 나한테로 얼굴을 돌렸다.

《임자 하모니카나 한번 불지.》

《하모니카 없어요.》

《어쨌나? 전번에 불던건...》

《그건 동무거예요.》

남시질 다음으로 내가 취미를 가지고있는것은 하모니카였다. 하모니카를 불줄 아는것때문에 나는 학교음악소조원이였고 하모니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으시대기도 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에겐 하모니카가 없었다. 하모니카를 사내라고 화학공장 로동자인 아버지에게 여러번 졸라 보았지만 아버지는 매번 《이놈아, 학생이면 공부나 잘할게지 하모니칸 웬놈의 하모니카냐?》 하고 욕설부터 하곤했다. 그래 가끔 한학급 동무의것을 빌려서 불었는데 그 동무란 전에 내가 물고기를 잡아준적이 있는 길건너집 아들이었다. 그 애에게는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는 형님이 생일기념으로 보내준 아주 멋진 네줄배기 하모니카가 있었다.

《허허허, 하나까 임잔 칼이 없는 장수나 마창가지군 그래.》

내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감쇠령감이 하는 소리였다. 나에게는 감쇠령감의 그 말이 골려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 은근히 약이 올랐다.

《하지만 이제 두고보라요. 내 어떻게 하나 꼭 구하고야 말겠어요.》

《어떻게?》

하지만 나는 더 대꾸를 할수 없었다. 물우에 동동 떠서 움직일줄 모르던 빨간 감부기가 골작물속으로 숨어 버린것이였다.

한해가 또 지나갔다. 장대하던 령감의 기골이 날을 따라 줄어들었고 누르끼레하게 변색한 턱수염마저 모지라지면서 끝이 고집스레 말려올라가기만 하였다.

사람에게 말년의 피벽이란 갑자기 오는것인지 령감은 길숙해지고 초췌한 꺼먼 얼굴에 전에 없던 신경질을 자주 부렸는데 내가 잡은 물고기를

놓고도 그전과 달리 어딘가 질투하는듯한 눈매로 쳐다보곤하였다.

제자인 나로서는 그가 그렇게 변해가는것이 몹시 측은하여졌다. 얼마나 정답고 사심없던 할아버지였던가! 지난 시절이 못건디게 그리웠다.

너력바위우에서 다정하게 미끼끼우는 묘리를 나에게 가르쳐주던 그 시절로 할아버지를 되돌아가게 할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것을 바쳤을것이다.

나는 될수록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종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헛수고였다. 《우정》의 올리막에는 휴식이 있지만 내리막은 쉬임도 없는 모양이였다.

까닭도 없이 점점 벌어지는것 같던 우리들사이에 급격한 분규가 일어난것은 방학이 시작된 날 내가 길건너집 동무네 어머니에게서 고기청탁을 받은후부터였다.

래달초에 수도에 있는 딸아들이 내려오는데 잉어회를 좋아하니 큼직한놈을 하나만 잡아달라고 했다. 나는 그 집 동무의 하모니카가 불쑥 생각났다.

《글쎄요. 그렇게 큰놈을 잡겠는지... 하여튼 단단히 인사할 준비나 하세요.》

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수고야 어련히 알아주지-》

그 집 어머니는 책상의 이 빼람 저 빼람을 뿔아보다가 그전부터 내가 바란 그 하모니카를 꺼냈다.

《이거면 되겠나?》

《알겠어요.》

나는 두말없이 일어났다.

언제나 령감한테 숨김이 없는 나는 이 청탁도 물론 그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늙은이의 피벽스러운 질투심이라할지 그 다음부터는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령감이 그러니, 어떤날은 진종일 나란히 앉아 남시질을 하면서도 생판모르는 사이처럼 말 한마디 건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남시질도중에 그만 미끼가 떨어졌다. 마침 령감한테 말을 걸 기회가 생긴 나는

《할아버지, 저한테 청미끼를 조금만 주세요.》 하고 청했다.

령감은 까부러진 수염끝을 쳐들고 한참 나를 내려다보다가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청미끼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줄 아니?》

나는 너무나 뜻밖인 그의 태도에 놀라 너력바위에 얼마나 사람처럼 멍청히 서있다가 빈손으로 내려오고말았다.

(청미끼가 뭐 그리 대단한게라우...)

남시군이면 모르는 사이도 나뉘쓰는 미끼를 가지고 각쟁이를 부리는 령감이 리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가 여름방학인지라 나는 집으로 달려가  
고기먹이를 넉넉히 마련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달천강으로 다시 나갔다.

새벽빛속에서 강물만 고요히 흐를뿐 물가에 비  
죽이 나간 너럭바위가 비어있었다. 며칠전부터  
신색이 말이 아니더니 갑쇠령감이 늦어지는 모양  
이었다.

제자리에 선채 잠시 강물을 지켜보던 나는 낚  
시도구들을 펼침을 못하고 어구가방만 한번 고쳐  
메었다. 그동안 이자리에서 잡어만 건졌지 잉어  
는 단 한놈도 낚지 못했던것이다. 지금처럼 날자  
만 보내다가는 건너집과의 약속이 될 우려가 있  
었다.

나는 망설이던끝에 내 자리보다 고기가 많이  
모여드는 《최갑쇠곶》인 너럭바위에 올라가 덩벙  
이줄들을 늘어놓고나서 받침대의 방울소리만 기  
다렸다.

사실 남의 자리를 타고앉는것이 낚시군의 도의  
에 어긋났지만 그때 내 사정으로써는 달리 어쩔  
수 없게 하였다.

《최갑쇠곶》이 역시 달랐다. 얼마 있지 않아  
네번째 받침대의 방울이 미미하게 움직이는 기척  
을 나타내었다. 이제는 덩벙이에 접근한놈이 점  
점 열이 올라 먹이를 파헤치며 먹어대다가 낚시  
를 삼킬때까지 인내성있게 기다리면 되었다.

볼을 한손으로 받치고 앉아 강물에 시선을 던  
진 나한테는 마치 동화에서처럼 찬란한 빛을 뿌  
리며 물위로 하모니카가 솟아오르는듯하였다.

나한테는 마치 동화에서처럼 찬란한 빛을 뿌리  
며 물위로 하모니카가 솟아오르는듯하였다.

내가 그것을 들고 음악실에 나서면 동무들이  
오구구 모여들어서 부러워할 모양까지 떠올랐다.

《어-험!》

곰같은 공상의 세계에서 헤매던 나는 문득 등  
뒤에서 들리는 마른 기침소리에 깜짝 놀랐다. 갑  
쇠령감이 분명하였다.

(이 일을 어쩔 중담?...)

나는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임자 벌써 나왔군.》

쇠령감의 석직한 음성은 그전과 달랐다. 나는  
못들은척하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등뒤에서 갑쇠령감은 성냥을 득- 그었다.

《오늘 아침 로친네가》하고 고불통을 한번 빨고  
난 령감은 혼자소리를 계속하였다. 《지난밤 꿈  
에 글썽 해가 서쪽에서 뜨는걸 봤다고 하길래 통  
을 주었더니 이런 일을 보자고 그랬구만.》

갑쇠령감은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고불통만 빠  
금빠금 빨았다. 자리를 빨리 내라는 무언의 독촉  
이었다.

《할아버지-》 나는 사정해보려고 돌아앉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그럴테니 잉어 한  
놈만 잡게 해주세요. 네?- 내가 너무 급해서 그

래요.》

《뭐가 급한가?》

입술에 조갈이 일고 얼굴의 살이 쪽 빠진 령감  
은 입귀에서 고불통을 잠간 뽑으며 물었다.

《우리 건너집 만형님이 곧 내려온다는거야 할  
아버지두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나는 줄을 거두기 너무 아쉬워 울상까지 지으  
며 말하였다. 그러자 갑쇠령감은 버럭 화를 내었  
다.

《군소리 말구 어서 썩 일어나!》 나를 쏘아보는  
령감의 눈에서 노기에 찬 퍼런 불길이 일었다.

《이 장사군같은 녀석! 그래도 사람구실을 할것  
같아서 5년철을 데리고 다녔더니 한다는 소리  
가 어찌구 어째... 뭐 청탁받아? 이...이 덜된놈!》  
갑쇠령감은 성이 너무 치받쳐서 말더듬까지 하  
였다.

《내가 한번 타일러줬으면 그따위 버릇이야 버  
려야지. 물속에다 차넣기전에 당장 걸어가지구  
냉큼... 사... 사라지지 못할가!》

령감의 푸들푸들 떠는 기상으로 보아 내가 조  
금만 지체하면 정말로 낚시들이 강물에 치박힐것  
같았다.

된옥을 먹고 너럭바위에서 쫓겨내려온 나는 먹  
이덩이를 빚으며 저도 모르게 입이 뻘로통하니  
나갔다. 《장사군》이란 더러운 이름을 받은데다  
가 낚시줄을 옮기다나니 잉어가 달아난것은 물론  
홀어진 덩벙이를 하나하나 빚지 않으면 안되었  
다.

런이어 강물에다 덩벙이를 던지던 갑쇠령감은  
벌써 줄까지 팽팽히 당겨 방울대에 걸고나서 한  
쉽쉬려는지 돛천으로 만든 접이의자에 앉아 고불  
통을 꺼냈다.

령감은 불안개가 서서히 피는 강물을 바라보며  
성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물에 사는 고기두 마음이 고와야 물리는거야!  
아까 임자 미끼를 건드린놈이 잉어지는 모르겠  
지만 여하튼 그놈두 미끼에서 다른 냄새를 맡구  
달아났거든.》

그러지 않아도 풀이나 죽을지경이던 나는 자리  
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김에 뿌리개채를 머리우  
로 어떻게나 세차게 추었던지 강북관으로 날아가  
던 동그랗고 누런 덩벙이가 여느때보다 곱절이나  
멀리가 떨어 졌다.

×

다툼 뒤끝에 낚시질이 잘되는 법이 없다. 런이  
어 며칠째 허탕을 치다나니 건너집 어머니와의  
계약을 끝내 지킬수 없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만 나는 시무룩해서 동무  
와 같이 그의 만형을 만나게 되었다. 한데 그 형  
은 러행가방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며 이렇게 말  
하였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병구완을 도왔다면서...》  
그가 내앞에 내민 번쩍거리는 물건은 내가 그처럼 부러워하던 네줄배기 멋들어진 하모니카였다.

아- 얼마나 가지고싶었던것인가!

피약벌이 내려쬐이는 강변에 쪼그리고 앉아 까닥 움직이지 않는 방울대를 지켜보며 그토록 갈망했던것이 이렇게 차례지다니...

정말 꿈같은 행운이었다. 몇해전에 동무 어머니의 입맛을 돋구려고 했던 낚시질이 오늘 이런 행복을 가져다줄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나는 그 희한한 물건을 갑쇠령감에게 한순간이라도 빨리 자랑하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장달음으로 강가에 다달은 나는 보란듯이 한곡조 불어넘기고나서 하모니카가 생기게 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자세를 천천히 감던 갑쇠령감은 놀라는 기색이란 조금도 없이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남을 위한 일은 설사 그게 사소해도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거야. 그렇지만 임자가 그전과 달라져 장사군이 돼간다는걸 알았다면 아마 그 형님이 그걸 주지 않았을거야.》

그 소리에 나는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동무 형님은 할아버지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누구나 계산은 계산대로하구 정은 정으로 갚는거야! 임잔 내 말이 듣기 싫으면 아무데나 가라구. 말리지 않을테니...》

령감은 내쪽을 거들떠도 안보며 자세만 감았다.

잠자코 있다가 나는 낚시줄을 던졌다. 그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이러던저러던 그는 나에게 낚시질을 배워준 첫, 사람이며 달천강에서 손자벌인 나를 동무로 여기며 몇년을 지내온 늙은이인것 이였다.

그래 전이나 다름없이 아래우에 나란히 앉아 여전히 낚시질을 하였으나 령감은 조금도 호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던중 두사이에 전에 없던 일이 또 생겼다.

낚시군들속에서는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인사차림을 할 때는 큼직한 잉어로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그것은 잉어의 약효나 용맹성보다 예로부터 그 고기를 두고 내려오는 여러 전설로 하여 기인된것이다.

그런데 갑쇠령감한테는 먼곳의 사둔이 그것도 대단히 오래간만에 온다는 기별이 왔고 나는 지난달에 하모니카를 준 형님이 약혼한 처녀와 잔치를 하고 둘이 함께 탄광개발지로 지원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 둘다 잉어를 낚아야 하였다.

서로 의가 깨어진 형편에 일이 그렇게 되다니 무언속에서 자연히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다.

령감은 너럭바위에 칠낙을 퍼놓았으며 그 아래 물가에는 내가 앉았다.

누치가리가 끝난후에 대낚시질을 해야 붕어, 쏘가리를 많이 잡을수 있건만 우리한테는 어획량이 문제가 아니였다. 하나 칠기아닌때에 칠낙을 하다나니 고기가 좀처럼 걸려들지 않으면서 경쟁심만 높아지게 하였다.

나는 잉어를 모여들게 하려고 단고기집에서 가져온 뼈다귀를 낚시터에 처넣었다. 최령감 역시 그전과 달랐다. 매일 저녁 령감은 자리를 뜨기전에 낚시터에 줄을 달아 처넣었던 먹이자루를 끌어내어 무엇인가 보충해 넣은후 다시 물속에 던졌다. 그리고는 언제나 일찍 나와 너럭바위에 앉아있었다. 령감은 기침을 쿨럭쿨럭하였다. 정오가 되면 줄리는지 낚시틀옆에 까부리고 누웠는데 그 모양이 마치 목적을 이루기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낚시질을 그만두지 않겠다는것을 말하는것 같았다.

하루저녁은 령감이 사라진 다음 미심결에 너럭바위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자루끈을 동여맨 돌결에 파란색의 네모진 약갑이 여러개 있었다.

(어디 편치 않아서 앉는가?...)

그전에는 령감이 아무리 아파도 강가에 나와 약을 먹은적이 없었다.

령감은 다음날 아침도 강변으로 지적지적 걸어 나왔다. 밤새 심하게 앓았는지 얼굴이 한줌만해지고 기력도 전혀 없어보였다. 그래도 너럭바위에다 낚시틀들을 주섬주섬 차려놓고 힘겹게 덤벙이를 빙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나는 그를 걱정할 계제가 못되었다. 길건너집 대사가 하루하루 박두해오는데 의연히 잉어의 빛갈도 볼수 없는것이였다. 갑쇠령감의 경우도 매일반이였다. 두사람이 다 헛수고만 하며 날자를 보내다가 드디어 잔치당일이 되였다. 대사가 두시에 시작되는만큼 내가 례의를 지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전중에 잉어를 잡아내야만 했다.

그래 나는 첫새벽부터 량미간을 잔뜩 찌프리고 나왔자 칠낙줄이 뻗어간 강판에 눈독을 들이였다.

날씨는 좋았다. 흰구름이 아름답게 비친 강물은 나에게 행운을 꼭 줄것만 같았다. 그러나 예감이란 믿을만한것이 아니였다. 정오가 거의 되어 너럭바위에서 갑자기 환성이 터졌다.

《걸렸다!》

나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강판에서 은빛줄이 끝없이 달려나가고 바위우에서는 병든 늙은이답지 않게 갑쇠령감이 자세를 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낚시줄을 끌고나가는 속도와 달아나는 거리로 보아 대단한놈이 걸렸다는것이 대뜸 알렸다. 몇순간만 그대로 지속

되면 자새줄이 글장날것 같은 판에 건너편 기슭까지 다 나가던놈이 웃쪽으로 선회하면서 뽕뽕히 씹었던 줄이 갑자기 늘어졌다. 그러다가 그놈은 무슨 의도인지 방향을 바꾸어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가며 줄을 아득히 끌고 달아났다. 강관의 낚시줄은 거대한 폭을 가지고 순간에 오르내리며 물우에서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은빛을 부서버렸다.

다른때 같으면 나는 벌써 너럭바위에 달려올라가 감쇠령감을 돕느라고 돌아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다. 한주일나마 무언의 경쟁에서 나는 패자로 되었으며 승리의 쾌감은 감쇠령감이 누리고있는것이였다. 령감이 이제 고기를 건져낸후에 나를 보며 뭐라고 말할지 벌써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대사집 만형님을 위하여던 나의 계획도 튕거나 다름없었다.

나란히 앉은 낚시군중에서 한쪽이 잉어를 전후에 다른 사람이 뒤이어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것은 먼저 걸린놈이 요동을 치는통에 근방의 고기들이 다 산지사방으로 달아나기때문이다.

이래저래 기분이 잡친 내가 공연히 낚시줄을 만지작거리고있는데 강변에서 자그마한 로친이 치마를 흔들며 령감한테로 다가와 사둔이 왔다는 것을 알렸다.

《허, 가는 날이 장날이다더니 때맞침 왔구만...》

로친을 돌려보낸 감쇠령감은 잉어가 기껏 드달려다니게 내쳐두다가 점차 줄을 당기기도 하고 다시 풀어주기도 하면서 물속놈의 맥을 뽑더니 드디어 나를 찾았다.

《여기로 좀 오게, 빨리-》

나는 너럭바위쪽을 보다가 마지못해 다가갔다.

바위에 두다리를 벌리고 선 령감은 줄을 천천히 당겨 발뿌리에 사려놓고있었다. 강관에서는 것처럼 세차던놈이 물우로 뒤흔치며 가끔 누런 배통을 드러내면서 서서히 끌려왔다. 그놈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손을 놀리는 령감도 맥이 진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담배를 한대 주게-》

령감은 등을 돌린채 《장사군》이라고 꾸짖던 일은 다 잊어먹었는지 꺼리낌없이 청하였다.

중학생인 나한테 담배가 있을터이 없다. 하지만 경우를 한두번 당하지 않았던지라 령감의 동복옆주머니에서 고불통을 꺼내여 담배를 대충 채운후 성냥을 그었다. 기분이 상했을적에는 무엇이나 안되는 법인지 들이뺨 쓰디쓴 연기가 목구멍에 걸려 재채기를 터뜨리며 눈물이 쑥-나오게 하였다.

《제길할!》

나는 불이 달린 고불통을 보며 신경질을 내다가 령감에게 내밀었다. 그전같으면 입에 물려주

었겠으나 그렇게까지 하고싶지 않았다. 령감도 내 기분을 느꼈던지 고불통을 한번 빨고나서 입귀에 드리웠다.

검스레한 무슨 통나무같은것이 바위밑에 와 꼬리를 천천히 저었다.

《임자 줄을 잡게!》

감쇠령감은 무슨 지시나 주듯이 하고나서 고불통마저 뺏어 버렸다.

줄을 쥐고선 나는 속이 까부장해서 령감의 거동을 보았다.

령감은 솜동복을 벗어버리고 낱아빠진 로동화마저 벗더니 너럭바위옆에서부터 살금살금 물을 헤가르며 대상물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나더러 잉어의 동태를 잘 살피라고 눈짓하였다.

그 찰나에 무엇이 내 손을 탁 나꾸채는 감각과 함께 한두결을 따라나아가다가 저도 모르게 줄을 놓았다. 내 손에서 휘파람소리가 날듯이 줄이 빠져나가며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는 잉어가 저앞에서 얼핏 보였다.

《아니 정신까지 팔아먹었어?》

최감쇠령감은 두다리를 물속에 박은채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어야 하였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낚시군의 사소한 불찰로 다 잡았던 고기를 놓치는 경우가 드문했던것이다.

감쇠령감은 성이 독같이 나서 고기힘을 더 빼라고 호령질을 하였다. 시중군이 되고만 나는 줄을 뽕개치고 내려가고싶었으나 차마 그럴수 없어 입을 옥물며 강관을 보았다. 그러다가 잉어란놈이 속도를 늦추는 기미가 오자 줄을 껌싸게 올리채면서 물밖으로 그놈의 주둥아리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몇번 반복해 그렇게 공기를 먹였더니 그놈은 더 늘어져서 바위밑으로 다시 끌려왔다.

물속의 잉어가 하도 큰지라 감쇠령감은 덮치려고 그러는지 두팔을 벌리며 다가갔다. 고기결에 이르른 그는 고쳐 생각하고 물속에 누우면서 그놈의 거뒸한 등허리를 밑에서부터 끌어안으며 쳐들었는데 아이 머리통보다 더 큰 잉어대가리가 령감의 가슴우로 불쑥 솟아올랐다.

《뭘 보고있어? 빨리 들어오잖구-》

급한 순간이라 이것저것 재일것 없이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채 물에 풍덩 뛰어들었다. 그리고 령감이 쳐든 잉어의 입에다 오른손을 찢러넣어 뺨건아가미쪽을 틀어쥐었다.

둘이 맞들어 잔디밭에다 내다놓으니 잉어는 그야말로 대짜였다. 손벽같은 비늘이 정교히 덮인 몸뚱이가 중뎌지만한데 기장은 내 키와 거의 맞먹었다.

《야, 참두 잘 생겼구나! 너 백넌은 살았겠다.》

감쇠령감은 풀판에 퍼더버리고 앉아 화려한 물건이 푸들쩍거리는 양을 구경하며 말로 이루 표

현할수 없는 희열에 넘쳐있었다.

《지금까지 낚시질을 해왔지만 너와 같은건 처음이구나! 아마 룡왕님이 너를 이 늙은것한테 선물로 보내줬겠지? 어디 말이나 좀 해봐라. 이 멧들어진 녀석아-》

령감은 황홀경에 잠겨 잉어가 제말을 듣기나 하는것처럼 즐거운 푸념을 계속 늘어놓았다. 그럴수록 내 심정은 점점 어두워만져갔다.

잔디밭의 잉어가 아무리 희한한것이라 해도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었다. 남이 낚은것이였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한테 청미끼 하나 주기도 아까와했고 노력바위에서 나를 쫓아낸 바로 그 최갑쇠령감의것이였다. 그래 령감은 그토록 고기를 보며 패락을 누리는데있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욕을 먹으면서 도와주었고 대사집에 가져갈 잉어도 못잡은채 빈손으로 온통 젖어 후줄근한 물골로 서있는것이였다.

나는 자신이 속매처럼 느껴졌다. 아니 바보로 여겨졌다. 그리고 여직껏 몰랐던 질투심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렇지만 어찌해볼 길이 없었다.

갑쇠령감은 잉어를 실컷 구경하고나서 커다란 보자기에다 정히 싸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를 도와왔건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만 기쁨에 싸여있는 령감을 보자니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었다.

저런 령감을 물에까지 뛰어들어 도와주다니... 후회는 막급하고 내가 머저리짓을 한것만은 분명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였다.

이제 령감이 저 잉어를 가져다 사둔과 며칠을 즐기던가 혹은 지워보낼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옷이 뭉땅 젖어가지고서 빈손으로 잔치집에 나타나야 했다. 남을 도와주고 지금까지처럼 터지는 울분을 여직껏 나는 체험한적이 없었다.

《임자, 이리 좀 오게-》

최갑쇠령감은 잉어목에다 동여낸 배낭끈을 조이며 무엇을 또 시키고싶은지 나를 불렀다.

《왜 그래요?》

그자리에 버티고선 나는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통명스레 물었다.

《이젠 그걸 집에까지 메다달랴요?》

령감과 여러해동안 낚시질하면서도 아직 입밖에 내보지 못한 야유에 찬 어조였건만 령감은 타내는 기색없이 순순히 받았다.

《논치는 있거든, 임자, 내가 너무 맥이 없어 그래.》

령감은 잉어를 동인 배낭끈을 쳐들어보이기까지 하였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는것을 느꼈다.

좋다! 내가 가져다주자. 그리고 할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자. 그러면 낚시질을 배워준 할아버지에게 빚지게 되는것도 더 없을게 아닌가?...

그래 성큼성큼 다가가 배낭끈을 둘러메었다. 잉어꼬리가 발뒤꿈치에 닿으면서 푸들거렸다. 그래도 무거운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자요!》

나는 앞장섰다. 잉어낚기에 맥이 진할대로 진해버린 령감은 뒤에서 간신히 따라오고있었다.

내 발부리에서 자갈이 튕겨나고 물이 꼴쩍거리는 젖은 신발이 모래투성으로 되였다. 나는 발이 어디 닿는지도 모르며 곧장 걸어갔다.

허연 강변끝까지 나온 나는 갈림길에서 멈춰섰다. 한참 있어서야 빈배낭만 걸넌 령감이 다가왔다.

《어느길로 가야 해요?》

나는 보기조차 싫은듯 눈길을 돌리지도 않은채 내뱉듯 물었다. 그러자 갑쇠령감은 나의 앞에 와서며 되물었다.

《임잔 대사집으루 가는 길을 모르나?》

똥판지같은 소리에 나는 약이 올라 한마디 쏘아붙였다.

《절 또 놀리세요?》

갑쇠령감은 모지라진 력수염만, 쥐어뜯으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가져가란데두! 그건 내가 임자를 위해 잡은걸세.》

그 말이 나는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병색이 짙은 갑쇠령감의 얼굴에서 눈빛만 오직 진정을 나타내고있었다. 그 눈은 나보고 낚시질친구가 되자고 하던 때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왜서인지 그 순간 갑쇠령감이 잉어를 잡으려고 약을 먹으며 마지막기력마저 깡그리 바치던 나날들이 떠오르며 나를 목이 메게 하였다.

《할아버지네 집일은 어... 어떻게 하구요?》

《임자마음이 얼마나 고와, 이웃사람들을 위하여는 그 마음이 말이네, 우리 사둔님두 좋아할거야-》

갑쇠령감은 내 어깨우에 손을 다정히 올려놓고 한동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젠 내가 달천강에 다시 나올것 같지 못해. 단지 부탁하구싶은건 사람이 사심을 앞세우면 남을 위해 아무것도 못해. 장사군밖에 되지 못하지. 허나 사심이 없으면 술한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그런 일도 할수 있지. 보람두 크구. 그전에 임자가 동무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그일만 보라구. 그러잖나? ... 잘 가라구.》

갑쇠령감의 진정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 눈물속에서도 밀짚모자를 쓰고 거들먹대던 《장사군》들이 보였으며 갑쇠령감과 지낸 나날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떠올랐다.

《임자- 큰 사람이 되게.》

령감은 내 손에 어구가방을 쥐여준후 훌쩍한 배낭만 메고 지척지척 걸어갔다. 그의 걸음새는 아침과도 또 달랐다.

나는 령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

그후 령감은 정말로 달천강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나 저체나 하고 매일같이 기다리던 나는 어느날 다래끼에 고기를 채워가지고 시내변 두리의 유치원옆에 있는 그의 집을 겨우 찾아냈

다.

하지만 갑쇠령감을 다시 볼수는 없었다. 얼마 전에 령감은 그만 세상을 떠났던것이였다. 결국 너럭바위에서 나를 위해 잉어를 잡은것이 갑쇠령감의 마지막 낚시질이였다.

그 집의 로친은 령감이 돌아가던 애기를 한후에 한숨을 쉬고나서 옷방으로 올라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돌아가시기 앞서 우리 령감이 이런 부탁을 하셨다오. 만약 자기가 죽은후에 임자가 찾아오면 이걸 주라구 말이우.》

내앞에는 감자주색으로 대우가 난 참대낚시대 한틀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최령감이 처음으로 미끼치우는 법을 가르쳐주던 바로 그 낚시대였다.

침묵속에서 그 낚시대는 아픈 추억들을 불러왔다.

이윽고 로친은 고기다래끼를 들어 나에게 주며 말하는것이였다.

《이건 임자가 저 유치원식당에 가져다 주라구. 우리 령감이 늘 그랬다우. 직장에 못나가게 되니 낚시질을 해선 그 애들에게 먹이는걸 락으

로 여겼지. 그 애들이 잘 자라야 나라가 흥한다면서...우리 령감이 그런 령감이였다우. 유치원에 같이가세.》

코허리가 찡-저러오며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었다. 그러니 갑쇠아바이가 많다고 한 손자들이란 바로 저 유치원아이들이였구나! ...

갑쇠령감의 로친을 보자 유치원마당에서 놀던 꼬마들이 좋아라 웃으며 달려왔다. 하나같이 귀엽고 복스러운 얼굴들은 불현듯 갑쇠령감의 낡아 빠진 로동화를 상기시켜주었다. 령감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새 신발 하나 안 사신으면서 아이들에게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것이였다. 그들이 자라서 그의 수고를 모를수도 있다.

하지만 갑쇠령감이 바라던대로 그들은 반드시 나라의 튼튼한 기둥감들로 성장할것이였다. ...

지금도 최갑쇠령감이 남긴 감붉은 낚시대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한구석이라도 어지러워지는것 같을 때, 사람들을 위해 그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할적에 나는 소중히 보관한 그 낚시대를 가지고 대동강으로 나간다.

## 탄전의 발파소리

한기운

쿵 쿵쿵  
또 한차례  
온 탄전을 흔들며 흔들며  
웅글게 여문 발파소리

무심히 들을수 없구나  
저탄장에  
콘베아 타고 끝없이 흘러나오는  
석탄의 그 한끝을 안고  
올려오는 저 소리

아, 천길 막장  
그 어느 편도에서  
우리 중대 탄부들이 올라가는  
새 년대  
충성의 메아리인가

막장마다 넘쳐넘쳐  
저탄장마다 흘러흘러  
탄전의 하늘가에  
석탄을 쌓아가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억만 산악을 흔들며  
억년 살진 새 탄맥을 안고  
새 진군길에 오른  
탄부의 걸음걸음이여

90년대  
새로운 비약의 나래 펼친 조국  
크고작은 마을에서  
크고작은 공장까지  
그 숨결 나날이 석탄으로 시작되거니

아, 캐는 탄으로  
아버이수령님 뜻을 받들며  
캐는 탄으로  
우리 당의 사랑 더 알았기에

저 천길막장 탄발에  
내 삶의 뿌리 내리고  
저 발파소리로  
내 한생을 다짐해

탄부, 나는 말로 하지 않노라  
기다리는 탄을 더 캐고싶어  
바라는 탄을 더 주고싶어  
땅밑에서 올라가는 저 한소리에  
조국을 받드는 마음 다 맡겼나니

아, 발파소리  
탄전의 발파소리는  
탄부의 꿈이 땅우에 꽃피는 소리!  
온 조국이  
언제나 크게 듣고싶어하는 소리!



## 축전의 노래

허수산

### 봉화

봉화는  
그 어느 시대에도 지켰다  
봉화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타올랐다  
하건만 여기 나의 평양  
5월 1일경기장에서 타오른 봉화  
역사적인 평양축전개막을 알리며  
누리를 밝히며 타올랐던 봉화여!

어찌하여  
만사람의 심금 것처럼 울렀거나  
어찌하여 봉화에 대한  
세계의 환희 것처럼 컸던가

아, 감격의 그날은 흘러갔어도  
오늘도 사라질줄 모르는 그 불길  
봉화를 우러러 이처럼 열광을 터치던  
잊을수 없는 세계의 얼굴들이여!

그대들 그 어디에 가서도  
잊지 못하는 그 봉화  
그처럼 컸던 환희  
어디에서 솟음친것이더냐

바로 타올라야 할 땅에서

쳐들어야 할 사람들이  
창공높이 하늘높이  
쳐들었기때문 아니냐

언제나 세계의 참된 평화를 위해  
투쟁의 길 앞장서 걷는  
주체의 조국 혁명전사들이  
투쟁의 상징으로 높이 쳐들었기때문 아니냐

아, 그것이여라 그것이여라  
그대들의 미래도 행복도 함께 비긴 봉화  
그것을 억세게 틀어잡고 나아가는  
평화의 기수 조선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여라  
봉화에 대한 전세계의 이처럼 큰 환희는...

오늘도 봉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차게 타오르노라  
잊지 못할 그날을 불러내며  
봉화대는 내려지지 않았노라

그대들의 믿음과 환희에 화답하여  
오늘도 세차게 불길을 지피노라  
전세계의 참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영원히 투쟁의 불길을 끄지 않으리

## 휘날리는 기발

휘날리며 높이 휘날리며  
5월 1 일경기장에 들어서는데  
세계의 기발들  
세계각국의 기발들

저 기발들이  
여기에 들어서기까지  
그 경로와  
그 력사가 서로 다르듯이 -

반제, 친선, 평화의 리념 밑에  
모두가 한지붕아래 들어서건만  
어찌하여 어떤 나라 기발은  
저리도 당당하게 휘날리느냐

비록 력토는 작고  
인구는 많지 않아도  
어떤 나라 기발은

온 장내의 환호속에 싸이누나

오, 진정 세계의 참다운 평화를 위해  
정의와 자주의 길 걷는 나라들은  
비록 력토는 작고 인구는 많지 않아도  
세계앞에 뽕뽕하구나 당당하구나

그렇다! 기발들이여!  
그대 세계앞에 당당히 휘날리려거든  
그 기록에 가장 숭고한 리념을 물들이라  
세계 평화와 인류에 기여한  
그 깨끗한 량심의 뭉을 새기라! ...

나는 보노라! 세계의 창공에  
언제나 뽕뽕이 휘날릴 조국의 기발을  
언제나 긍지높은 민족으로  
아, 세계앞에 당당한 내 조국의 모습을!

## 추억의 노래

먼 후날에도  
추억의 노래를 부르라면  
그날의 노래를 부르리라  
축전의 그날을 노래하리라

우리 나라 반만년 력사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 력사에서  
그처럼 빛나는 장을 기록한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어!

어찌 잊으랴  
봉화가 타오를 때  
그처럼 기쁘고 희망에 넘쳐  
발을 구르며 눈물흘리던  
그 모습들을

나서 처음 보는  
축전의 개폐막 순간을  
그처럼 신비롭고  
그처럼 황홀하여  
넋을 잃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여!

축전의 막은 내렸어도  
솟아오르는 축포꽃을 보며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  
이 땅을 떠나기 아쉬워  
대동강반에서 밝히던 그밤이어! ...

참으로 뜻깊은  
큰 잔치의 나날이었다  
세계가 한데 어울린  
참다운 명절의 나날이었다

그 나날  
우리는 심장으로 느꼈다  
전쟁과 침략이 없는 세계에서  
세계가 형제처럼 모여사는것이  
얼마나 좋은것인가를

그리고 그 나날에  
우리의 보람과 긍지는 얼마나 컸던가  
우리 힘들게  
건설의 나날을 거쳐왔어도

그로 하여 세계에 더욱 빛나던  
주체조선의 위용이어!  
하늘에 닿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영예여!

아, 우리 수령님 모시고  
우리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못할 일 없고  
우리 조국과 세계의 미래앞에  
더욱 좋은 날이 온다는것을  
심장으로 깨치게 한 나날들이여!

그것이였다! 평양축전이어  
세계가 바라는 평화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준 그 나날이였다  
력사에 길이 남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어!

영원히 기쁨을 주고  
영원리 즐거움을 주는  
투쟁의 노래로 될  
추억의 노래로 될!

## 가사

## 인생과 량심

### 신지락

량심이여 량심이여 네 모습 보여다오  
샘물처럼 맑다더냐 눈처럼 희더냐  
아 심장속에 깃들어 볼수 없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한다네

량심이여 량심이여 네 진정 무엇이나  
천만금에 너를 팔라 명예와 바꾸랴

아 목숨이 하나라면 량심도 하나  
열백번 죽는데도 버릴수 없네

량심이여 량심이여 내 삶의 넋이어  
너를 지너 나의 인생 별처럼 빛나라  
아 티없이 깨끗한 전사의 량심  
언제나 당을 위해 바쳐가리라

## 한 전우를 생각하며

정창윤

나는 언제나 빗진 사람의 심정으로 살고있다. 그것은 내가 쓰려고 마음먹었던 글들을 쓰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책의 감정이기도 하다.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이 빗들을 갚을수 있으려니 믿었던 믿음 역시 헛된것이였다. 물론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나의 작가적무재와 시간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내 책상우에서 떠나간 때가 있어보지 못했다는 사정 등등이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자신이 약속을 어긴데 대한 비난에 대한 발뺌이나 할수있는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것은 나에게 신의가 없고 성실성이 없는데 있다. 내가 꼭 소설의 주인공으로 형상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간고한 전쟁의 날들이나 평범한 보통로동일에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 혁명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떠민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로 보나 우리들에게 모범이였던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지 못한것은 작가 된 나로서는 용서받을수 없는 일이다.

오늘 막상 자기비판과 같은 말을 하면서 내가 쓰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처음으로 마음먹었던 어느 한 병사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나는 모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 다.》**

불길과 포연, 전선도로에 끝없이 잇닿아있던 땅크중대들, 포차들, 그 량옆으로 늘어섰던 보병들의 행군대렬... 그 대렬속에 우리 소대의 잔소리 많은 아바이가 큼직한 배낭을 지고 걸고있다. 그는 배낭의 무게때문에 걸음을 옮기는데 힘들어 한다. 종종 련대장이 그의 걸을 지날 때면 차를 세우곤하였다.

《또 배낭이 커졌구만. 그걸 여기에 실소.》

항일혁명투사인 련대장은 우리 소대 아바이의 배낭을 자기 차에 실어주었다.

《먼저것들도 평양으로 실어보내 든든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겠소. 전쟁이 끝나면 거기 가서 찾아가란말이요》

련대장은 큰 소리로 작별인사를 하고는 떠나갔다.

병사 리완식, 38세... 구레나룻 수염투성이의 길죽한 얼굴이다. 웃을 때면 눈은 가늘어지다가 아예 없어지곤하는 사람이다. 이 아바이병사의

입대전 직업은 기계수리공이다. 그가 모르는 기계내막이란 없었다. 이름난 기계수리공이여서 이 공장 저공장 초청되여다니면서 일할 때도 많았다고 한다.

전쟁은 이 유명한 수리공이 군복을 입도록 하였고 우리 소대의 좌상으로서 《아바이》란 말을 듣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종종 규률을 위반하였다. 그 규률 위반은 그의 배낭과 관계되였다. 그는 자기 배낭속에 쇠덩이들을 넣곤하였다. 전쟁통에 땅바닥에 흩어져 버림을 받는 각종 기계의 나사며 부속이며 베어링이며 공구같은것이였다. 포연이 날아가고 남아왔으며 머리우에선 적 비행편대가 줄폭탄을 쏟아붓는 때에 이런것들을 수집하여 배낭속에 넣고라고 행군대렬에서 떨어지는 병사가 있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로 해서 소대장인 나는 중대장에게 호출되여가곤하였다.

《동문 지휘관이요 뭐요? 대렬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지휘관이 무슨 지휘관인가말이요?》

《...》

중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나는 침묵속에 서있어야 하였다. 전쟁전 군관학교 최우등졸업생인 중대장은 병사의 배낭속에 공급한 물건외에 그 어떤것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범적요구를 한발자욱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학생출신의 병사들 배낭속에 있는 외국어사전까지 시비하곤하였다.

《나는 상급에 제기해서 병사 리완식을 사단수리소에 보낼 결심이요. 동문 다른 의견이 없소?》

《그 동문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요구겠지. 전시에 본인의 요구란 뭐요? 필요하다면 가는거지, 하긴 <인정> 무른 소대장결이야 떠나기 싫을테지...》

모욕감을 느꼈으나 꼭 참으며 나의 의사를 표명했다.

《리완식동무는 1 선소대에서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복무할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의 행동에 짐이 되지 말아야 될것 아니요. 전쟁판에 나사못따위가 뭐요? 그 동무를 사단수리소로 보내려는 나의 결심은 확고하오.》

허지만 이 엄격한 중대장의 결심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실현될수 없었다.

련대장이 1 선소대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병사 리완식의 청원을 들어주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문에 소대가 집단체제를 받게 될

때면 병사들은 맞대놓고 은근히 불만을 터뜨렸다.

《아바이, 이걸 너무하지 않아요? 생명을 내대면서까지 나사들거나 베아링따위를 얻는다는게… 명령이라면 몰라두.》

《굴세말이요. 공장들이 소개가면서 던진것들인데 그런걸 줏노라고 규률위반을 하다니…》

그러면 소대의 《아바이》는 한참이나 말없이 앉았다가 웅심깊은 어조로 입을 열곤하였다.

《동무들한테 참 미안하네. 하지만 생각 좀 해보게. 임자들은 밤낮 전쟁만 하겠나. 농사꾼들이 종자만은 벤채로 굶어죽는다는걸 알겠지. 나는 기계수리공이야. 진짜 기계수리공들은 죽으면서도 부속들과 공구들은 몸에서 떼지 않는단말이야. 전쟁이 끝나보라구. 그 즉시부터 이 나사들과 베아링때문에 떠들어떨걸세. 허지만 당장은 그런것들을 만들어낼수 없단말일세. 왜놈들이 달아날 때 마사놓고간 공장들을 복구하던 때 우리 기계수리공들의 제일 큰 애로가 뭇이였는지 아나. 그건 바로 이런것들을 구할수 없었던거야. 그때 우리 공장들은 베아링 하나가 없어서 돌지 못했어.》

우리 전쟁은 승리한거나 같애. 승리한 땅을 우리 손으로 일떠세워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해야 돼.

누가 이런걸 척척 대주지는 않을게란 말이야!》

《아바이》의 제나름의 이 《철학》엔 누구하나 웅대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낙관, 그의 열렬한 조국애에 감심했을뿐이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이따금씩 비방울이 떨어지는 가을날이었다. 그때 우리련대는 련흥지구방어전을 하고있었다. 병사들로부터 지휘관들에 이르기까지 한몫몫쳐 련흥시가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밑에서 싸우고있었다. 우리중대가 전개하였던 방어구역은 화학공장구내였다. 전쟁전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련흥화학공장은 자강도쪽으로 소개한 뒤끝이어서 공장의 심장부를 이루고있던 중요설비들은 남은것이 없었다. 공장엔 싸늘하게 식어 버린 크고작은 관들만이 남아있었다.

구내상공에도 판이고 건물들의 허리를 감고있는것도 판이었다. 어떤 건물은 관들이 몇겹으로 휘감고있었다. 적들의 포탄들이 날아와서 터질 때마다 이 관들은 뭉청뭉청 잘리워 땅바닥에 떨어졌다.

적들은 비행기와 포로써 맹폭격을 퍼부으며 공격은 서두르지 않았다. 함부로 시가돌입을 했다가는 참패하리라는 공포가 놈들을 주저하도록 한듯하였다. 그리하여 련흥시가 방어전은 아직 외부지대에서의 총격전 정도이고 중심에서의 피투성이 육박전같은건 없었다. 이러한 때에 대대들엔 시가를 비우고 3 킬로미터 후방에 위치한 500

고지인 류배산으로 이동전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무엇때문에 전투없이 련흥시가를 내놓고

물러서는지 우리들중 아는 사람이란 없었다. 상급참모부의 명령인지 아니면 련대장의 단독결심인지 그조차 알수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명령대로 시내에서 빠져나와 류배산에 올랐다. 소나무가 성글게 선 고지 중턱에서 우리 중대는 인원점검을 하였는데 그때 병사 리완식이 없다는것이 알려졌다. 중대장의 눈빛이 또다시 차지더니 신경질적인 욕설이 터져나왔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오시오.》

중대장은 얼음같은 소리를 내뿜고는 2소대구간 쪽으로 가버리다. 얼마후엔 날이 밝을것이였다.

나는 철수하여온 련흥시가쪽을 내려다보면서 한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적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련대가 시가를 비우고 류배산으로 옮겼다는것을 몰랐던지, 알면서도 또 다른 위장전술에 걸려들가봐 겁났던지 시가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때 내곁에 서있던 1분대 병사가 한마디 귀뜸해주었다.

《아바인 풀떼기들을 뜯고있을겁니다.》

《뭘요? 풀떼기…》

나는 풀떼기가 어떤건지 알지 못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까 전투짬에 <아바인> 풀떼기들을 여러개 보았는데 그걸 모조리 뜯어가지고 가야겠다고 말을 하더랬습니다.》

나는 풀떼기가 어떤건지 몰랐으나 적들이 뒤따라 달려들 시각에 그가 남아있다는것이 몹시 불안하였다. 그래서 그 1분대 병사와 함께 시내로 다시 내려갔다. 1분대 병사의 말은 진실이였다. 《아바이》는 인적이 하나없는 화학공장구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배당에 집어넣고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있소?》

나는 좀 성난 어조로 말하였다.

그는 나를 보자 어쭙은 미소를 짓더니

《소대장동무요. 이걸 좀 보시오. 풀떼기를 여러개 얻었습니다.》

라고 하며 풀떼기라고 하는것을 내 눈앞으로 가져왔다. 나는 희미한 새벽빛에 그가 손에 들고있는 각이한 규격의 풀떼기들을 보았다.

나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이나 말을 못했다.

《이게 아무리 중하면 생명보다 더 중한가요. 적들이 방금 문밖에 다가왔는데…》

《소대장동문 아직 잘 모르는군요. 화학공장설비들중에서 이걸 첫째로 귀중한거지요. 전쟁이 끝나면 외화를 주고 사와야 한단말이요. 이제는 거의다 뺏습니다.》

그때까지 시가에는 척후대정도의 적들만이 들어왔을뿐이였다.

우리는 무사히 시내를 빠져서 류배산까지 갈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전쟁도 끝나고 폐허로 된 조국은 복구건설로 들끓었다.

군복을 벗고 신문사에서 일하던 나는 련흥화학공장이 복구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때 그 기사를 쓰기 위하여 련흥에 갔다온 기자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한 제대군인 수리공이 많은 풀때기를 가지고 왔었기때문에 련흥화학공장을 복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제대군인 수리공의 이름을 기억하는가요?》

그 기자는 취재수첩을 뒤적인후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리완식입니다.》

나는 환성을 지르다싶이 기뻐하며 물었다.

《그 수리공이 지금도 그 공장에 있던가요?》

《공장이 복구되자 판데로 갔다고 합니다. 아직 채 복구되지 못한 공장으로요.》

병사 리완식의 소식을 듣게 된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지금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믿는다. 전쟁의 가련한 나날에 자기의 직분을 지켜 묵묵히 조국을 받든것처럼 오늘도 역시 조국을 위하여 보람있는 투쟁의 길을 걸으리라...

나는 좀더 세월이 흘러가기전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전우를 원형으로 하여 독자들로부터 애독되는 작품을 쓰려고 한다.

## 고향의 언덕우에서

박래설

쏟아지는 햇빛에 넘실거리며  
별 아득히 노래소리 웃음소리 흐르누나  
잘 있었느냐, 꿈결에도 나를 불러  
저 개울가에 세워주던 고향아

마을도 집도 몰라보게 달라진  
동구밖 길센에서  
나를 손짓해 부르며  
그 무슨 이야기 속삭여주는것만 같구나  
한그루 느티나무여

웅이진 해묵은 밭등을 드러내며  
설레는 잎새마다  
하많은 사연을 이야기하는듯  
고향이며 말없는 너의 저 언덕에 들에  
얼마나 무서운 고난의 력사가 흘렀느냐

포화에 불타던 마을  
어스름저녁 맥밭의 늙은이들마저  
밀려든 원썬들의 총칼에 등을 찔리우며  
저 밭고랑우를 맨발로 걸어갔더라  
땅을 지켜 고향마을 지켜 아이어른없이  
싸우다 쓰러지며 피투성이 된 옷바람으로  
쇠바줄에 묶이워 사형장으로 끌려갔더라

나서자란 정든 산천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장군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간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뿌린 피  
이랑마다 스며  
저 푸르른 벼포기 되어  
설레며 달려오는가

아, 오늘은 그우로  
그들의 아들딸들이 프락또르 몰아가고  
그들의 귀여운 손녀가  
모내는 기계 운전대에 앉아  
벌을 누비며 푸른 옷을 입혀가누나

그 누가 농고간것인가  
마주보이는 저 산언덕  
렬사묘지우에  
붉게 타는 한송이 꽃묵음은

못다 이룬 부모들의 소원  
못다 갚은 그날의 그 원썬들  
가슴에 새겨안고  
조용히 농고간 꽃다발우에  
서리는 정적을 흔들며  
산굽이마다 메아리치는 프락또르의 발동소리

오 고향이며  
수난에 찼던 모진 력사우에  
락원의 모습을 안고  
어머니의 미소로 바라보는 내 태어난 땅이며  
내 너를 찾아왔노라

어데 가서도 너를 안고 살기에!  
너를 지켜간 넋이 나를 부르고있어  
비 오나 눈이 오나  
사랑과 증오 한가슴에 안고  
말없이 땅을 가꾸며 조국을 섬겨가는  
내 사랑하는 어질고 성실한 사람들 여기  
있기에...

## 강선로동계급의 뜨거운 충정에 대한 개성적인 시형상

-서정시 《흰눈》에 대하여-

송경희

정갈하고도 정교한 서정시 한편이 여기에 있다.

희다는 형용구로 눈을 규정한 시제목으로 하여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표상도 깨끗해보이는 시 《흰눈》(조선문학 1989년 2호 백의선)이다.

어느때 내린 눈에서 언제 시상이 발상된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인의 시적발견의 구체적인 생활적동기와 계기도, 그리고 시적대상을 느끼고있는 장소도 밝혀지지 않은 시다.

그런들 어떠랴. 이 시의 경우 그런것에 무관해도 좋을것이다.

언제 내린 눈인가에 관계없이 강선에 내리는 눈만 보면 수령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린 눈이 생각된다는 내용의 시다.

수령님께서 강선에 오셨던 때가 12월이어서 그 눈은 시에서 《12월의 흰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시인은 그 눈에 대한 주정을 편다.

가볍지 않아라  
강선의 흰눈은  
그 어느때 내려도  
강선의 눈은  
12월의 흰눈

어느때 내린 눈이건간에 강선의 눈은 《12월의 흰눈》이라고 느끼는 사색 바로 여기에 시의 생활적바탕과 시가 있다. 그래서 《12월의 흰눈》은 이 시의 종자라고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은유적인 상징적뜻을 가진 성구라고 할 정도로 뜻이 굳혀진 말로 시에 올라있다.

《12월의 흰눈》! 이 말의 내용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어렵던 시기에 눈내리는 겨울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선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강재 1만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런데 그날에 강선에 내리는 눈이 수령님의 어깨우에 내려쌓이지 않았던가.

불을 다스려 쇠를 녹이는  
용해공들의 불가슴에  
때없이 무거이  
쌓이는 흰눈

강철로 수령님을  
옹위하는 용해공들이  
가벼운 그 흰눈은  
막아드리지 못하였던가

허리를 못편 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아버이수령님  
저 구내길에서 맞으시던  
그날의 흰눈

강철로 수령님을 옹위할 강철전사들인데 그렇듯 가벼운 눈을 막아드리지 못하여 그이의 신상에 내려덮이게 한 그 《죄의식》을 절감하는 충격적인 주정이 절절하게 울린다.

이 강산에 흰눈이  
아무리 많이 내렸단들  
수령님의 가슴속 그 무거운 심려처럼  
쌓이고 쌓였으랴

강산에 내린 눈이 많이 내려쌓였단들 수령님의 가슴에 쌓아진 심려처럼 쌓이고 쌓였으라는 범상한 눈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뜨거운 걱정 of 절절한 메아리는 수령님께 충정을 다하려는 량심과 의리의 걱정으로 사람들을 깊은 사색에 잠겨들게 한다. 말하자면 시적대상인 《12월의 흰눈》은 깊은 뜻을 가진것으로 하여 심오한 철학적인미를 안고 심금을 울려준다.

수령님과 전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의리의 정서를 시형상으로 깊이있게 훌륭히 그려낸 여가에 이 시의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들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정시 《흰눈》은 사색의 깊이가 있는 시다.

이 시의 사색의 깊이는 범상한 눈으로부터 《12월의 흰눈》에로 사색을 심화시켜 들어간데 있다.

물론 서정시는 현실에서 체험한 사색의 과정을 통채로 담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정서로 무르익혀진 사색만을 담아야 한다. 정서로 승화시키지 못한 사색은 시 이전의 사유행위일따름이다. 그래서 서정시는 사색의 정화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서정시 《흰눈》에서 시인이 그 어느때 내려도 강선의 눈은 《12월의 흰눈》이라고 보아진것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진 우발적인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깊이 걱정해온 서정적주인공의 사색과정을 총화해본끝에 느껴진 강선의 눈에 대한 정화적인 뜻의 상징이다. 그러기때문에 이 시에서 《12월의 흰눈》은 시적대상이면서 또한 시의 핵이다.

시는 이렇듯 사색과정의 이러저러한 정서를 하나의 서정으로 정화해서 펼쳐었다. 서정시란 정서로 승화시키기전 사색과정에 실려진 현상적인 집합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시인의 심장에 려과되어 시인의 사상에 용해된 정서의 산화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만약 이시에 처음부터 강선땅에서 체험된 이여의 현상들을 시인의 심장에 받아들여 주정화하지 않고 현상적인것을 그대로 펼쳐놓았다면 이른바 《사건시》와 같은 저조한 시로 되었지 본연의 서정시다운 훌륭한 시로는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시인 서정적주인공이 강선땅을 걸어간다. 눈이 내린다. 어깨에 쌓인다. 무겁게만 느껴진다. 수령님께서 강선에 오시던 날의 그 눈은 아닌가.

그날에 수령님 신상에 쌓이는 눈을 왜 막아드리지 못하였던가.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는 흰눈이로구나!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강재를 더 많

이 뽑아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이 그날에 못막아드린 심려의 눈을 막아드리는것으로 될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시적구도도 없이 또한 시인의 환상적인 사색도 없이 그저 정황과 사건, 시적내용을 서사적으로 펼쳐놓고있는 시들을 과연 서정시라 말할수 있겠는가. 주정화되지 못한 이런 시에 대하여 말하는것이 상식밖의 일이라고 하겠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시가 시문단에 더러 나타나 군 한다.

정황이나 사건, 그리고 시적인 내용을 서사적으로 펼쳐보이려는 창작태도로는 참된 서정시를 창작해낼수 없다.

현상이나 사건이 진행되는 경로에 서정이 묻혀버리고만 시는 참다운 서정시라고 말할수 없다.

그런 시는 감각적표상은 느낄수 있으나 정서감은 느낄수 없다.

시는 몸에 느껴지는것이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것이여야 참다운 시다.

서정시 《흰눈》은 지형식면에서도 류사성을 극복한 생동한 시로서 특색있는 성과작이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강선땅을, 강선의 쇠물과 노을, 그리고 눈을 노래하였던가.

강선을 노래한 시들은 많으나 새로운 발견이 있는 시들이 적다. 시형식에서도 개성적인 문제가 느껴지는 시들이 적다.

강선을 노래한 일부 시들에서 우리 시인들은 사상정서적내용과 형식을 이채롭게 둔군다는것이 고작 강선의 눈이나 쇠물 그리고 노을을 《붉은》이라는 형용적인 규정으로 표현하는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들에 대한 깊은 시적탐구를 하지 못하고말았다. 물론 그 정도의 표현도 일정하게 내용과 형식을 둔굴수 있다.

그러나 서정시는 충분한 사색끝에 이루어지는 정서와 시문제, 하나하나의 어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적탐구가 있는것이라야 훌륭한 시로 될수있다.

시란 다른 종류의 문학보다도 류달리 정서가 깊고 형상성이 깊어야 한다. 그런 시일 때 시고유의 개성적특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서정이 석연하게 표현될수 있다.

서정시의 정서가 깊고 형상성이 류달리 깊어야 하는것은 그릇이 작은 서정시의 체적에다 크나큰 뜻을 담아야 하는 사정이기때문이다.

어떤 시들을 보면 정서가 함축되어 집약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서술식으로 내용을 펼치고있는 시들이 있다.

그러나 서정시 《흰눈》은 그런 안일한 창작태도로 써낸 시가 아니라고 본다. 이 시에는 주정이 함축되고 집약화되어있어 짙은 농도로 서정이 담겨져있다. 산문적인 표현으로 체모와 체질을 흐리게 한 서정시답지 않은 허실점이 없다.

이 시가 들어있는 시초의 시들중에서 《흰눈》이 특별히 좋게 느껴지는것은 시의 뜻을 여운있게 살리고있음으로써 시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서정시답게 일반화한것이다. 이것은 이 시가 이룩한 또하나의 성과라고 본다.

일만톤이라 천만톤이라  
그날부터 조국에 바친 강철은  
마음속에 가벼워도  
가벼운 흰눈은  
오늘도 무겁게  
내리고  
내리어 ...

수령님께서 맞으신 눈을 생각하면 일만톤이라 천만톤이라 지난날에 생산한 강철이 가볍게 느껴지는 반면에 가벼운 흰눈은 오늘도 무겁게만 느껴져 내리고 내린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마음에 이 시의 사상의 일반화가 있다. 그 일반화된 사상이 강선로동계급의 충정인것이다.

서정시에서 사상의 일반화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

서정시의 사상의 일반화가 직설적으로 표현되면 서정이 여운있게 울리는 지속감을 잃게 된다. 서정이 금선으로 여운있게 울려져야 사람들에게 시의 사상이 오래 남는다.

시와 여운은 시전체에 흐르는 정서의 파동에 의하여 생긴다. 정서의 파동이 거침없을 때 여운은 그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울린다.

정서의 파동은 감격적인 시적대상이 안고있는 내용에 크게 관계되지만 대체로 시의 운률에도 많이 관계된다. 운률이 잘 이루어지는 시는 정서의 파동이 생겨 서정이 흘러넘치게 된다.

서정시 《흰눈》은 운률조성에서도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 시다.

시는 《흰눈》이라는 단어에 력점을 두고 운률을 살려나갔다. 매 련에 놓여진 《흰눈》을 기둥으로 삼고 시의 련과 련을 련결하는 톨다리를 세

워놓은격인데 세워진 그 다리로 정서의 운률자국을 짚어나갔다. 그리하여 시의 내용에 따른 일정한 운률성의 호흡량에 무리 안가게 깊어지는 이 운률의 다리를 타고 시의 정서는 거침없이 흘러 마감련의 끝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운률의 종지부를 찍을수 없었다. 그것은 시가 안고있는 뜻(서정)이 너무도 깊고 절절한것이어서 그 뜻을 실은 운률의 여운을 금선으로 더 오래 물려지게 해야 하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시인은 마감련의 끝에 미끄럼감각을 주는 《내리고》, 《내리어...》와 같은 시어를 줄지어 놓음으로써 여운의 항시적인 지속감을 주게 하여 시의운률을 훌륭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서정시 《흰눈》은 이처럼 내용에서나 형식에서 특별히 나무랄것이 없다. 시는 하나의 조각상처럼 정교하다.

서정시 《흰눈》은 시초 《나는 백양나무아래서 자랐다》에 들어있는 다섯편중의 한편이다.

시초에 들어있는 편편의 시모두가 좋게 읽히워지는 시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 시들에는 크지 않은 한두개쯤의 허상적인 그늘을 주는 미진한 점들을 남기고있지만 《흰눈》은 한뜸의 허실한 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끔하다. 이 시에는 현란한 시어나 화려하게 꾸며진 시문장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시는 훌륭하게 느껴진다.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정시란 어쩌해서 좋다고 한마디로 찍어 말하기는 힘드나 이상스러울정도로 시의 모든것이 수려한 산림이나 봄날의 신기루마냥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신비롭게 여겨지는것이라야 훌륭한 시가 아닐가?...

사실 시의 우월은 한두개의 시어나 문장보다도 체험된 시적인 내용을 심장속에 달쿠어 생명체와 같은것으로 만들었는가 못만들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서정시 《흰눈》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정에 대한 개성적인 생동한 시다. 시는 정화수처럼 깨끗하고 맑은것으로 하여 우리 시문학을 아름답게 장식할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시를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조국과 탄부 외 1편

황승명

팔 벌려 안아주는 어머니 품 같아  
한밤중에도 막장에 달려와  
탄벽을 더듬네  
젖품을 찾는 애기처럼

어디에 있느냐  
기름진 탄발은  
굴진과 발파로 지심을 흔들며  
보채던 이 마음

맞서는 암반에 정날이 튀어나고  
석수가 앞을 가려도  
몰려서지 않았네  
그 성미를 알기에

값진 그만큼  
깊숙이 묻어두고  
누구에겐나 수월히 내맡길 수 없는

공업의 식량—《검은금》이거니

꾸짖어도 때려도  
매여달리는 애기처럼  
그 품에 파고들며  
높뛰던 심장이여

작맥의 크나큰 기쁨을 안고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나는 알았네  
조국이 과연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를

따뜻이 품에 안아 젖을 물린 듯  
천길 땅속에 가슴을 맞대인  
조국과 탄부는  
순간도 떨어져살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이여라

## 길조차 헛갈렸네

동발목도 낮익고  
침목도 발에 익어  
씨엥씨엥 앞서가면 걸음  
또다시 멈추었네

비좁은 외통길에서 헤매이던  
어제날의 마구리는 어디로 가고  
울리굴이 뻗었느냐

또 한굽이 돌아서니  
대통로 다름없는 갯도에  
석탄이 흐르는 콘베아

기계의 나사못을 조이며  
반기는 저 사람  
아름드리 통나무를 도끼로 다듬던  
어제날의 그 동발공이 아닌가

어제가 옛날인듯  
보면 볼수록 새로와

눈을 비비며  
다시 보는 막장이여

정말로 나는  
아니할 말을 하였구나  
그전날 내 잔뼈가 굵고  
노래를 배운  
내사 잘 아는 탄광이라고

당의 뜻을 받들고  
탄부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나는 땅밑을 더 걸으리  
지심깊이 뿌리내린 창조의 새 세계가  
이 가슴에 장엄한 새 노래를 울리도록

사방에서 울리는 기계소리, 발파소리...  
탄맥을 따라 힘차게 뻗어나간  
마구리와 마구리는 또 얼마  
아, 갈래많은 갯도에서  
나는 길조차 헛갈렸네...

## 미 소

## 량창조

영실은 못충각들의 사람됨됨을 가려볼수 있는 것은 처녀의 맑고 깨끗한 눈이라고 여기고있다.

그는 생기발랄한 꽃시절을 맞이하고있는 처녀였다. 하여 아직은 마음의 리상이라든가 생활의 사물사까지는 다 체험하지 못한 인생의 초학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아름다움이란 그자체로써만 아름다운것이 아니라는것쯤은 분별할수 있노라고 제판에 은근히 자부하고있는터였다.

하지만 생활이란 단순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리성과 자부만을 앞세운다면 비록 처녀의 예민한 눈일지라도 때로는 안개처럼 흐려질수 있는 경우도 드문히 있다.

그날은 모든것이 아리송하기만하였다.

영실은 풀릴듯 풀릴듯 하면서도 좀처럼 풀려지지 않는 계산문제를 가지고 서둘러 작업반휴계실을 나섰다. 어제 과제를 받은 《류체공학》의 한 응용문제가 잘 해명되지 않았다. 누가 옆에서 막힌 고리를 약간 튕겨만 주어도 뒤통킨 매듭이 풀릴것같았다.

영실은 성미가 급하고 세찬 굴착기조립공들과 더불어 기중기운전공으로 일하며 공부하는 공장대학생이다. 긴장한 로동생활속에서도 1~2분이라는 시간마저 아까와 손에서 책을 놓지 못했는데 오늘도 기대를 인계하고난 그 짧은 시간을 붙들고 책과 씨름하다 난관에 부딪쳐 명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떠난것이다. 명도란 그의 사촌오빠로서 공장기술준비실장이였다. 말이 사촌간이지 그들사이에는 친동기간이나 다름없었다. 사십대의 왕성한 정력을 지닌 명도는 공장안의 수많은 기사들속에서 《두뇌파》로 알려져있는데 영실은 무엇이건 모를것이 있으면 언제나 스스로없이 그 오빠를 찾아가곤하였다.

기술준비실에는 마침 명도가 있었다. 여느 기사들은 다 현장에 나갔는데 여기저기 도판이 서있는 텅 빈 방에는 명도 혼자 책상머리에 붙어 계산에 열중하고있었다.

영실이가 들어서는 기척에 명도는 그제야 머리를 돌더니 잠시 새삼스러운 눈길로 영실을 바라보다가 밝게 웃었다.

《그새 네가 펴 예뻐졌구나!》

《오빠두 참...》

영실은 낮을 붉히며 어리광을 피우듯 그에게 주먹을 안기려고 헤덤비였다. 그바람에 명도는 의자를 빼격거리며 몸을 뒤로 젖히었다. 그러며 언지시 말을 건네었다.

《그래 그동안 집안이 다 무고하나?》

그 물음에 영실은 그만 더는 팔을 내두르지 못하고 엉거주춤 굳어졌다.

《네, 오빠, 바쁘세요?》

영실은 때이르게 흰칠한 이마우로 앞머리가 성기여가는 명도의 모습을 일별하며 주뭇거렸다.

《여기 일이란 늘 바쁘지. 요새도 밤을 꽤며 공부하나?》

명도는 영실이의 손에 쥐여있는 학습장을 보고도 그가 찾아온 목적을 쉬이 짐작한듯 이렇게 말머리를 돌렸다. 전에 없이 유별스레 그런 말을 외우는것을 미루어보면 명도가 어머니에게 분명 무슨 이야기를 들은것 같다. 어머니는 짚만 생기면 책과 씨름하는 영실에게 한두번만 지칭구를 하지 않았었다.

《애구, 밤낮 그러다 시집도 가기전에 <책귀신>이 될가부다.》라고...

실상 숙성한 딸을 둔 어머니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닌지 모른다. 몸매 곱고 명리하여 한결같이 총각들의 마음을 끄는 영실은 로동에도 성실하지만 공부에서도 또한 남달리 이악을 부렸다.

《그래 무슨 일로?》

명도의 다정한 물음에 영실은 다소곳이 의자에 앉아 책상우에 학습장을 펼쳐놓고 《유압왕복나들통》의 허용응력수치를 구하다가 막힌 점을 이야기했다. 금시 명도의 두눈이 총기있게 빛났다.

《이건 <나들개>에 작용하는 힘과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잠시 생각을 모으던 명도는 문제의 본질을 대뜸 알아내고 실례를 들어가며 한바탕 설명하였다.

명도의 일깨움에서 엉킨 매듭의 실마리를 찾은 영실은 그제야 밝은 낮으로 아이들처럼 환성을 올렸다.

《오빠, 풀렸어요! 수치가 나왔어요!》

명도는 언제보나 진취성있고 학구적인 영실을 대견히 바라보며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류체공학》이 노는 역할을 한동안 설명하고나서 느닷없는 소리를 했다.

《등잔불밑이 어둡다더니... 제결에 훌륭한 선생을 두고 그런 문제를 부디 나를 찾아와 물을게 뭐냐?》

《선생이라뇨?》

영실은 난데없는 소리에 명도를 뻘뻘 쳐다보며 되물었다. 명도는 아직 그걸 모르느냐듯 통명스레 나왔다.

《순호기사가 있잖아. 류체에선 그가 나보다 실향자다.》

《순호기사가요! …》

영실은 어정쩡하게 대꾸하였다. 명도의 말이 종잡을수 없었다.

순호란 영실이와 한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지난해에 공장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벌써 《발명권》을 두건이나 가지고있다. 허지만 아직은 새파란 신진기사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연령상으로도 십년나마 아래인 순호를 두고 명도 자신이 《선배》로 추어올리는데 영실은 저으기 의아쩍었던것이다. 더우기 평소에 명도를 스승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많은 학술적방조를 받고 있는 순호가 아닌가.

의아쩍어하는 영실이의 눈치를 보며 명도는 한층 강조하였다.

《이제 두고보지! 그가 또 사람들을 놀래울 일을 하지 않나! 무엇이든 진지하게 파고드는 성미니까.》

평상시의 호방한 성격처럼 명도는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학술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다년간 쌓아올린 체험과 명석한 두뇌의 판단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만만한 자세였다. 하기에 영실은 아량있는 명도를 따르고 존경할뿐더러 언제부터인가 그런 류형의 인간을 자기 주변에서 은근히 찾아보게까지 되었다.

헌데 명도의 다음 말은 영실을 더더욱 어정쩡하게 만들었다.

《사람이야 진국이지, 넌 그런 사내들의 마음을 알려면 아직 멀어.》

영실은 눈이 동실해졌다. 은연중 알지 못할 반발감이 일면서도 한편 은근히 호기심도 생겼다.

하긴 명도의 말처럼 순호가 장차 대단한 창안을 할지는 모른다. 요즘 그가 굴착기생산에서 크게 비약할수 있는 혁신안을 붙들고 씨름하고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순호만이 하고있는게 아니다. 지금은 공장이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라새로운 창안과 앞선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려고 애쓰고있지 않는가.

다만 영실에게 뜻밖이라고 생각되는것은 명도가 순호를 진국이라고까지 하며 극구 찬양하는 소리였다. 과연 순호가 그런 사람이었던 말인가?

영실은 야릇한 의혹에 사로잡힌채 묵묵히 창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가에는 도판들이 주련이 세워져있었다. 무수한 선과 점들이 각이한 곡선을 이루며 교차된 도판의 새하얀 도면우에는 기울어 저가는 봄해살이 눈부시게 아롱거린다.

무릇 사람이란 평범한 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스쳐버린 일도 일단 거기에 어떤 의의가 부여되었을 때면 그것이 새삼스러워지면서 뜻있게 돌이켜보게 되는 때가 있다. 하물며 평소에 시달리지 않는 인상을 안겨주던 순호의 경우에서랴!

영실이 가공작업반의 기증기를 타다가 조립작업반으로 옮겨온지는 달포밖에 안된다. 그러나 그달포밖에 안되는 사이에도 처녀의 눈은 벌써 순호의 사람됨됨 어지간히 가려냈었다. 더우기 높은 천정기증기에서의 《공중정찰》은 위력하여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거일동은 물론 그 성미까지도 엿볼수 있게 한다.

그 《공중정찰》에서 영실이가 포착한 순호의 인상은 멋없이 웃으며 히히닥거리지 않고 극성스레 작업하는 모양과 함께 설잠이면 혼자 떨어져 조용히 사색에 잠겨있는듯한 모습이였다. 어딘가 좀 어리무던해보였다. 그래서 순호의 별명이 《미지수》라고들 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는것이다. 어째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모르나 영실은 차츰 지내보니 그 별명이 신통하다는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얼마전에 순호에게는 기술부서으로 조동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었다. 헌데 순호는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직장에 남았다. 영실이자신도 장래 기사가 되면 그런 자리를 꿈꾸어오던터여서 그의 처사가 리해되지 않아 하루는 휴식짬에 슬쩍 물어왔다.

《순호동무 왜 안가요?》

《어디로?》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함용 그러하듯이 그의 음성은 낮았다.

《기술과로요.》

《기술과에?... 꼭 거기에 가야만 기사구실을 하오. 난 여기 현장이 더 좋소.》

순호는 혼자소리처럼 외우며 조용히 돌아서버렸다. 별걸 다 묻는다는 투였다.

영실은 그만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듯하였다. 무시당한것 같아 속이 언짢았다. 다시는 상대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헌데 그런 순호를 두고 명도가 그토록 호의를 품고 이야기하며 그에게서 배우라고까지 하니 영실은 좀체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하물며 평소에 자신이 그려보던 호방한 남자와는 판판인 청년을 놓고...

문득 공정실의 벽시계가 다섯점을 쳤다. 그 소리에 영실은 소스라치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교시간이 박두해왔다.

《오빠, 가겠어요.》

영실은 잡생각을 털어 버리려는듯 부랴부랴 방에서 나와 긴복도를 반달음치다싶이 하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구구의 굽이를 도는 찰나 영실은 그만 누군가와 맞부딪칠뻔하였다.

《어마—》소리지르며 뒤통 머리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순호기사였다. 손에 펼쳐든 도면을 들여다보며 마주 걸어오던 그도 놀란 모양이다. 영실

은 절로 낮을 붉히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순호는 피곳 한번 스쳐보았을뿐 다시금 심상한 안색으로 지나쳐버렸다. 막상 어느쪽의 부주의인지 모르지만 영실은 너무나도 태연스러운 순호의 거동에 미안한 생각보다도 은근히 약이 올랐다. 전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의 토라진 감정까지 되살아나자 자존심이 머리를 들면서 기분이 한층 잡쳐지고말았다.

(정말 미지수야. 똑 똑바위같아. )

순호의 모습이 공정실안으로 사라졌을 때에야 영실은 제풀에 화를 내듯 발을 구르며 성급히 계단을 밟아내려갔다.

공장의 새 아침은 룬다르다. 보람찬 창조로 이어진 낮과 밤의 거세찬 숨결인양 끊임없이 번뜩이는 용접화광, 고성능기대들의 줄기찬 동음... 육중한 대형의 기계들이 흘러나오는 공장의 아침은 장엄하였다.

그날도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렀다. 새날의 출근길에 오른 영실은 경쾌한 걸음으로 공장정문을 들어섰다. 이때 돌연 어디선가 지축을 뒤흔들며 요란한 동음이 울려왔다. 영실은 얼른 소리나는 쪽을 살펴보았다. 조립작업장밖으로 굴러나오는 굴착기의 우렁찬 진동음이었다. 방금 조립이 끝난듯 도색도 하지 않은 거대한 알몸의 무쇠철마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는 찬란한 세계가 자못 놀라왔던지 한층 요란스럽게 굉음을 연발했다.

영실은 장쾌한 음향에 이끌려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쳐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우뚝 발걸음을 멈추었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조련사처럼 굴착기의 조향간을 들어쥐고 몰아가는 사람은 순호였다.

우람하고 거창한 철마는 아침노을빛에 번뜩이며 순호의 역센 힘에 순종하듯 무한궤도의 큼직한 자국을 땅우에 새겨가면서 서서히 상차쪽으로 굴러간다. 운전칸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무한궤도의 움직임에 줄곧 긴장한 시선을 박고있는 순호의 모습은 어쩐지 이 아침따라 영실에게 전과 다른 호감을 안겨주었다.

굴착기의 방향을 회전하느라고 순호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영실은 이름할수 없는 유혹에 끌리어 자신도 잊고 손을 흔들며 맑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순호동무, 수고해요!》

그 목소리는 굴착기의 요란한 동음에 묻히어 순호에게 가닿지 못했는지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영실은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즐겁기만 하였다. 청신하고 유정한 봄날의 아침이 안겨준 기분탓인지 몰랐다.

그런데 생활이란 어떻게나 기묘한것인지 처녀의 심중에 그럴듯 어설픈 감정을 불러일으킨 바

로 그 청년과 영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게 되었다.

그날 작업도중 영실은 직장장의 부름을 받았다.

새로 무어진 기술혁신조에 망라되어 순호와 함께 종합자동반을 완성하라는 것이었다.

직장장은 오래지 않아 기사가 될 영실을 믿고 그 과업을 맡겼다고 한다. 명도실장이 또한 거기에 고문격으로 망라되어 적극 도와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영실도 이런 기회에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리라는 욕망도 있어 군말없이 새 임무를 받아안았다. 하면서도 채취설비생산을 늘이는데 큰 몫을 차지할 종합자동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질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보람찬 90 년대의 첫째 행군길을 세차게 다그쳐 나가는 대진설장과 탄광, 광산들에서는 레년에 없이 많은 굴착기를 요구했다. 온 나라가 증산과 절약의 불도가니로 타번지는 그 비등된 열의속에서 종합자동반의 완성이 하루도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던 것이다. 원래 그 설비는 다른 기계공장에서 만들어 보내주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자체힘으로 풀어보자고 노력한 결과 마침내 설계도 완성되어 서둘러 그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온 공장이 그 제작자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다.

기술혁신조는 굴착기직장의 한켠 작업장에 자리잡고있었다.

영실이가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순호는 도면을 들여다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잠간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업장은 어디라없이 산뜻하게 거두어져있었다. 방금 물결레를 친듯 책상이며 공구함, 작업대들은 말끔했고 티없이 깨끗한 콘크리트바닥은 천정채광장으로 비쳐드는 해빛을 받아 반들거렸다. 작업장구석마다에 순호의 손길이 닿았음을 알수 있었다.

(길으로는 푹푹해 보여도 여간 잔잔한 성미가 아닌가봐. )

영실이가 나타나자 순호는 공구함에서 도면마리를 꺼내어 책상우에 펼치더니 나직이 속삭였다.

《영실동무, 많이 도와주시오. 우리 서로 힘을 모아 이 분기안으로 자동반을 끝내기로. 》

영실은 그 소리가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순호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살뜰한 《대접》이어서인지 모른다.

영실은 책상가로 다가서 순호가 보는 도면에 눈길을 주었다. 가로세로 무수한 선과 점들이 얹혀돌아간 도면은 창안자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말해주듯 채광창으로 비쳐드는 빛발속에서 발

랄한 색조를 이루며 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결정체처럼 영실에게 선명한 상상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순호가 창안하고 설계한 자동반의 전면도였다.

순호는 작업복을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들더니 그것으로 도면을 짚어가며 가공공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굴착기의 중추를 이루는 회전대판의 가공을 지금처럼 여러 기대에서 나누어 하지 않고 한번에 가공할 매우 위력한 혁신안이었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될 자동반을 창안하고 설계한 당사자의 이야기는 커다란 감동력으로 영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다.

《설계가 아주 잘됐어요. 정말 수고 많았겠어요.》

《실장동지를 비롯해서 모두 도와나선 덕분이지요. 아무려나 제작이 순조로와야 할텐데.》

순호는 하루빨리 제작완성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근엄한 기색으로 말끝을 흐리며 도면에서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영실은 사색을 모으듯 눈살을 찌푸리는 순호를 새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원래가 허심하고 진지한 동무인지 몰라. 이처럼 가치있는 창안을 하고도 그걸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걸 봐도...)

영실은 문득 랑심의 한 갈피에 맞쳐드는 것이 있었으나 역시 아직은 알수 없는게 순호의 마음인가 싶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요?》

영실이의 말에 순호는 아무 대꾸없이 처녀앞에 한장의 원도지를 내놓았다.

《이걸 먼저 추진합시다.》

부분가공품이었다. 영실은 그것을 받아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작업장을 나왔다.

긴급생산지령을 떼고 선반공에게 가공의뢰를 하며 부지런히 돌아치다보니 퍼그나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생각했던것보다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셈이다. 누구나 할것없이 선뜻 말해주었었다.

홍겨운 마음으로 작업장에 돌아온 영실은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무릎 꿇어졌다. 안에서 심상치않은 소리가 들렸던것이다.

《아니, 공정표가 왜 이렇게습니까?》

무엇이 못마땅한지 순호의 목청이 전에없이 높았다.

《공정표가 어째서? ...》

사촌오빠 명도의 저르기 통명스럽게 울리는 음성이 뒤따랐다.

《통체 하나에 이토록 많은 공수를 들인다면 자동반을 언제 생산에 도입할수 있단말입니까?》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걸 어찌겠소.》

《실장동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공정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순호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울렸다.

영실은 언제까지나 문밖에 있을수 없어 조용히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실내의 공기가 사뭇 무거웠다. 순호를 외면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명도의 침중한 기색과 책상가에 꼴꼴이 서있는 순호의 성난듯한 모습을 일별하고나서 영실은 숨을 죽인채 책상우에 놓인 기술공정표에 시선을 돌렸다. 자동반의 《교-36》 공정표였다. 거기에는 공학적으로 타산된 가공수치와 한계가 표기되어있었다. 수치들이 명도의 과학적근거와 타산에 의해 정확히 도출되어있다는것을 영실이로서도 능히 가늠할수 있었다. 그렇다고 불쑥 끼여들어 가타부타할 용기는 안났다. 더우기 아까 자동반의 완성을 위해 열렬히 토로하던 순호가 상기되자 한층 마음이 도사려졌다.

영실은 책상에서 물러나 실없이 원도지철만 뒤적거렸다.

《난들 왜 하루속히 완성하고픈 마음이 없겠소. 허나 조금하계 군다고 될일이요... 그래 무슨 좋은 방도라도 있으면 내놓소.》

한동안의 침묵끝에 명도가 먼저 이렇게 타협조로 나왔다.

연필끝으로 책상을 다독거리며 잠시 생각을 쫓던 순호는 명도에게 돌아섰다.

《동체를 세토막으로 나누어 가공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물릴 기대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얻을수 있다고봅니다.》  
순호의 의견이 납득되지 않는듯 명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는 오작을 면할수 없을거요. 축구멍의 중심이 편차없이 맞물릴것 같소? 천분의 일미리 공차도 허용치 않는 정밀도를 말ियो.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명도는 대변에 우려의 기색을 드러냈으나 순호의 태도는 의연히 단호했다.

《물론 통체로 가공하면 무난은 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방식에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한다는게 얼마나 맹랑한 일입니까.》

《뭘, 기존방식이라고? ...》

명도는 어지간히 기가 찬듯 중얼거리다가 성급히 뒤말을 이었다.

《아무렴, 기존방식에만 매달려서야 안되지. 허나 고집할 일이 따로 있지. 그래 이게 욕망만으로 될일이요, 성공의 안전한 담보가 없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에돌아갈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걸 무시하고 나서다 실패하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소? ...때로 모험도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모험이란 무모한 행위에 지나지 않

소.》

명도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갈수록 크고 뚜렷하게 울려나왔다.

영실은 명도의 말에 공감이가 갔다. 제판으로 판단해봐도 오랜 기술적경험과 실무능력을 지닌 명도의 견해나 론리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었다. 게다가 굴착기생산이 다급해진 때에 순호의 의견을 따르다가 오작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순호는 조금도 굽어드는 기색이 아니었다.

《이건 가능성없는 모험이 아닙니다.》

순호는 명도의 말허리를 끊었다.

《실장동지, 가능성을 찾아야지 애돌아갈수는 없습니다. 무난하고 안전한 길만을 택한다면 굴착기생산에서 어떻게 혁신을 바랄수 있단말입니까.》

명도는 그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치자 어이가 없는듯 한동안 아무 대꾸도 못했다.

명도의 간곡한 충고에도 무릅쓰고 자기 주장만을 완강히 고집하는 순호가 영실에게는 놀랍기보다 야속하기만 했다. 그 어떤 확신과 담보가 있기에 그토록 완고히 고집할수 있단말인가. 더우기나 명도에 비해 아직은 모든 점에서 어린 기사가...

영실은 가슴이 답답해났다.

그들사이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명도는 한결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여하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기요.》

명도는 우람한 체구를 일으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방에서 나갔다.

명도를 묵묵히 배려우는 순호의 눈빛에는 말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내비치였다.

그는 한동안 모대기다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바위처럼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거북해진 영실은 생각이 복잡했다. 평소에 남다른 호감과 기대를 가지고 순호를 대해오던 명도였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때문에 그들사이가 버그러지거나 앓겠는지 영실은 은근히 걱정부터 앞섰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지금 한창 진척중에 있는 자동반제작에 지장이 생길것만 같았다.

한동안 못박혀 생각에 잠겼던 순호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업장을 뛰쳐나갔다.

그의 거동이 심상치 않았다. 영실은 알지 못할 불안감에 금시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가만히 앉아있을수만 없었다.

영실은 순호의 뒤를 쫓았다. 한달음으로 준비실문앞까지 왔다. 아니나다를가 준비실에서는 순호와 명도사이에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소리때문

에 《안되오!》하는 명도의 목청만이 울려올뿐 순호의 음성은 가려들을수 없었다. 심란한 마음에 끌려 달려오기는 하였으나 막상 예상치 않던 정황에 부딪치고보니 방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영실은 한동안 복도에서 안타까이 서성거리다가 작업장으로 되돌아오고말았다.

순호가 작업장에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퍼그나 시간이 흐른뒤였다.

그는 갈 때와는 달리 조용히 들어왔다.

영실은 원도지철을 손에 쥔채 순호의 기색부터 살펴보았다. 금시 영실이의 두눈이 굳어졌다. 작업장을 뛰쳐나갈 때의 순호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무스름한 얼굴이 여느때없이 밝아져보였다. 몸가짐까지도 방금 명도와 론쟁하고온 사람 같지 않게 안정되고 숙연한 자세였다. 상대방을 타승한 승리자의 혼연한 기상이랄가...

순간 어리둥절해진 영실은 새로운 의혹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불쑥 입을 뗀것이 목소리도 끊지 않게 나왔다.

《순호동무,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영실을 마주보는 순호의 얼굴엔 때아닌 흥조가 피어났다.

《다 원만히 될거요.》

《네-?! ...》

이제껏 옥신각신하던 일은 죄다 잊은듯 순호의 너무나 심평스러움에 영실은 그만 아연해졌다. 그런데 속삭이듯 뇌이는 순호의 다음말은 그를 더더욱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실장동지가 크게 도와줄거요. 일단 결심만 하면 누구도 감당할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는분이니까...》

《? ...》

명도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담아 이야기하는것을 영실은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어찌보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레사로운 일인지 모르나 역시 알다가도 모를것이 순호의 속인가싶었다. 그럴수록 영실은 안타까웠다. 둘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몹시 궁금하였다.

영실은 잠시 주저하다가 물어보았다.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분리가공으로 해야 하오.》

순호는 단마디로 대답했다.

《네?!》

영실은 눈살이 꺾혔다. 그렇듯 반대해나서던 명도가 끝내 순호의 고집에 말려들기라도 하였단말인가? 이런 의혹에 뒤따라 두려운 생각이 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다가 실패라도 하면...》

영실은 숨가빠 말을 번지였다.

순호는 불안에 싸인 처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떼었다.

《왜 성공할수도 있다고는 생각 못하오?》

《...》

영실은 그 물음에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제먼저 캐어묻고싶었으나 웬일인지 별안간 말이 막혀버렸다.

그의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던지 순호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높은 정밀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세우면서 분리가공을 할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설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종전처럼 큰 동체를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세부가공을 하다간 배로 늘어난 굴착기생산을 보장해낼수 없소. 문제는 어렵다는걸 따지기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배짱을 가지는게 중요하지 않겠소.》

순호의 음성은 의연히 조용하였으나 영실이로 하여금 목을 움츠리게 하였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가슴이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배짱.》

순호의 말을 혼자 되새겨보던 영실은 그를 피곳 돌아보았다. 예없이 빛나는 그의 눈에는

《시대의 요구앞에 우리는 심장의 뜨거운 열도를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소.》 하고 말하고있음을 영실은 예민한 감각으로 감촉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감을 자각한 기술자의 깨끗한 양심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만 깊이 뿌리내릴수 있는 신념이 아닌가!

혁명과업앞에 두뇌만이 아니라 심장까지 서슴없이 들이대는 순호의 열화같은 뜨거움에 접하자 영실은 그만 낮이 화끈거렸다. 그러기에 명도를 상대하여 것처럼 땀땀하게 맞설수 있었을것이다.

타산만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것이 자기를 포함하여 명도를 일러 하는 소리라는 생각에 영실은 더한층 열굴을 들수 없었다. 그와 함께 순호를 고깝게 대해온 지난날이 돌이켜지면서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순호의 진가를 보다 뚜렷이 알게된것은 이틀후였다.

영실이 홀로 도면정리를 하고있는 작업장에 그새 보이지 않던 명도가 불쑥 나타났다.

《이걸 당장 복사해주어야 하겠다.》

명도는 들어서자바람으로 가지고온 도면을 영실이앞에 내놓았다.

영실은 손길을 멈추고 머리를 들었다. 순간 그는 저르기 놀랐다. 명도의 얼굴이 전에없이 수척해진것을 느껴서였다. 눈에도 피발이 섰다.

《어디 편치 않으세요?》

《아니 요즘 바쁘다보니.》

소탈하게 웃어넘기는 명도를 바라보던 영실은 그가 내민 도면에 눈길을 주었다. 놀라왔다. 참으로 뜻밖이었다. 그것은 순호가 주장하던 분리가공을 위한 《교-36》의 부분도였다. 그제서야 영실은 그의 모습이 변한 까닭을 짐작했다. 그 도면을 완성하느라 침실을 잇다싶이한 명도라는 것이 알렸다. 사실 그는 며칠사이에 새로운 지구

설계며 공정도면에 이르기까지 술한 일을 해제했다.

얼없이 명도의 모습을 지켜보던 영실은 전에 순호가 하던 말이 되살아났다.

《실장동지가 우릴 크게 도와줄거요.》

영실은 오늘에야 비로소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깨닫게 된것 같았다. 저절로 가슴이 후더워 올랐다. 하면서도 《두뇌파》인 명도가 그리도 쉽사리 순호의 주장에 따르게 된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조심스레 물어보게 되었다.

《그럼 오빠는 순호동무의 고집에 끝내...》

《거기에 말려들었다단말이지. 허허...》

명도는 피발선 두눈을 치뜨며 소리내여 웃었다.

《그런 고집이야 부릴만도 하지. 고집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선뜻 받아들일줄 알아야 해. 바로 그의 고집이 <기존방식>을 후려쳤다고 할가... 아무튼 불같은 사람이거던! 나는 순호기사의 그 완강한 정신력에 자극받는바가 많다니까.》

눈을 찡긋하며 의미심장하게 외우고 난 명도는 어딘가 먼 한점을 잠시 응시하다가 웅글은 목소리로 또다시 말을 이었다.

《지조와 양심이 과학자의 값높은 가치라면 가장 타매해야 할 과학자의 수치는 비겁성이다. 기술자인 우리들은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명심할줄 알아야 한다.》

명도는 이렇게 말하는것으로 자신을 허심하게 뉘우치며 돌이켜보는듯싶었다.

영실은 마냥 가슴이 뜨거워났다. 서로 믿고 받들며 탐구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새삼스럽게 느끼며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순호와 명도가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나선이상 자동반의 성공이 불을 보듯 한층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이런 때에 순호가 돌아왔다.

명도는 얼른 순호를 책상머리로 이끌며 말했다.

《이걸 좀 보오. 될것 같소?》

그가 설계한 《교-36》의 도면을 가리키며 하는 소리였다. 그것을 살펴보던 순호의 두눈이 번쩍 빛을 뿜었다. 그자신도 지금 그것을 설계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글타글 노력하고있었던 것이다. 허나 아직은 절반나마밖에 진척되지 못하고있는데 명도는 어느새 완성해놓지 않았는가! 그것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순호는 기뻐다. 역시 언제나 따르고 배워야 할 선배라는 생각이 한층 강렬해졌다.

이윽고 순호는 도면에서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명도를 향해 돌아서더니 안기듯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실장동지 고맙습니다!》

순호에게서 들을수 없던 흥분에 겨운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슨 실없는 소리 하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것이 시간이요. 분초도 아낄줄 알아야하거던. 난 자칫하다 그걸 놓칠뻔했다니까. 자 어서 달라붙어 제작에 착수하거요!》



명도는 자신에게 타이르듯하며 영실을 피곳 돌아본 다음 순호의 어깨우에 다정히 한손을 얹었다.

이때 영실은 순호의 거무스름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어리는것을 지켜보았다. 여직껏 단 한번도 시원히 피어나지 않던 그 웅심깊은 미소가 어떻게 갑자기 드러났을가?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에서 바라는 락원의 정신으로 굴착기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된 창조의 기쁨, 그 세찬 가슴의 일렁거림이 그 미소를 피어나게 하였는지 모른다.

이런 순호의 모습을 보자 《훌륭한 심장을 지닌

사람은 흰옷을 입어도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참뜻이 새삼스레 되새겨졌다. 그 순간 영실은 은연중 류다른 감정이 가슴속 깊은곳에서 따뜻이 피여오르는것을 감촉하고 스스로 놀랐다.

어마, 왜 이렇가 하고 그는 어망결에 자신을 꾸짖어보았으나 처녀의 가슴속에 일어난 야릇한 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갔다.

그 처녀의 가슴속 파문을 한층 부추기듯 별안간 굴착기의 장쾌한 음향이 온 직장안을 뒤흔들며 울려왔다.

그것은 새로 탄생하게 될 무쇠철마의 우렁찬 고고성을 예언하였다.

## 나의 병사시절

리정택

꿈속에 잠기듯  
추억의 갈피를 조용히 번지면  
봄날의 들판에 선듯  
삶의 향기로 가슴 부푸는 시절  
그런 시절이 나에게도 있어라

나이들어 흰머리 늘어가도  
문득문득 그 시절의 말투까지  
나도 몰래 하게 되는 나날에  
몸에 배인 그 시절의 걸음새가  
열정을 불러주는 시절

누구나 한번은 맞고 보냈으리  
거치지 못하면 한이 되는  
언제나 잊지 못할 병사시절  
나의 병사시절이여

생각하는 사이면 어느덧  
성스러운 군기앞에  
그날처럼 승엄히 다시 서보는 마음이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리라는 그날의 선서  
아, 그때 벌써 조국앞에 나는  
심장을 내댄 삶이어라

눈비속에 한치한치  
땀에 젖어오르던 벼랑길에서  
나는 익혔노라  
내 한생의 한결음한결음을  
조국을 위해 걷는 그 걸음새를

무더위속 강행군길  
어깨에 실리는 배낭의 무게에서  
나는 조국앞에 내 삶의 의무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가를 알았노라

깊은밤 언땅을 그러안고  
전호가에 지셀 때면  
수호자의 심장에 뜨거운 사랑과 증오가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를 알았노라

서로 다른 이름이 있어도  
조국이 달아준 령장의 칭호로  
동지라는 부름과 함께 부르며  
전우위해 총탄도 막아나설  
이 가슴이 넓어진것 아니던가

병사시절  
조국의 부름앞에 타산을 몰랐고  
당의 명령앞에 무조건성이라는  
그 하나의 삶의 법칙이  
가장 피끓던 가슴에  
자리잡게 해준 시절이여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있어야 할 시절이다  
내 머리 이제는 희여가도  
아니, 누구 나의 한생에 심장에 자리잡아  
영원한 조국의 청춘으로 살게 하는  
병사시절

아, 조국을 위해서는  
언제나 늙을수 없는 마음을  
언제나 열정넘친 걸음새를  
언제나 한목숨 바칠 자세를  
영원한 내 삶에 배워준 시절  
나의 병사시절이여

# 아름다운 딸들아

김영근

레성강반에  
봄이 왔다

얼음물린 계곡의 맑은 내물에  
저 웅장한 물다리를 비껴놓고  
머리수건 행구며, 서로 물보라 끼었으며  
웃고 떠드는 돌격대치너들아

레성강 단물이  
고향땅 연백벌로 흘러갈 래일이 좋아  
너희들 다시 아이적 마음 되여보는것이나  
헐치 않은 나날에 불을 적신 구슬땀도  
그 밝은 웃음으로 다 씻으며

오, 사랑스런 꽃나이 딸들아  
겨우내 담이 큰 대장부들속에서  
물탈을 다지며 언땅에 교각을 세우며  
지칠줄 모르던 너희들의 노래소리 그 웃음소리  
귀전에 들려와 가슴 뜨겁구나

매운 연기에 눈물도 흘리며  
중대를 위해 더운 국을 끓이던

저 고드름 드리웠던 돌격대식당  
사나이들의 뒹어진 작업복을 행구며  
방치소리 울리던 내가를 더듬으며  
하많은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머리에 흰성에 불리는 흑한을 이겨내고  
봄을 맞은 처녀들아  
래일은 떠나갈 너희들앞에  
찬바람 울부짓던 버들방천도  
버들개지 피워안고 머리를 수그렸다

레성강반의 겨울에 피어난 꽃들아  
더 좋을 고향의 래일을 위해  
구슬땀으로 청춘시절을 수놓으며  
에서 한살 더 먹은 너희들의 나이를  
조국은 90년대란 자랑찬 말속에 아껴두리니

오, 한껏 웃어라 아름다운 딸들아  
새 물길에 물소리 넘쳐흐르고  
옥야백리 연백벌에 풍년웃음 더 활짝 피여날 때  
너희들의 고운 얼굴 비겼던 이 내물우엔  
더욱 젊어진 조국의 새 얼굴이 비끼리라

# 고향에

변홍영

출장길에 잠간 들렸건만  
고향아 내 가슴은  
이름못할 그리움에 사무쳐오는구나  
지금은 세상에 아니계신 어머니  
한생을 가꾸며 살아오신 저 벌 한끝에서  
나를 부르며 달려오실것만 같은  
아 내가 나서 자란 땅아

내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적처럼  
돌꽃 핀 두렁길을 달리며  
이 가슴 가득한 정을 다 쏟고싶다  
내 반백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는  
너의 바람결은 어머니의 애무인양 정답고  
아득한 유년의 추억까지도 속삭여주는  
너의 시내가 맑은 물소리네  
내 한생 모대기며 찾는 노래처럼 젖어드는구나

어릴적 네 품에 안겨자란 나날보다  
철들어 더 많은 세월을  
내 너를 떠나 지냈거니 너를 잊을수도 있었다만  
슬하를 멀리 떠나 산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잊을수 있다더냐  
때없이 보여오는건 너의 푸르른 하늘  
그밑에 뛰놀던 어린날의 잔디밭...  
이 가슴에 자리잡은 너의 표상처럼  
나에게 소중한것 더는 없었다

거기에선 전쟁의 불구름밑에서도  
반토굴교사로 날 불러들이던 수업종소리가  
못잊을 추억들을 못견디게 흔들어깨우고  
거기에선 탐사의 첫 길에 오르던 그 아침  
조국앞에 이 아들을 내세우신 어머니님 눈가에  
뜨겁게 어리던 당부가 오늘도 울리나니  
그것은 내 가슴에서 영원히 지울수 없는  
내 살아 더럽힐수 없는 신성한것이더라

고향아, 내 만약 너의 하늘밑에서  
사랑하는 처녀와 첫 사랑을 언약하던  
그 별많은 밤의 축복을 잊는다면  
대학으로 떠나는 나를 바래며  
우리 가문의 첫 대학생이라고  
아버지의 주름많은 눈굽이에 번쩍이던

조국에의 감사를 순간이나마 저버린다면  
오호, 용서치 말아다오 어리광 많던 철부지로  
내 오늘 네앞에 선것 아니거늘

금과 랑만에 넘치던  
홍안의 그 시절에 너를 떠나서  
귀밑머리 희숙해져 다시 온 이 아들  
나에게서 세월은 무심한것 아니었더라  
네 품에 흘러보낸 레사롭던 모든것  
그 소중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며  
내 참된 삶의 좌표를 정했나니

갈래많은 생활의 길에서  
내 길을 잘못들어  
너에게 치욕을 남기는 일 없으리라  
이 아들로 하여 피로운 상처를 입게 되는 일  
없으리라  
너는 영원히 배반할수 없는

내 인생의 첫 사랑  
내 한생의 걸음을 지켜보며 이끌어주는  
한없이 따뜻한 눈빛...

믿어다오 고향아, 내 그 어디가도  
가장 성스럽고 참된 길로 나를 부르며  
너의 저 하늘은 내 머리위에 푸르고  
너의 시내물은 내 가슴에 여물치고  
너의 봄잔디밭은 항시 내 마음속에  
파아랴게 살아 움터나리니

너를 멀리 떠나 세월은 다시 가고  
그 어느 절해고도에 홀로 가있대도  
내 너의 신성한 그 표상을 흐리우지 않으리라  
내 그 언제나 너의 땃땃한 아들로 남으리라  
그러하지 못하고는 머리들고 마주설수도 없는  
아아, 나를 낳은 산천아, 어머니 나의 조국아!

## 기 초

김화남

우리의 땀과 의지로 다져진  
기초여  
너를 땅속에 묻어야 하는구나  
영영 다시는 볼수도 없게

이런 순간엔  
너와 나누고픈 말 많기도 하거니  
얼마였더나  
눈이 오면 얼세라 솜옷 벗어 덮어주고  
강추위땐 밤새도록 우등불 피우던 일

이렇게 물을줄 몰라서였던가  
수백줄기 철근을 엮으면서도  
단 한줄 흔들릴세라 옥죄던 마음  
휘틀의 이음새에 작은 짬을 두고도  
언성을 높이며 다시 뜯어맞춘것은

가슴을 쳤다  
기초는 땅속에서 일하는 법이라고  
땅에 묻는 기초라 흙집을 남기면  
량심에 진 허물 한생토록 못벗긴다고  
공훈건설자아바이 범상히 하던 말

아, 이 땅우에 눈부신 창조물들을  
억척같이 받들며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일하는 기초  
건설자의 직분을 너에 비해보며

우리 얼마나 자부에 넘쳤던가

이제 네우에 일떠설  
산악같은 강철직장 건물뿐이라  
우리는 생각했노라  
이 기초우에 펼쳐질  
붉고 푸른 자동차의 불빛들  
로동의 희열에 넘친 밝은 얼굴들을

그래서 온몸 땀에 젖으면서도  
구석진곳 다짐기를 더 깊숙이 박았고  
열기설기 철근망속 기여서 들어가  
구부러진 한줄 철근을 끈게 뿔거니

땅에 물을줄 알면서도  
제가 쓰고 다룰 귀중품을 만들듯  
땀을 쏟고 정성을 부은  
기초는 정녕  
건설자의 그 진정 그 의지의 결정체!

오, 웅장히 일떠서라 강철기지어  
높이 솟구쳐 부강하라 조국이여  
그대를 받들어 천만년 드립없을  
억척같은 그 기초  
깨끗한 우리의 량심이다  
우리의 량심이다

## 은행지도원

리준호

세사람이 앉아있었다.

날씨탓인지 창가에 버들가지가 후줄근히 드리워서인지 어딘가 침침한 인상을 안겨주는 방이었다.

방에는 노란 라크칠을 한 책상들이 창문쪽을 향해 일렬로 놓여있고 약간 등황색이 돌면서 옷칠을 한듯 번들거리는 편수책상이 《T》형으로 품위있게 들어앉아있었다.

이 방의 주인인듯한 몸집이 거방지고 머리가 희석희석한 50대의 사나이가 그 인격에 어울리는 편수책상을 마주하고 줄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는데 등받이에 해면을 댄 폭신한 의자임에도 앉음새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가 비스듬히 몸을 돌려댄쪽에는 처녀처럼 얼굴이 곱살하게 생긴 청년이 선생한테 욕을 먹는 학생마냥 의자를 책상앞에 바투 갖다붙이고 머리를 푹 수그리고있었다.

청년의 맞은편에는 눈확이 움푹 꺼져들어가고 얼굴이 강마른 안경쟁이가 앉았는데 그는 차갑달만지 표정에 변함이 없었다.

이들 세사람, 몸집이 거방진 사람은 흥보탄광 지배인 강형준이고 처녀같이 곱살한 청년은 탄광 담당설계원 박동훈이었다. 그리고 안경쟁이는 군산업은행 지도원 변순태였다.

그들은 지루한 시간을 마주앉아있었다.

## 1

바로 한시간전에 지배인 강형준은 계획과장으로 부터 2.4분기 생산실적을 보고받고 매우 흡족했었다. 분기계획은 석탄생산으로부터 생필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에 걸쳐 넘쳐수행했다.

그는 계획과장에게 전화로 오늘저녁 지령총화 때련합기업소에 올려보낼 계획 심의문건을 종합해가지고 오라고 이르고는 눈물이 찔끔 나게 두어번 하품을 했으며 조금후에는 의자등받이에 머리를 젖히고 잠이 들었다. 분기말을 가까이 하면서 출장막장에서 살다싶이한 그는 너무나 피곤이 겹쌓인 몸이었다.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강형준은 종시 굳잠에서 깨지 못했다. 기척을 내다못해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몇번이나 불려서야 눈을 떴다. 안경을 낀 체소한 사람이 삼면가방을 앞섶에 모두어안고 깍듯이 허리를 굽혔다펴고있었다.

강형준은 어딘가 면목이 있어보였지만 인차 기억을 살려내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가고 물었다.

《저... 은행에서 왔습니다. 아까 전화편락을...》

그제야 강형준은 모든것을 한꺼번에 생각해냈다. 두어시간전, 막장지령전화기를 통해서 탄광에 내려온 은행지도원이 만날 용건이 있는데 언제쯤 짬을 낼수 있겠는지 물어서 알려달라고 했다는것, 그리고 류달리 안경알이 번들거리는 이 사람과 언제인가 바로 이 지배인실에서 즐겁지 못한 일로 마주앉은적이 있었다는것까지 생각했다.

그때도 이사람은 우묵한 눈확을 가리운 테와 안경알이 한결같이 번득이는 안경을 쓴채 그를 향해 체소한 몸을 겁석하고 자기가 누구라는것을 말했다.

그리고 천성적인지 말을 몹시 더듬거리며 찾아온 사유를 이야기했다.

그 사유라는것이 강형준을 얼마나 노엽혔던지 이사람은 알지 못했을것이다.

이사람은 그때 학교를 갓 졸업하고 여기 탄광에와서 일하는 자기 아들이 갯에서 설비사고를 일으켜서 그에 대한 벌금을 물려고 아들대신 찾아왔다는것을 아주 짹막하게 실무적으로 말했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다는 소리를 덧붙여했는데 감정상 찾아온 사유와 동안을 두고 해야 할 말을 잇달아 한때문인지 강형준은 거의 귀등으로 흘려보냈다. 그다음 이사람이 내민 낮은 사고조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쾌할 때하는 버릇대로 의자에서 몸을 뻗 돌려앉았다.

그때 막장에서 있는 설비사고에 대한 사고심의는 강형준지배인 자신이 직접 취급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형준은 해당부서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수표한 사고조서의 마지막 수표란에다가 펜끝을 박고 한동안 망설이였다.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신입로동자에게 너무 과한 벌을 주어 기를 꺾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그래 종시 수표하지 못한 사고조서 뒤등에 강형

준은 이 렇게 썼다.

※규정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기능이 어린 관제로 일어난 사고니 갱장과 중대장, 소대장에게 책임을 물을것.

그리하여 갱장과 중대장, 소대장에게 각각 1주일간씩 무보수로동처벌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고조서를 다시 가지고 나타났던것이다.

강형준은 안경알속의 눈을 불안스레 굴리며 자기의 눈치를 보는 유별난 사람을 아리송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거동이며 몸가짐을 새삼스럽게 되살리다가 불쑥 새로 탄광부문을 맡은 군산업은행 지도원이 몹시 《까다롭고 말썽》 사람이라고 한 어느 누구의 말을 상기했다.

《은행지도원동무, 난 여기에 수표하기전에 한가지 묻고싶소.

동문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자고 합니까? 자식 앞에서 말이요.》

질문이 뜻밖인듯 은행지도원은 안경테만 매만 질뿐 대답을 못하였다.

강형준은 구하여 상대방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대답할 말이 없으면 이 방에서 나가줘야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제먼저 옷걸이에서 모자를 벗겨쓰고 방을 나가버렸다.

이젠 그 일이 있는지 몇달이 잘되어 사업에 대망한 강형준에게 있어서 어느때 한번 상기시켜볼 여지도 없는 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체소한 안경쟁이에 대한 인상은 기억속에서 쉽사리 지워버릴수 없는것이였다.

그는 불쾌한 방문객을 맞이한 심정이였다.

《련락을 받았소. 앉으시오.》

의자를 권하던 그는 그사람의 뒤에 또 한사람이 묻어 들어온것을 띠여보았다. 《동문 어떻게 왔소?》

설계원청년은 말이 없었다.

은행지도원이 삼면가방을 열고 무슨 문건철을 꺼내서 무척 조심스럽게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역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배인동지! ...전 요즈음 흥봉탄광 갱진설에 산과 2.4분기 생산비투자범위를 까밝혀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이 탄광에서 여러 지표에 걸쳐 전해에 비해 원가를 훨씬 줄이고 많은 일을 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기뻐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을 끊고 의자팔걸이에 몸을 기우뚱이 싹고 묵묵히 듣고있는 강형준을 슬며시

바라보다가 알릴듯말듯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계획과장동무가 작성한 총화문전에 의하면 탄광에서는 분기간...》

그는 책상우에 놓인 문건철을 들고 뒤적이더니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고 확실성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기간 기본굴진계획을 101.7프로로 넘쳐한것으로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이견 맞지 않습니다.

101.7프로중에 9.6프로는 복구굴진 실적이었습니 다. 이로부터 생겨날수 있는 투자액상 초과는...》

은행지도원은 소수점아래 두자리까지 놓치지 않고 수자들을 거침없이 내리읽고나서 문건을 덮었다.

《계획과장동무와 담당설계원동무의 말을 들어 보면 지배인동지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던데...》

강형준은 은행지도원을 흘깃 올려다보았다. 마지막 말이 그의 비위를 거슬렀던것이다.

《이 탄광에서 내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소!》

거의 신경질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높지 못하다는것을 강형준은 스스로 느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발언을 잘못했다면... 전 리해가 되지 않아 그러합니다.》

강형준지배인은 자리가 불편한듯 의자를 빼적거리며 모로 돌아앉았다.

그때까지 문가에 굳어진듯 서있던 설계원청년이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강형준지배인은 그제야 청년이 왜 이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는가를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 일의 의미를 캐보려는듯 가늘게 눈을 찌프렸다.

그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강형준은 굴진공들과 같이 막장에서 착암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분기계획총화문건을 가지고 도착할 계획과장을 기다렸다.

그의 머리속에는 이미 지표별 계획수자들이 료괄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산되어있었다.

그것은 계획과나 회계부서 사람들이 전자수산기로 산출해낸 수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것이였다.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심이 생긴것이다.

아무리 타산을 굴러봐야 기본굴진계획이 미달될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계획과장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있었다. 혹시 계획과 사람들이 자기의 불안을 뒤집어버릴 좋은 수자를 얻어낼는

지 어떻게 알라... 얼마후에 키가 구척인 계획과장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나타나서 난색을 지을 때 강형준은 스스로 착오를 범하기를 바란 자기가 돌이켜져 쓴웃음을 짓고말았다. 어쩌면 초긴장상태를 유지하며 힘겹게 툴아오른 걸음이 줄지에 수포로 돌아간듯한 허탈감에 온몸이 나른해지었다.

그날 퇴근길을 같이 걷던 계획과장이 비밀을 이야기하듯 강형준의 귀에 입을 바투 대고 복구굴진을 기본굴진실적으로 잡을수 있는 개소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리고 담당설계원만 눈감아주면 모든 문제가 무난히 처리될수 있다는것까지 덧붙여 말했다. 강형준은 펄쩍 뛰었다.

계획과장이 말한 복구굴진개소란 10여년전에 그가 갱장을 할 때 버린곳인데 그 구역에 새로 석탄매장량이 확보되면서 다시 복구하는 갱이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뚫는 굴진실적으로 하다니. 그렇게 되면 실적은 실적대로 먹고 굴진능력에 한해서 국가로부터 생산비를 받게 되는것이다.

강형준은 자기가 계획과장의 말을 아주 그럴듯한것으로 마지막까지 들었다는데 생각이 미치는 순간 벌떡 화가 났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차스러운 지배인으로 되었는가? 그러나 종시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온밤 잠자리에서 궁싯대었다.

채대에 어울리지 않는 계획과장의 조용조용한 말소리가 그냥 귀가에 맴도는가 하면 련합기업소적인 분기생산총화에서 계획을 미달한 지배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꿰어질것을 생각하니 더욱 잠이 오지 않았다. 탄광지배인 10년에 언제 한번 계획을 미달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퇴보를 모르는 지배인, 로쇠를 모르는 지배인으로 승승일로를 걸어온 그에게서 이번 분기총화는 치명적인것으로 될것이며 어쩌면 강형준이도 이젠 언덕 밑을 내려다보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동정어린 못시신을 받게 될지도 몰랐다.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과장의 말대로 한다면 궁여지책은 할수 있을것이다.

문득 갱담당설계원 동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훈은 다름아닌 몇해전에 갱장을 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옛친구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애한테...

다음날 강형준은 일부러 설계실안을 지나다가 동훈의 방에 들렀다.

탄광기술과와 잇달린 설계실은 강형준이 깊이 관심해서 꾸며준것인데 여기에는 동훈이 담당설

계원인데도 있었지만 작고한 친우와의 우정을 귀중히 여기는 그의 우애심이 각별하기때문이기도 했다.

동훈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강형준이앞에 나타났을 때처럼 허리를 굽적하며 싱그레 웃었다. 얼굴생김과 웃는 모습이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게다가 진중하고 말이 없는 성격은 또 얼마나 아버지를 방불케 하는가.

강형준은 한순간 모든걸 잊고 동훈이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본지 켜 오래된 그의 어머니와 응석꾸러기 동생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며 줄곧 얼굴에서 아버지다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복구굴진개소에 대한 문제만은 입에 올리지 못하고 설계실을 나왔다.

강형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계획과장은 매우 눈치가 빠르고 자기 사업에 《능한》 사람이였다. 그는 지배인의 심적고충을 넘겨짚고 어느새 강형준이 모르게 담당설계원과 타협안을 세웠던것이다.

강형준은 그것을 알고있었다. 알고있었으나 애써 방임하고 감각이 무뎠체했다. ...

강형준은 지금 자기가 그야말로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는것을 절감했다.

그는 친아들과도 같은 동훈이한테 할말이 없게 되고 추한 물골을 보이는게 무엇보다 피로왔다. 그리고 이런 불쾌하고 난처한 자리를 만들어낸 은행지도원이 못마땅스러웠다.

그는 슬며시 은행지도원의 옆얼굴을 훑쳐보았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흠을 들추어내자고 애써 우리 탄광실태를 료해한게 아닌가? 언제인가 이 지배인앞에서 무안을 당한 그 감정을 여태 품고있다가 꼴탕을 먹여보자고 한게 아닌가.

사업권안에 개인감정을 끌어들이는것은 너절한 행위이다. 그렇지만 저란 사람은 능히 그럴수 있지 않을까.

아들에게 벌금을 물리우겠다고 내앞에 나타났던 사람... 그래서 난 자식과 사회 앞에 선 부모의 립장에 대해 혼시하려고 했었지. 내가 그때 저 사람앞에서 잘못 처신한것이야 없지 않는가.

아니 옳게 처신한것은 무엇인가.

난 저 사람을 리해했는가?

저 사람은 나를? ...

자기의 감정을 강짜로 론리에 귀착시켜 저 사

람을 타배해버리지 않았는가?

어쨌든 저 사람은 지금 담당한 위치에서 나를 추궁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계획문건이 상부에 올라가기도전에 이 사람은 나를 찾아왔는가.

문건이 비준되어 은행을 거쳐 그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때 까뻐놓으면 나를 완전히 함정에 몰아넣을수 있을텐데...

아직은 문건에 지배인의 실인도 누르지 않은 상태이다. 반박을 하여 실패를 뒤집어놓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감형준은 그러고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책이 진심으로 후회되었다. 다만 이자리에 누가 누구를 걸고드는 숙된 감정이 깔려있지 않기를 바랄뿐이었다.

## 2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이 열리더니 굽높은 구루를 신은 처녀가 방바닥을 때각거리며 무슨 문건철을 끼고 들어섰다. 아까 물주전자를 가져왔던 기요원처녀였다.

세사람은 마치나 무대조명의 각광에서 벗어난 연기자처럼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직거렸다.

지배인 강형준은 엉거주춤 일어나 기요원처녀를 맞았고 은행지도원 변순태는 기요원처녀의 화려한 치마자락이 무릎을 스치며 지나가자 안경알속의 눈을 찡그리며 다리를 슬그머니 책상밑으로 들이밀었다. 설계원 박동훈은 머리를 얼핏 들어 기요원처녀가 내미는 문건에 말 한마디 없이 수표를 하는 지배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하게 변했다.

동훈은 수염마저 제때에 밀지 못한 지배인의 훌쭉한 볼과 턱을 바라보며 도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섰던 이 일이 얼마나 공교롭게 번지였는가를 돌이켜보며 더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동훈은 전날 강형준지배인이 설계실에 들어왔다 나갈 때 무엇인가 다르게 할말이 있어서 왔었다는것을 직감했다.

그는 집에 가서도 그것이 무엇이였겠는가를 추측해보았으며 어머니에게도 낮에 있는 일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몹시 노여워했다. 네가 지배인아저씨한테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한적은 없느냐? 속깊은 그가 그렇게 찾아까지 와서 할말을 못하고 갔다면 불잡교라도 물어봐야 할게 아니냐...

아버지 없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은 지나치게 예민한것인 모양이었다.

동훈은 어머니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다. 그는 꼭 지배인아저씨를 다시 만나겠다는 확답을 하고야 어머니를 안심시킬수 있었다.

동훈은 설계실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배인아저씨한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묻던 어머니의 말이 자꾸 되살아났던것이다.

계획과장이 설계실에 온것은 그때였다.

계획과장은 못올데나 온것처럼 주저하며 어색해하는 기색이었다. 이것 역시 동훈을 야릇한 기분에 빠뜨렸다.

둘은 마주 앉아서 국제정세며 과학계소식이며 하는 두서없는 말을 나누었는데 이야기 도간도간에는 매우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깔리곤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계획과장은 긴요한 문제를 토론하러 왔다고 의자를 바투 끄당겨앉았다.

그리고는 전날 지배인에게 하던것처럼 어깨를 낮추며 동훈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그다음 한시름을 던듯 동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것은 고속도굴진법의 실패로 인하여 굴진계획에 지장을 준것을 생각해서라도 동훈동무가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그루를 박았다. 그 말은 동훈의 귀에 몹시 거슬렸다.

얼마전에 동훈은 대학때 논문으로 발표하였던 새로운 발파법에 위한 고속도굴진법을 현장에서 시험하였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났으면 별일이 없었겠지만 막장에 버럭이 풀이 메이게 쌓여서 광차들의 운행이 중지되고 갱벽을 허물어놓아 무려 3일간이나 기본작업을 못하게 만들었다.

비난이 동훈의 정수리에 쏟아졌었다. 강형준이 그것을 막아나서지 않았더라면 동훈의 존재는 아마 납작하게 되었을것이다.

그래 동훈은 이즈음 사고와 관련해서 커다란 심뇌를 겪고있었는데 계획과장은 아주 묘하게 그의 약한곳을 건드린것이였다.

동훈은 비량심식인 일에 말려들어가는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코 계획과장 한사람의 뜻이야닐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혹시 지배인아저씨가 어제 나를 찾아왔던것도 이 문제때문이 아닐가?

아니기를 바랐으나 이 계획과장이 갑자기 찾아온것이나 어제 지배인이 별로 이렇다할 일도 없이왔던것으로 미루어보면 틀림이 없는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내리기까지 지배인의 고충이 헤아려져 서둘러 갱설계도면을 찾아 책상우

에 펼쳐놓았다. 계획과장이 알려주고간 복구굴진 개소에 시선을 박고 오래오래 들여다보았다.

비례자를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누구도 이 복구굴진개소를 기본굴진실적으로 가리워놓은것은 알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일에 손을 뻗치는 그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감추어준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을 가져다주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것이라는 그것때문에 아직 티가 끼지 않은 그의 량심은 몸부림하며 정의와 진실을 부르고있었다.

동훈에게 있어서 그것은 면전에서 받는 규탄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목소리였으며 그것을 억누른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때묻지 않은 그의 량심에 엮은 보자기를 씌우며 리성을 가리운것은 아버지의 오랜 친우였던 지배인위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런데 일이란 얼마나 공교로운것인가! ...)

그는 몇시간전에 군데군데 탄가루가 묻은 후령한 작업복을 입은 은행지도원이 불쑥 설계실에 왔던 일을 생각했다. 무척 인사성이 밝은 이 사람은 일에 방해를 주어서 안되었노라고 하더니 말하는것이였다.

《난 설계원동무한테 한가지 알아보고싶은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

《설계원동무 대학때 새로운 발파법에 의한 고속도굴진이라는 제마를 가지고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던적이 있지요?》

동훈은 아리송한 눈길로 은행지도원을 바라보았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묻는겁니까?》

《물을수 있다고 생각해주시오. 그 논문이 현실적으로 아주 가치있는것으로 평가되었다는데 왜 아직 막장에 도입 되지 못하고있는가요?》

동훈은 가볍게 웃었다. 묻는 의도는 딱히 알수 없었으나 기술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대하는것 같아 친진하게 여겨졌다.

《설계원동무, 거듭 말하지만 물을수 있다고 생각해주시오.》

사선으로 비껴든 해빛이 그의 안경알에 부딪쳐 날카로운 빛을 뿌렸다.

그제야 동훈은 자기의 경솔성이 웃사람에게 체감되는 경우를 생각했다.

《뭐 그리 요란한것은 못됩니다. 탄광에서 굴진속도를 높이자면 련속천공, 련속탈파를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난 동무의 논문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시험단계에서

실패했다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내가 알고싶은 건 왜 그것을 그리 쉽게 포기해버렸는가 하는겁니다.》

동훈은 말문이 막혔다.

반면에 말허리를 꺾는데 대한 불쾌감과 함께 생뚱같은 은행지도원이 나서서 더께가 앓을사하던 상처를 건드린것 같아 매우 속이 좋지 않았다.

《은행지도원동지, 남의 사업권안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지도원은 어색한 낯빛을 지었다.

《저는 한개 탄광의 갱건설설계라는 힘에 부치는 실무를 감당하고있습니다. 그러다나니 짹짹이 하는 일이 잘 안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구 기술혁신이라는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난 한번 쓴맛을 보았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동훈은 마지막말을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손등에 퍼런 피줄이 살아오르도록 책상을 누르며 일어난 은행지도원의 얼굴에는 실망이 어려있었다.

《알만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문... 복구굴진을 기본굴진실적으로 가리운 이 탄광일군들의 행위를 눈감아주었구만요! ...》

《?!...》

《난 동무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동무는 그 발파법만 도입하면 발파효율을 대뜸 85프로나 높일수 있다고 서술했지요. 이것은 같은 자재, 같은 효력을 들이고도 지금보다 1.5배의 굴진속도를 낼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난 은행일군입니다.

수자를 돈으로 튕겨보는데 버릇이 된 사람이지요. 동무의 발파법만 도입되면 한막장에서만도 한 달에 10여메터의 갱도를 공짜로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약된 로력과 자재는 내놓고라도 수만원의 리득금을 국가에 주게 됩니다. 그렇게 탄광적으로 따져서 1년 열두달을 계산해보시오. 수백만원이나 됩니다. 수백만원이나!

이것을 안다면야 어떻게 한번 실패했다구 쉽사리 물러설수 있소.

설계원동무. 추상적인 론리나 허공에 뜬 수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사오. 동무같은 기사들이 있기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더 빨리 전진할수 있는 가능성을 잃고있다는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동훈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타격에 얼머름해졌다. 그다음 그는 은행지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설계실을 나갔는지 가려듣지 못했다. 옷을 갈아입은 은행지도원이 다시 나타나서 지배인실에 좀



같이 가주어야겠다고 말했을 때 황급히 서둘러 일어났다. 그의 뇌리속에는 문제가 크게 쏘구나 하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짙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은 반면에 뼈아픈 자책이 엄습해왔다.

그는 결국 죄를 지은것이다.

자기가 그렇듯 신성하게 여기고 티없는 마음을 바치려고 한 당과 국가 앞에...

### 3

은행지도원 변순태는 바위가 굴러와도 끄덕없을 강형준지배인이 지금 어떤 심리에 빠져있는지 알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알지 못할것을 안듯싶었다.

은행의 같은 부서사람들은 그를 《전자계산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한것은 령철한 객관성과 판단력, 어느 대상이나 파헤치기 시작하면 바닥을 들어내고야마는 꾸준한 인내력, 어떤 현상이든지 수식으로 파악할줄 아는 기질이 있기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가》를 두고 변순태라는 그의 인간의 전도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변순태는 자기를 대명사화한 그 말마디를 싫어했다.

사람들은 그가 체질상으로는 전형적인 다혈질이고 감성적으로는 매우 동요가 심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고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본질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것이 좋았다. 일하기도 사업하기도 낯선 사람들과의 대상에서도 그것이 아주 편리했던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외국된 형상》이 싫었고 점차적으로는 두렵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그가 자기사업에서 권태를 느끼거나 로쇠가 도래했다는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자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했다.

홍봉탄광의 부정면을 발견했을 때부터 지배인 강형준의 방에 들어서기전까지 변순태는 이렇 생각으로 마음을 조였고 지금 지배인과 마주앉은 이순간에는 그것이 거의 병적이다싶이 그의 심신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변순태의 인상에 남은 강형준이라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존경이 가는》 사람이였다.

그는 강형준지배인과 면목은 없었지만 그가 일에서나 사업능력에서나 인간생활에서나 못사람들속에서 대단히 신망이 높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 기회를 보아 이곳 탄광에서 일하는 아들을

력대고 지배인과 조용히 마주앉아 서로가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는 동등한 립장에서 무엇인가 의의있고 우애가 두터워질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었다.

그런데 지배인과의 첫대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몇달전 어느날 그의 아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첫생활비를 탔다고 몹시 기뻐하며 읍에 있는 집으로 왔었다.

아들이 탄광에서 로동을 시작하듯마듯 갱에서 설비사고를 일으켜 호된 추궁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는것을 알고있던 그는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

《어떻게 되긴요. 관대히 봐준거지요. 우정 낸 사고도 아닌데 아무럼 그렇게 망탕 벌금을 물리겠어요.》

아들의 천연스러운 대답이였다.

《뭐 망탕이라구? 덜된놈의 자식, 도루 가져다 바쳐라!》

변순태는 아들의 생활비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의 발밑에 던졌다.

《아버지두 참...》

《무슨 대구질이나. 네가 저지른 일이 그저 네 주머니에 있는 손칼이나 만년필을 못쓰게 만든것같이 생각되느냐. 개인재산을 놓고는 이렇게 저렇게 흥정할수 있어도 국가재산을 놓고는 손톱만한 에누리도 해선 안된다.》

《아버지, 너무 요란하게 문제를 세우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일을 가지구...》

《네가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누나. 내 말뜻을... 네 나이 지금 몇이게 그걸 모르다니... 좋다, 네가 정 못가지고 가겠으면 내가 가져다 바치겠다.》

변순태는 이쯤되면 아들이 내키지 않아도 자기의 요구에 응할줄 알았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에서는 전혀 그런빛을 읽을수 없었으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몹시 의아해할뿐이였다.

그래서 그는 일부터 출장용무를 만든 다음 탄광에 와서 설비과의 문전철에 묻혀있는 아들의 사고조서를 찾아가지고 지배인의 방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지금처럼 의자팔걸이에 기우뚱히 몸을 싣고 자기를 맞잡지 않게 바라보던 지배인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수 없었다. 그 지배인이 지금 뗏뗏치 못한 일로 그앞에 앉아있는것이다.

강형준지배인의 사람됨을 믿었던탓에 변순태는 자기가 착오를 범한게 아닐가 하는 의심도 했었

다.

홍봉탄광의 부정행위가 더는 론박할수 없는것으로 되었을 때에도 그는 지배인을 찾아가기전에 먼저 막장으로 들어갔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있게 되고 누구나 너그럽게 리해할수 있는 지배인의 부정을 감소시킬수 있는 그런 점을 발견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아량》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는 며칠을 굴진공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자기가 투하한 로력에 비해 적은 실적을 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투하된 로력과 항상정비례관계를 가지면서 현물적으로 나타나는 자재소비량을 따져보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굴진 1미터당 폭약과 퇴관소비량은 격차가 심했다.

(《석탄생산》을 정면에 내걸고 이 사람들이 대체 정신이 있는것들을 하고있는가. 당이 지금 증산과 절약투쟁으로 모두를 부르고있는 때에 귀중한 로력과 자재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있다니…

지배인 그 사람이 손톱 핏는줄만 알고 엄통 핏는줄은 통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분개스러운 순간이 지나가자 어떻게나 이 탄광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중에 그는 탄광기술과사람들로부터 홍봉탄광담당설계원 박동훈의 《고속도굴진법》과 그것의 실패여부를 알게 되었다. 그것만 성공하면 석탄 톤당 원가를 대폭 줄이면서도 홍봉탄광에 조성된 난국을 손쉽게 극복할수 있을것이였다. …

변순태는 속이 갑갑해났다.

넓은 방안에는 혼탁된 공기가 무겁게 흐르고 있다

담배연기가 허공에 떠서 빠져나갈데를 찾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다. 어디로 날아들었는지 노랑잠자리 한마리가 창유리에 붙어서 기를 쓰고 나가보자고 한다.

지배인은 그 틀진 몸을 기우뚱한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변순태는 아까부터 피우려고 꺼내든 담배가치를 책상맡에서 그냥 주물렀다.

지배인이 내뿜는 담배연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허기중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였다. 그는 애연가였다.

그러나 그는 이젠 너무 주물러서 손때에 절다싶이한 담배를 끝끝내 입가까이에 가져가지 못했다.

그는 강형준지배인앞에서 꼭 엄한 아버지앞에 앉은 아들이 된 구속감을 느끼고있었다. 누군가

좀 들어와서 이 움직일수 없는 침목을 좀 깨뜨렸으면 했다.

기요원처녀가 들어왔다나간지 불과 몇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몇시간은 실히 흐른듯싶다. 그 화려한 옷차림이 다시한번 나타났으면 했다.

지배인 저 사람은 그야말로 바위돌같은 사람이구나. 왜 말 한마디도 없는가.

설계원청년은 여전히 한본새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 그 역시 안타까운 모습이였다.

저 청년한테서는 왜 젊은이다운 기백이 느껴지지 않을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왔으면 한창 물불을 모를 때인데 그렇게 훌륭한 혁신안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한번 실패에 주저앉아버리다니…

왜서인지 키가 자기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계획과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기 지배인실에 들어오기전까지 자기의 팔목을 거둑거둑 걸어채며 아주 묘하게 억지를 부리던 사람…

잠잠하던 노랑잠자리가 또 기를 쓰고 날개를 파들거린다. 좀전보다도 더 맹렬하게 이쪽저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그냥 나가보겠다고 한다.

방이 점점 컴컴해지는게 두려운 모양인가. 저렇게 자유로운 날개를 가지고도 앞이 막히면 날지 못하는 법이지. 앞이 막히면… 아, 저 창문은 좀 열자…

## 4

따르릉-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세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책상우에 놓여있는 전화기에 쏠렸다.

강형준지배인은 그제야 모로 돌아앉았던 몸을 돌려 전화기에 손을 뻗쳤다.

《…그렇소. 음… 그렇게 하오…》

강형준지배인은 수화기를 놓으려다가 다시 교환을 불러 계획과에 대라고 했다.

《계획과장동무요? …내 지배인이요. 2.4분기총화문건을 다시 작성해야겠소. …정확히 고대루말이요. 알했소?… 더 말하지 않겠소. 저너 지령총화때 그걸 가자구 오시오. …》

수화기를 놓자마자 강형준지배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지도원동무, 미리 찾아와서 일을 바로잡게 해주어 고맙소. 우리한테 뭘 더 할말은 없겠

소?》

그는 책상위의 서류들을 간중그러서 한결에 밀어놓으며 나갈 차비를 했다.

변순태는 조급한 나머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정말로 지배인이 훌쩍 나가버릴가봐 겁이 났다.

《할말이 있습니다. 지배인동지! ... 전 지배인동지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할 결심하신지... 그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 지배인이 또 그런 행위를 할가봐 겁이 납니까?》

《...아 아니, 그렇게 아니라 흥분탄광이 새 분기에 가서도 굴진계획을 하지 못할가봐... 그것이 걱정됩니다.》

강형준지배인은 손에 서류들을 한뭉큼 움켜진 채 은행지도원을 이윽도록 건너다보았는데 의혹이 길게 어린 그의 눈에 쓰겨워하는 빛이 함께 엉켜돌았다.

《공연한 걱정일게요. 그런데... 그러잖아두 머리를 일이 많을 은행지도원동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조이며 우려할 필요야 없지 않소.》

《지배인동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배인동지, 우리야 자본가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지나친 표언을 썼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 옳게 말했소. 공감이요. 우린 물론 자본가가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각기 자기가 맡은 사업분담이 있고 자기 사업권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자신이 당과 국가 앞에 책임을 지게 되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건 우리 사회의 미덕이 아닐가요?》

책임문제를 놓고 말한다면 당과 국가 앞에서 자기 앞서 자기 량심앞에서 먼저 저야 한다고 봅니다.》

《허허, 내가 이거 사람을 지내 허술이 대한다는 뜻이겠소?》

《지배인동지! ... 전 진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 구체적으로 료해했습니다. 결과 여기 흥분탄광일꾼들이 아니, 지배인동진 높아가는 석탄산만 보시고 그 석탄이 어떻게 쌓이고있는지 모르시는분인것 같습니다.》

《??》

강형준의 술진 눈섭이 쫓깃 일어서더니 눈빛이 날카로와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은행지도원은 제 할말을 했다.

《국가에서 한그람 한그람 쪼개서 보내준 귀중한 자재는 소비기준량을 훨씬 초과하고있으며 일부 갱막장들에서는 아직도 채래식방법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은 창안자의 동요와 주저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지배인동진 이 모든것을 알고계시겠지만...》

《아오. 그건 나도 아오. 하지만 동문 우리 형편을 너무 과장하고있소.》

강형준은 손에 들고있던 서류를 책상위에 던지며 위엄있게 말했다.

설계원 박동훈이 놀란듯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목에 연추를 매단듯 다시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강형준은 동훈이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 유순한 눈빛에 형언키 어려운 감정이 복잡하게 얹혀있다는것을 놓치지 않고 감촉했다. 그 눈빛은 자기가 이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성을 내고 전횡을 부릴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것을 암시하는것 같았다.

그래 그런지 자기의 큰 목청이 어딘가 인위적이고 김이 빠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강형준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은행지도원의 언행을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그는 나가려는것을 포기하고 의자에 덜썩 몸을 실었다.

은행지도원은 자기 발치까지 날아온 서류 한장을 허리를 굽히고 주어서 조심히 지배인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섰던 자리에까지 물러나서야 허리를 꼳꼳이 폈다.

그다음 삼면가방을 열고 역시 강형준지배인의 그것과 같은 서류묶음을 꺼내서 어느 한장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잠시 어쩔가 망설이는가싶더니 결심한듯 그것을 지배인앞으로 밀어놓았다.

강형준지배인은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그는 이 체소한 사람한테서 신성시해야 할 어떤점을 느낀것이다.

그는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하얀 규격지우에는 탄광에서 분기에 소비한 로력과 자재비가 법규정과 대비하여 갱별로, 개소별로 산출되어 있었는데 그 한자한자는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쿡쿡 찔렀다. 그가 과연 이것을 몰랐던가? 결코 모르진 않았다.

그는 탄광의 세대주이다. 자기 손에서 석탄 한 톤한톤이 어떻게 나가고 한푼한푼의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그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획을 해놓고봐야 한다는 자기식 《원칙》에 따라 눈을 꼭감고 돌격에 돌격을 부르짖으며 막장에서 요구하는대로 로력, 설비, 자재, 동발을 들이밀었다.

생산량에 비해 초과되는 소모량에 대한 책임추궁은 그후에 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해서 머리를 못드는것보다는 떳떳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강형준은 실무적추궁에 앞서 량심의 추궁을 받고있는것이다. 자기 량심의 추궁을... 그렇다. 그는 이자리에서 자기를 정당화할 그 어떤 구실도 찾을수 없었다.

은행지도원이 내민 한장의 서류는 그가 그렇듯 대범하게 외면하고 소비한 로력과 자재비가 현물적으로 나타나서 숨을 쉬는 생명체마냥 동공을 뚫고들어와 심장을 건드렸다. 그것은 강형준의 비량심적인 기업관리를 폭로하는 고소장 같기도 했다.

그럴수록 강형준은 왜서인지 좋게는 볼수 없었던 은행지도원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짙어지였다. 이사람은 탄광에 대해서 자기만큼 어떤면에서 자기보다 더 많은것을 알고있다.

직업적인 타성이 가져다준것인가?

아니, 그것은 아닌것 같다. 단순히 실무적인 안목으로는 이렇게 속속들이 알수야 없지 않는가.

속이 답답했다. 넓은 방이 이렇게 숨막힐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진적은 없었다.

강형준지배인은 절로 타들어간 담배대를 그냥 손가락짚에 끼운채 의자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뚜벅뚜벅 - 징박은 구두소리같은 발소리가 방안에 서린 침묵을 깨뜨리며 창문쪽으로 옮겨가자 창으로 흘러드는 이 하루의 마지막 잔광속에 희

미하게 그려진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방안을 길게 가로질렀다.

그는 문걸쇠를 벗기고 짝 닫기였던 창문을 활밀어제겼다. 그때까지 창유리에 붙어서 파들거리던 잠자리가 그만에야 앞이 트였다는것을 안모양인지 날개를 저으며 허공으로 몸을 솟구었다.

버드나무 옷초리까지 날아오른 잠자리는 머리태같이 치렁치렁한 버들가지에 붙을듯말듯하더니 낮추 드리운 구름장을 뚫고 가물가물 사라졌다...

등뒤에서 가벼운 소요가 일어났다.

출입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나면서 나가고 들어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새로 안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말을 혼자서 쓸얼거리며 불쾌감을 나타내는것 같다. 그제야 강형준 지배인은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놀랐다.

방금전까지 몸매가 작은 은행지도원이 서있던 자리에 키가 구척인 계획과장이 어깨를 구부정하고 서있지않는가.

그러면서 출입문쪽으로 몇번이나 눈을 흘깃거리는것이였다.

강형준은 자기앞에 다가오는 계획과장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 소리없이 이 방에서 나간 은행지도원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그렇게 술그러니 나가다니, 왜 나갔을가, 아주 가버리자고? ...

강형준지배인은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것이 어스름타이라는것을 잊고 손등으로 눈언저리를 비비며 줄곧 출입문쪽만 바라보았다. 왜서인지 마음이 허전해지였다. 그리고 쓸쓸하고 불쾌하고 난처한, 딱히 짝어 말할수 없는 감정이 속을 마구 뒤섞어 놓는다.

(사람두 참... 그렇게 가버리다니...)

계획과장은 지배인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기웃이 내려다보고나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였다.

《그 은행지도원이란 사람이 여기 왔습디까?》

《...》

《정말 야박한 사람이군. 우리한테 있는 아들들 봐서라두 그래서는 안될 사람인데.》

《동문 무슨 말을 하고있소?》

강형준의 큰 주먹이 거뭇한 책상우에서 부르르

떨고있었다. 그러나 끝내 자신을 이겨낸듯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일을 보시오.》

그리고는 제먼저 계획과장을 외면하며 창문쪽으로 돌아섰다.

한줄금의 서늘러운 바람이 활짝 열어놓은 창으로 불어들더니 책상위의 서류들을 날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쳐 문고리를 쥐던 강형준은 밖을 내다보다가 우뚝 굳어졌다.

가지가 실실이 드리운 수양버들밑에 두어사람이 앉을수 있는 작은 널의자가 있었는데 은행지도원이 바로 거기에 앉아있는게 아닌가.

은행지도원의 넓지 않은 등어리가 버들가지사이로 푹푹히 보였다.

머리는 아래로 깊이 숙이고있다. 손에서 입으로 담배를 날라가는 움직임이 없다면 조각상같이 보일 모습이었다. 담배연기는 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턱과 귀밑에서, 몸전체에서 뿜어나오는듯싶다.

강형준은 자기가 속이 상하면 저렇게 담배를 정신없이 피우던 생각을 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비로소 저 은행지도원의 진정을 이해하고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저 사람은 피로와하고있다.

나 이상으로, 나 이상으로 피로와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제집살림의 한귀퉁이가 몽청 잘리워나간 다 해도 저렇게는 가슴아파하지 않을것이다.

탄광살림을 놓고 내가 저 은행지도원처럼 그럴듯 마음쓰고 피로와환적이 과연 있었던가.

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주인의 의자를 차지한 손님이고 식객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나와 같은 일군이 기업관리를 하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심려하실텐가, 얼마나...

후두둑- 비방울이 창을 때렸다. 뒤따라 우르릉 하늘을 구르며 천둥소리가 가까와온다.

한소나기 퍼부을 모양인가.

얼핏 하늘을 쳐다본 은행지도원은 삼면가방을 다가끼며 일어섰다. 어디로 가려는가?

야단이군, 저대로 가다가는 물참봉이 될텐데...

그는 방구석에 세워있는 우산을 손에 들었다.

그러나 문열에 그때까지 고개를 수긋한채 혼자서있는 동훈이를 보고는 또한번 가슴치는 자책에 휘감겼다.

《동훈아!》

박동훈은 머리를 들고 죄지은듯한 눈길로 마주 바라보았다.

《...고속도굴진법을 이제 다시 시작할수 있겠니?...》

《해보겠습니다. 꼭... 지배인동지, 제가 지배인동지를 잘... 돕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내가 너한테 하자던 말이다. 내가... 이젠 그런 말을 더 하지 말자, 래일 당장 현장에서 기술협의회를 가져야겠다. 중요한 건 연구자인 네 결심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아라.》

박동훈을 보내고 강형준은 헤덤비며 방을 나왔다.

그리고는 우산을 펼쳐들고 은행지도원의 뒤를 쫓아 성급하게 걸어갔다.

비발이 점점 더 굵어졌다.

## 독자편지

# 《대동강물우에 띄우는 련시》를 읽고

《조선문학》 1990년 3호에 실린 《대동강물우에 띄우는 련시》(오필천 작)는 농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한 좋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한번 읽으면 다시 또 읽어보고싶고 읽어볼수록 대동강이야말로 당의 은정속에 흐르는 인민의 강, 사랑의 강이구나 하는 크나큰 감동을 높여주고있습니다.

참으로 련시의 매 시구절마다에는 농민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고 이 땅에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는 당의 은덕에 감사드리는 농민들의 마음이 강물우에 시처럼 노래처럼 흐르는듯싶습니다.

실로 대동강물을 통채로 인민을 위해 사랑의 생명수로 흐르게 한 당의 고마움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하는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할 애국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련시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장봉순

## 동화언어에서 과장법의 리용을 두고

전병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일수록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더 깊은 탐구가 요구되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나서는 중요한 미학적요구의 하나는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탐구하여 적중하게 쓰는것이다. 특히 여기서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언어형상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동화에서 많이 리용되는 언어형상수법들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과장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장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현상 등을 그보다 확대 또는 축소하여 나타내는 표현수법으로서 동화에서 높은 표현적효과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수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 동화문학창작실천에서는 과장법을 잘 리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이 노는 위치와 역할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는데로부터 오는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동화는 예로부터 환상적형상을 생명으로 하여 발생하였고 또 발전하여왔다. 동화의 생명인 이 환상적형상은 의인화와 함께 언제나 과장에 기초하고있다.

동화에서의 환상적형상은 작가가 자기의 미학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양적내용을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흥미있는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생활을 목적의식적으로 변화시켜 그려놓은 특이한 협상으로서 생활을 비현실적인 신기한 모습으로 굴절시켜 보여준다.

동화 《날개달린 룡마》에서 금빛룡마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환상세계는 비현실적인 신기한 사건이다. 이 환상세계는 과장법에 의해 그려지고있다.

또한 동화는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것보다 주로 흥미있는 사건과 재미있는 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준다. 때문에 인물의 성격을 확대과장하지 않고서는 인물형상을 어린이들에게 생동하고 인상깊게 보여줄수 없다.

혁명동화 《놀고먹던 꿀꿀이》에 나오는 의인화

된 소와 말, 멍멍이와 야옹이 그리고 수탉과 꿀꿀이 등 집짐승들의 형상이 것처럼 생동하고 인상깊게 안겨오는것은 그들의 성격을 상대적특성에 맞게 확대과장하여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즉 소와 말, 멍멍이와 야옹이, 그리고 수탉은 일 잘하고 부지런한 성실한 인물로 꿀꿀이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면서 욕심사나운 부정인물로 확대과장하였기때문에 어린 독자들에게 소와 말, 멍멍이와 야옹이, 그리고 수탉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사는 보람이 있고 꿀꿀이처럼 먹고놀기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쉽게 리해시킨다. 만약 이 집짐승들의 성격을 이렇게 확대과장하지 않고 현실그대로 보여주었다면 주자는 사상을 것처럼 명백하게 그리고 흥미있으면서도 쉽게 보여주지 못하였을것이다.

때문에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을 잘 리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동화에서 과장법은 많은 경우 작품전체를 지배하고 주로 환상적인 내용을 담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동화에서 과장법의 표현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잘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동화에서 과장법은 동화적인 인물과 사건, 사실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리용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생활의 본질적특성을 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혁명동화 《나비와 수탉》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과장된 형상이다.

동화에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노랑나비가 꽃동산의 왕으로 자처하는 오만한 수탉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통하여 제힘을 믿고 머리를 써서 싸운다면 능히 어떤 강적도 물리칠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여기서는 수량상우세와 기술적우세를 사상적우세와 전술적우세로 격과할데 대한 거대한 사상을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과장의 방법으로 단순화하여 보여주었다.

여기서 리용한 대담한 과장이 현실적토대와 생활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파악에 기초하여 잘 안 받침되었기때문에 그것이 진실로 느껴진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확대과장하는 대상, 현상의 본질적속성을 잘 고려하는것이다.

그것은 과장된 대상, 현상들이 다름아닌 그의 생태적특성과 속성들이 변형되어 나타나기때문이다.

혁명동화 《미련한 곰》(동화집 《날개달린 룡마》)에서 곰이 할아버지의 얼굴에 붙은 파리를 쫓느라고 친것이 그만 할아버지를 죽여버렸다는 과장된 형상에는 미련하고 힘이 센 곰의 생태적 특성과 속성이 효과적으로 리용되었다.

이와 같이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은 인물과 사건, 사실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리용된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은 특징적인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

혁명동화 《두 장군 이야기》(동화집 《나비와 수탉》)에서)를 보자.

즉 새별장군을 놓고보면 피가 많을뿐아니라 힘도 어지간히 셀것이고 그밖에 다른 여러가지 성격적면모를 가지고있을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무시되고 슬기로운 측면만 확대과장되었다. 또 무쇠장군을 놓고보더라도 그에게 지혜가 전혀 없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들은 다 무시되고 우둔한 측면만을 확대과장하였다.

즉 혁명동화에서는 사상주제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두 장군의 전면적인 성격적특질을 보여주고있는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측면을 과장한 장군과 힘이 세나 우둔한 장군의 성격을 과장하여 보여주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여주려는 주제사상적내용을 심화해주며 그 형상성을 높여주고있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은 또한 해학과 풍자, 익살의 방법으로 부정인물의 형상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팔다리에 살이 텅텅 부어오르더니 훌렁훌렁하던 팔소매와 바지가랭이들이 팽팽해지다 못해 나중에는 터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차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이 자꾸오르던 두팔은 몸통이에 들어불고 두다리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더니 지주놈과 너편네의 몸통이는 미끈한 항아리모양으로 변해버리고말았습니다. (동화《신기한 항아리》김진열)

여기서 과장된 표현들은 욕심사납고 미웍하기 짝이 없는 지주놈과 그 너편네년을 풍자조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리용되었다.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지주놈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통쾌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동화의 언어 형상에서 과장법은 부정인물들의 음흉한 속심을 풍자하는데도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강지주놈의 눈깔은 대번에 황소눈깔만해졌습니다.

《저런, 눈에 신기한 잉어가 있다더니 정말이었구나.》

강지주놈의 가슴속에서는 욕심이 꿈틀거리며 살아올랐습니다.

(금잉어피를 먹으면 억년 늙지 않고 산다고하는데...)

강지주놈의 뱀새눈엔 교활한 빛이 번뜩이었습니다. (동화 《은돌이와 금잉어》 박문영)

여기서 과장법은 은돌이가 잡은 금잉어를 빼앗아 피를 먹고 오래 살려는 음흉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강지주놈의 심리상태를 생동하게 드러내고있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의 표현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주되는것만을 확대과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간생활과 사회현상을 직선적으로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주되고 본질적인것만 확대과장하여 동식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물현상에 체현시켜 의인화하는 방법으로 형상하는 동화문학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주되는것만을 확대과장하여야 어린이들에게 주자는 사상을 쉽고 명백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줄수 있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의 표현적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것이 반드시 생활적진실에 토대하여야 한다.

동화적과장이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형상성을 높일수 있으며 그의 생명력을 나타낼수 있다.

동화적인 사건, 사실, 현상들을 외곡하여 엄청나게 과장하거나 환경과 정황에 맞지 않게 과장한다면 그 효과를 나타낼수 없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은 반드시 생활의 터전위에서 생동하게 보여줄 때만 형상성을 높일수 있으며 주제사상을 강조하는데 적절히 쓰일수 있다.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의 표현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장이 어린이들의 이해에 혼란을 주지 않게 하는것이다.

과장 그자체가 현실적가능성으로 볼 때에는 이루어질수 없는것으로 이해에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

그러므로 과장을 어린이들이 일정한 문맥속에서 이해할수 있는것으로 해야지 의혹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일수록 과장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화창작가들은 동화의 언어형상에서 과장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어린 독자들이 흥미있게 읽을 재미있는 동화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복수하리라, 그대의 이름으로

— 고 신장호학생의 령전에 —

조병석

쓰리고 아픈 기억들이  
피빛으로 살아있는 광주망월동에  
또 하나 묻히는가  
꽃나이 청춘  
고 신장호렬사여!  
푸르른 저 산천이 누구의것이고  
파아란 저 하늘여 누구의것인데  
이 산천, 이 하늘아래서  
남녘은 또다시 아들을 잃고  
온 겨레가 조객이 되어  
피끓는 젊음을 묻어야 하느냐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고  
어머니보다 자식이 먼저 가며  
쓰러질듯 가슴치며  
장례차를 따르게 하는 원과 한이  
남녘에는 또 이어져야 하느냐  
피가 끓는다  
렬사를 보내는 우리의 가슴가슴에  
다시는 오지 못할 그 길  
그대는 말없이 가도  
눈물에 앞서 분노를 안겨주는구나  
온몸이 불길로 치솟게 하는구나

그대  
품은 소원 그리도 소중하고  
간직한 뜻 그리도 큰것이기예  
죽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파쑈의 총칼에 항거하여  
달리는 렬차에서 한몸 던졌거니

렬차는 쉬임없이 달리고

그대는 쓰러졌어도  
겨레는 그대를 안고갔다  
가야 할 항쟁의 도시, 싸우는 광주로

너무도 짧은 생  
너무도 긴 포부를 두고  
청춘으로 갔어도  
그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대는 죽음으로 파쑈를 고발하고  
죽음으로 남녘을 투쟁으로 불렀거니

복수하리라, 그대의 이름으로  
온 남녘이 불길이 되어  
압제의 세상에 불을 지르리라  
온 남녘에 복수의 천등번개를 일으켜  
파쑈독재자들의 머리우에 떨어지게 하리라!

결산하리라, 그대의 몫도 합쳐  
미국성조기에 불을 달고  
독재의 아성에 철퇴를 내리며  
투쟁으로 자주를 찾고  
투쟁으로 민주를 이루고  
투쟁으로 통일을 마중하리라!

아, 광주와 함께 빛날 이름  
겨레의 눈길을 모으며 가는 그대  
소원은 두고가도  
꿈은 기어이 실현되리니

고 신장호렬사여  
고이 잠들라!